

발간등록번호

79-6500461-100002-01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

차 례

• 발 간 사	5
• 일러두기	7
• 인명색인	8
• 공 훈 록	13

제주는 예로부터 불의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자주를 지켜온 섬이었습니다.

1909년 제주의병운동을 포함해 3·1운동보다 5개월가량 앞선 1918년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1919년 조천만세운동, 여성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였던 1932년 해녀항일운동까지, 제주의 들판과 바다는 언제나 항거의 함성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제주인의 의로운 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인의 숭고한 발자취들은 세월의 무게에 오랜 기간 흩어지고 묻혀,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인 올해, 제주 출신 독립유공자 222분의 공훈과 생애를 한데 모아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뿌리를 되새기는 역사적 사명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도내 교육기관과 도서관, 현충시설 등에 비치되어 미래 세대가 나라의 근본을 배우고, 선열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소중한 교육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전시와 연구, 교육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제주 항일독립운동의 학술적 토대를 굳건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은 어제의 과거를 기록하고 전하며 오늘의 정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이 내일의 제주와 대한민국을 비추는 불멸의 불꽃이 되어 자유와 정의의 상징으로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남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러두기

1.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차례, 발간사, 일러두기, 인명색인, 공훈록, 판권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주 독립유공자 222명(2025년 3월 기준)을 성명별(가나다 순)로 수록했다.
3. 독립유공자 서훈의 종류와 등급은 아래와 같다.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4. 본문은 유공자 포상 개요, 공적 내용, 참고 문헌 순으로 서술되어 있다.

- 1) 유공자 포상 개요와 공적 내용은 공훈전자자료관 및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등을 바탕으로 했다.
- 2) 독립유공자 성명·이명·생몰년·본적·운동 계열·훈격·공적 내용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성명과 이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했다.
 - 성명과 이명은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자료관에 기록된 내용으로 기재했다.
 - 생몰년월일은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유공자 후손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훈전자자료관을 따랐다.
 - 생몰년월일을 알 수 없는 경우 미상, 추정인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 주소는 본적을 기준으로 기재했다.
 - 본적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 미상, 추정인 경우에는 ()로 표시했다.
 - 운동 계열은 공적 심사 결과에 따랐다.
 - 훈격(연도)은 정부가 수여한 포상 훈격과 연도를 기재했다.
 - 공적 내용은 독립운동 당시의 주요 활동만 연도별로 서술했다.

5. 유공자 사진

- 제주항일기념관 소장 사진을 수록했다.
- 사진이 없는 경우, 광복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국가보훈부(공훈전자자료관)·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소장 사진을 수록했다.

인명색인

강공흡(姜公洽)	15	강태선(姜太善)	41
강관순(康寬順)	16	강태하(姜太河)	42
강군평(康君平)	18	강평국(姜平國)	44
강규언(姜圭彦)	19	고경수(高京守)	46
강금중(姜金鍾)	20	고담룡(高湛龍)	47
강기찬(康箕贊)	21	고병희(高秉禧)	48
강두옥(康斗玉)	22	고봉조(高奉朝)	49
강문범(姜文範)	23	고사만(高仕萬)	50
강문일(康文一)	24	고사훈(高仕訓)	51
강문호(康文昊)	25	고수선(高守善)	52
강민수(姜敏洙)	26	고순흠(高順欽)	54
강봉근(康奉根)	27	고연홍(高蓮紅)	56
강봉주(姜鳳柱)	28	고영호(高瀛豪)	57
강봉환(姜奉煥)	30	고용석(高用錫)	58
강성건(姜成健)	31	고운하(高雲河)	59
강수오(姜壽五)	32	고재륜(高載崙)	60
강순봉(姜舜奉)	33	고종건(高宗虔)	61
강시검(康時儉)	34	고태리(高泰利)	62
강윤석(康潤錫)	35	김경봉(金京奉)	63
강창거(姜昌學)	36	김경희(金慶熙)	64
강창규(姜昌奎)	37	김기수(金基洙)	65
강창보(姜昌輔)	38	김남식(金南植)	66
강춘근(姜春根)	40	김대원(金大元)	67

인명색인

김동인(金東仁)	68	김순희(金淳熙)	97
김두경(金斗璟)	69	김시곤(金時坤)	98
김두삼(金斗三)	70	김시범(金時範)	99
김두성(金斗性)	72	김시성(金時成)	100
김만석(金萬石)	74	김시용(金時容)	102
김만제(金萬濟)	75	김시은(金時殷)	104
김명돈(金明敦)	76	김시추(金時秋)	105
김명식(金明植)	78	김시황(金時黃)	106
김무석(金武錫)	80	김시희(金時熙)	107
김문준(金文準)	82	김신형(金辛亨)	108
김백능(金百能)	84	김여석(金汝錫)	109
김봉화(金奉和)	85	김여찬(金麗贊)	110
김삼만(金三萬)	86	김연배(金年培)	112
김상언(金商彦)	87	김연일(金連日)	113
김상추(金商秋)	88	김영선(金永善)	114
김석윤(金錫允)	89	김옥련(金玉蓮)	115
김성수(金成洙)	90	김용충(金用忠)	116
김성숙(金成淑)	91	김운배(金沅培)	117
김성오(金聲五)	92	김인송(金仁松)	118
김성종(金性鐘)	93	김인수(金仁秀)	120
김순재(金淳在)	94	김일준(金日準)	122
김순종(金順鍾)	95	김임형(金林滢)	123
김순탁(金淳鐸)	96	김재돌(金在玆)	124

인명색인

김재동(金才童)	125	문남은(文南恩)	151
김재중(金在鍾)	126	문덕홍(文德洪)	152
김재진(金在珍)	127	문도배(文道培)	153
김재형(金栽滢)	128	문창래(文昌來)	154
김정맹(金精孟)	129	박규훈(朴圭勳)	155
김종호(金宗鎬)	130	박두규(朴斗圭)	156
김중현(金仲鉉)	131	박상준(朴相俊)	157
김진현(金鎭賢)	132	박세현(朴世賢)	158
김진희(金晋熙)	133	박영순(朴榮淳)	159
김창옥(金昌沃)	134	박인생(朴仁生)	160
김창환(金昌煥)	135	박재하(朴宰夏)	161
김태권(金太權)	136	박주석(朴周錫)	162
김태근(金泰根)	137	방동화(房東華)	164
김필원(金弼遠)	138	배창아(裴昌兒)	165
김한정(金漢貞)	140	백응선(白膺善)	166
김항률(金恒律)	142	변성현(邊聖現)	167
김형배(金瑩培)	143	변태우(邊太祐)	168
김형수(金炯洙)	144	부기준(夫己準)	169
김홍규(金弘奎)	145	부덕량(夫德良)	170
김희봉(金喜奉)	146	부덕환(夫德煥)	171
김희수(金熙洙)	148	부동흥(夫東興)	172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149	부두전(夫斗楨)	173
문남규(文南圭)	150	부병각(夫秉恪)	174

인명색인

부병준(夫丙準)	175	오평윤(吳坪允)	205
부생종(夫生鍾)	176	원인수(元仁水)	206
부승림(夫升琳)	178	윤기옥(尹奇玉)	207
부장환(夫章煥)	180	윤창석(尹昌錫)	208
부춘화(夫春花)	181	이갑문(李甲文)	210
어거스틴 스위니	182	이경선(李景仙)	212
패트릭 도슨	184	이기순(李基淳)	213
송을생(宋乙生)	186	이달생(李達生)	214
신계선(愼啓善)	187	이두생(李斗生)	215
신재홍(申才弘)	188	이두일(李斗一)	216
신찬익(申璨翊)	190	이문천(李文千)	217
신창진(愼昌珍)	191	이봉규(李奉奎)	218
양기형(梁基亨)	192	이봉춘(李奉春)	219
양남구(梁南球)	193	이승빈(李昇斌)	220
양두옥(梁斗玉)	194	이신형(李信珩)	221
양병시(梁秉時)	196	이운강(李雲岡)	222
양 봉(梁 鳳)	198	이원영(李遠榮)	223
양유생(梁酉生)	199	이운평(李允平)	224
양치삼(梁致三)	200	이응범(李應範)	225
오남학(吳南鶴)	201	이종창(李宗昌)	226
오병윤(吳秉允)	202	이창휘(李昌輝)	228
오성행(吳成行)	203	이춘삼(李春三)	230
오인식(吳寅植)	204	임삼호(任三浩)	231

인명색인

장병윤(張炳允)	232	한만숙(韓滿淑)	257
장용진(張瑢珍)	233	한백흥(韓伯興)	258
장임호(張林虎)	234	한석화(韓錫化)	259
장한호(張漢鎬)	235	한원택(韓遠澤)	260
전영일(全永一)	236	한철영(韓哲瑛)	261
전태현(全泰賢)	237	허봉학(許鳳鶴)	262
정구용(鄭九鎔)	238	허창두(許昌斗)	263
정우생(鄭友生)	240	현도선(玄道善)	264
조계성(趙桂成)	241	현무생(玄戊生)	265
조대수(趙大秀)	242	현사선(玄詞善)	266
조무빈(趙武彬)	243	현호옥(玄好玉)	267
조봉호(趙鳳鎬)	244	홍경옥(洪卿玉)	268
조창국(趙昌國)	245	홍성옥(洪成玉)	269
조창권(趙昌權)	246	홍원표(洪元杓)	270
지갑생(池甲生)	247	황진식(黃鎭式)	271
지축생(池丑生)	248		
채순병(蔡順秉)	249		
채재오(蔡載五)	250		
최신일(崔信日)	251		
최정숙(崔貞淑)	252		
최태유(崔泰裕)	253		
탁명숙(卓明淑)	254		
하성구(河成九)	256		

아
하
하

강 공 흡 (姜公洽)

- 생 물 년: 1917. 1. 8.~1974. 6. 25.
- 본 작: 제주 한림 협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강공흡은 1917년 1월 구우면(舊右面, 현 한림읍) 협재리에서 태어나, 구우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협재소년회에 가입하였다. 한글 잡지 『어린이』를 읽으면서 민족의식을 자각하고 독립운동에 관심을 두었다.

1933년 1월 홍경옥·장용진 등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구우공립보통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무산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이전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1934년 7월 장용진·홍경옥과 함께 협재리에서 무명의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농민부·재정부·소년부·가두부를 설치하였는데, 강공흡은 이중 소년부를 담당하여 동지 규합에 힘썼다.

강공흡은 1934년 10월 ‘제주적색농민사건’으로 검거되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목포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았다.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제주경찰서 범죄보고서(1934. 12. 27. 제주도경찰서 사법경찰관 전라남도경부보)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제주도사연구 1호(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60면
-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흠, 2005)

강관순 (康寬順) 이명: 강철(康哲)

- 생몰년: 1909. 4. 8.~1942. 6. 24.
- 본적: 제주 구좌 연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05)



1909년 4월 구좌면 연평리에서 태어난 강관순은 1919년 우도 소재 사립 영명의숙에 입학하여 민족주의 교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1926년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후 영명의숙 교사로서 야학을 통한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강철(康哲)이라는 필명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1930년 3월 세화리에서 신재홍, 오문규 등과 비밀 결사 혁우동맹을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혁우동맹은 주로 청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고취와 대중 계몽을 활동의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는 청년부 책임을 맡아 청년 단원 규합과 계몽 운동에 힘을 쏟았다. 혁우동맹은 1931년 6월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¹⁾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갔는데, 강관순은 김성오와 함께 당의 기관을 만들고, 연락부원을 맡아 혁명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구좌면 등지의 해녀를 대상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 각 방면의 운동 단체를 지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2년 구좌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주 해녀의 항일 시위 운동에는 제주도 야체이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제주 해녀들은 해녀어업조합의 어용화²⁾와 해산물 매수 가격을 둘러싼 부정에 항의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그 여파가 거세지자, 해녀와 청년 운동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속을 실시하였다. 강관순은 해녀 시위의 배후 조직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고, 옥중에서 「해녀의 노래」를 작사하였다.

1)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2) 어용화: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 세력, 특히 권력자나 지배 세력의 뜻에 맞춰 움직이도록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현상.

출옥 후 일가를 데리고 함경도 청진으로 이사했으나, 옥중에서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계속하다가 1942년 8월 숨을 거두었다.

정부는 200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공적서(김전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장, 2004)
-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 조선일보(朝鮮日報)(1932. 3. 4.)
- 형사사건부(조선총독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제주도지(제주도, 1982) 상권, 410-417면
- 우도지(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400면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12. 11., 12. 14., 12. 16., 12. 22., 12. 25., 1933. 2. 8., 2. 21., 3. 3.)
- 나의 비망록: 애국의 길(고성화, 한울사, 2001)
- 해녀의 노래: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우도면·해녀의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 2022)

강군평 (康君平)

- 생몰년: 1877. 12. 28.~1955. 6. 15.
- 본 작: 제주 서귀 서흥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1993)



강군평은 천주교 신자로 천주교 서귀포 본당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연스럽게 제주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영국(아일랜드) 국적의 선교사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일명 나 신부), 어거스틴 스위니(일명 서 신부) 3명과 친분을 쌓고 교류하였다. 특히 어거스틴 스위니와 1930년대 말부터 일제의 전시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제 정세에 따른 일제의 패망을 논하는 등 항일 의식을 키워나갔다.

그는 1938년 5월, 마을주민 변원우(邊元羽)에게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있다는 라디오 방송은 믿기가 어렵다. 일본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 틀림없으며, 전쟁이 장기화 되면 일본의 장래는 위험하다’고 하였다. 또한, 1941년 7월부터 9월 사이 변원우와 몇 차례 시국담을 나누던 중 ‘인도차이나 반도에 얽힌 이해관계로 인하여 영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일전쟁이 발발하면 일본이 패전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일본은 3~4년간의 전쟁에서 아무런 소득도 없으므로 해서 장개석에게 강화(講和)를 요청했다’, ‘독일이 패전하면 영·미·소 3대 강국이 일본을 공격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일본도 위험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강군평도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10월 외국인 선교사와 다른 천주교 신도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 10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강규언 (姜圭彦)

- 생몰년: 1898. 4. 17.~1927. 4. 15.
- 본 작: 제주 대정 하모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강규언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던 당시 전라북도 옥구군 개정면 구암리에 있는 영명중학교 학생으로, 같은 학교 교사인 이두열, 박연세 등이 주도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학생이며 영명학교 출신인 김병수를 통해 군산에 독립 선언서와 만세 운동 소식이 전해졌다.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가 독립 선언서를 전달받아 이두열 등과 3월 6일 군산 장날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들은 학생들과 3월 1일부터 4일까지 학교 내에서 칠천여 매의 독립 선언서를 복사하는 등 거사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계획이 사전 발각되어 주동 인물들이 검거되었고, 이에 강규언은 양기철, 전세종 등 다수의 학생과 태극기를 흔들며 군산 시내로 행진하였다. 이때 주변에 있던 주민 오백여 명이 합세하였고, 강규언은 이들과 함께 군산경찰서 등 시내 각 지역에 독립 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 행진을 벌이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3월 31일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아 상고 하였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송실학교에 입학하였으나 3학년 때 중퇴하고 모교인 영명학교 교사를 지냈다. 이후 그는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모슬포에 광선학교를 설립하여 민족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4. 30.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19. 6. 12. 고등법원)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국가보훈처) 제3권 524-525면

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국가보훈처) 제9권 283면

대하실록 제주백년(강용삼·이경수 편저, 1984. 11. 15.) 259~266면

독립운동사자료집(獨立運動史資料集)(국가보훈처) 제5집 1498~1503면

집행원부(執行原簿)

강금종 (姜金鍾)

- 생 목 년: 1917. 12. 27.~1991. 7. 5.
- 본 작: 제주 제주 삼양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0)



강금종은 1936년 고학의 뜻을 품고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점원, 신문 배달 등의 일을 하면서 오사카전문학교 법과 야간부 별과 등에서 공부하였다. 이 무렵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문헌을 탐독하기 시작하였으며, 일제의 억압과 민족 차별에 반감을 갖고 독립을 희망하였다.

그는 일본 오사카전문학교의 야간부에 재학 중인 1940년 4월에 김봉각, 김병목, 고봉조 등과 함께 오사카에 거주하는 한인 학생의 단결을 도모하여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같은 해 5월, 오사카 소재 김봉각의 집에 모인 이들은 독립운동에 관한 근본 방침을 의논하고 먼저 한인 대중을 상대로 민족의식을 계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실천 단체로서 흥아연구회(興亞研究會)라는 독서 조직을 결성하였다.

흥아연구회는 독립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항일 결사로 같은 해 5월 중순에 그 명칭을 계림동지회(鷄林同志會)로 개칭하였다. 이들은 정치·사상·문예·종교 등 각 방면의 전문 연구를 통해 당시의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연구 발표회를 통해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지식을 쌓았다. 이때 그는 사상 이론 연구부의 책임을 맡아 활약하였다.

그러던 중 1941년 2월 25일 계림동지회 조직이 일본 경찰에 발각되며 붙잡혔으며, 그는 1942년 10월에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1944년 4월 2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12. 대판지방법재판소)
재소증명서(대판형무소)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박경식) 제4권 626-627-629-748면
명치백년사총서(明治百年史叢書)(김정명) 제3권 755-766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國事면찬위원회) 12권 762-763-764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078-1226-130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322-325면

강기찬 (康箕贊)

- 생 물 년: 1903. 5. 28.~1956. 1. 11.
- 본 작: 제주 제주 건입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0)



강기찬은 1927년 4월 9일 김형수, 고병희, 조대수와 함께 아나키즘 사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비밀 결사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독서회의 명칭은 '문고(文庫)'로, 이들은 매달 한 차례씩 모임을 통해 사회과학 서적을 돌려 읽고 동지 규합에 힘쓰는 한편, 일제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하고자 1927년 10월 소비조합을 결성하여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1929년 5월 5일 독서회의 운영을 위해 '우리계(宇利契)'란 조합을 결성하였다. 우리계는 표면상 '우의돈목(友誼敦睦)·애경상문(哀慶相問)·생활향상(生活向上)'을 표방하고 이면에서는 아나키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계원에는 도청·은행·금융조합·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실업가와 도내의 유지들이 있었으며, 계원들은 매월 3백원씩 회비를 은행에 예금하고 노자(老子)의 근(勤)·검(儉)·양(讓)의 사상에 따라 생활하기로 하였다. 우리계는 특히 제주도의 전통사회를 바탕으로 하여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점이 주목되는 단체였다. 이들은 1929년 9월 각 동리(洞里)에 야학을 개설하여 항일 민족의식과 아나키즘 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30년 7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으며, 그는 1930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31년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7. 14. 대구복심법원)
- 동아일보(1930. 12. 3., 12. 10.)
- 판결문(1930. 12. 8. 광주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9권 614면
-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호룡, 제주학연구센터, 2016)

강 두 옥 (康斗玉)

- 생 목 년: (1857)~미상
- 본 작: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21)



강두옥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여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괄이 그리고 엽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달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포박하고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그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제주항일독립운동사(濟州抗日獨立運動史)(제주도, 1996) 149, 365, 424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강 문 범 (姜文範)

- 생 물 년: 1910. 8. 18.~1950. 1. 19.
- 본 작: 제주 좌 상예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1910년 제주 좌면 상예리에서 강형규의 장남으로 태어난 강문범은 중문리 진수의숙, 제주공립 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전라남도 공립사범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7월 광주 수피아 여학교 뒷산에서 송동식, 이신형 등의 동지들과 함께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비밀 결사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중순 광주형무소 뒷산에서 모임을 갖고 조직을 개편 하였는데 그는 조직교양부 위원에 선임되어 조직 강화에 힘썼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역 앞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자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 삼백여 명과 강문범을 비롯한 전남 공립사범 학교 학생, 광주 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은 합동하여 광주 시내의 요소요소에서 항일구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에 학교에서는 다음날인 1929년 11월 4일부터 11일까지 휴교를 한 후 12일 개교하였다.

그러나 강문범은 개교한 날 다시 동지를 규합하여 광주 시내를 행진하며 시위 활동을 펴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1931년 6월 13일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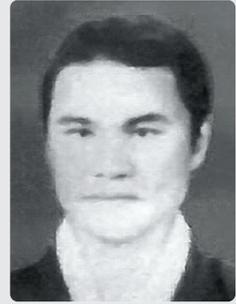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1면
- 한국독립운동사(韓國獨立運動史)(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4·266·1611~1624·1633~1654·1667~170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6·500·553·554면
- 조선일보(1930. 10. 2., 10. 11., 10. 12., 10. 19., 1931. 6. 14.)

강문일 (康文一)

- 생 목 년: 1911. 3. 2.~1967. 7. 26.
- 본 작: 제주 애월 하귀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1995)



강문일은 1926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에 있는 금구소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하였다. 평소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졸업 후 일본에서 전기제작공장에 근무하던 중 같은 고향 출신의 사회주의자 김귀영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한 실천 방침으로써 가난한 아동들에게 항일 의식을 주입하기로 박영순과 뜻을 모은 뒤 귀향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 8월에 고향인 하귀리에서 박영순 등과 함께 야학을 설치,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 통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항일 의식을 길러 주었다. 그러던 중 1934년 12월 야학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웃 마을에서 김홍규, 김을봉 등이 운영하던 야학과 통합하였다.

야학 통합 후 그는 육십여 명의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고, 일제 수탈의 실상을 알리며 한인의 피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달성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방편으로 「이천만가(二千萬歌)」, 「혁명가」, 「단결가」 등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35년 가을에 붙잡혀 10월 1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1936년 6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기까지 8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6. 6. 25. 대구복심법원)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강 문 호 (康文昊)

- 생 물 년: 1899. 3. 9.~1986. 7. 12.
- 본 작: 제주 좌 중문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강문호는 중문에서 태어나 1914년 같은 고향 친구 강규언과 함께 기독교인이 되었고, 전라북도 구암리에 있는 영명학교로 유학을 갔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던 당시 3월 5일 군산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고, 경찰은 주동자인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체포하였다.

1919년 3월 31일은 지난 3월 5일의 군산 만세 시위 때 체포된 30여 명의 영명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광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서 재판을 받는 날이었다. 영명학교 4학년이었던 강문호는 이날 그들의 재판 과정을 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만세 운동 주동자들이 간수에게 끌려 재판장으로 들어오는 찰나, 그는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학우들이 묶여 들어오는 광경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나 모자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많은 방청객이 이에 호응하여 재판장은 별안간 만세장으로 변하였다. 그는 이런 상황을 주동한 일로 즉시 체포되어, 같은 해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법정 소란’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강문호는 출옥 후 교회 목사로서 민족 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항상 일본 경찰과 헌병의 감시 대상으로 지목되어 수시로 가택 수색을 당하였으나 일제의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는 등 지속적인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29면
- 판결문(1919. 5. 22. 고등법원)
- 판결문(1919. 4. 24. 대구복심법원)

강민수 (姜敏洙)

- 생몰년: (1882)~미상
- 본적: 경상북도 영일창주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13)



강민수는 1918년 10월 제주도 좌면 법정사(法井寺)의 승려 신분으로 각 면장과 이장에게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축출하라는 격문을 배포하며 주재소와 일본인을 공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882년 경상북도 영일에서 태어나 승려로 활동하다 1914년경 제주에 있는 법정사로 왔으며, 1918년 음력 3월경 김연일과 함께 신도들에게 제주 내 일본인 관리를 축출하자는 뜻을 전달하고 동의를 받아냈다.

1918년 10월 5일 법정사 승려 김연일의 주도 아래 교도 33명을 소집한 뒤,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을 명하여 대오를 편성하였고, 그는 우대장을 맡았다. 이들은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³⁾했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까지도 우리 동포를 학대하였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 회복을 할 것이니 그에 앞서 먼저 제주도에 주재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을 도외로 쫓아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격문을 각 면장과 이장에게 배포하고 도민들이 항일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10월 7일 진행된 이 의거에는 칠백여 명이 넘는 군중이 참여하였는데, 일본 경찰들의 연락을 끊을 목적으로 전선을 절단하고 주재소를 공격·파괴·소각하였으며 일본인을 공격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18년 11월 6일 구류되어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북경찰부, 1934) 265~266면·제주도지(제주도, 1993) 제1권 1134~1135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3) 병탄(併呑):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강봉근 (康奉根)

- 생몰년: 1908. 11. 14.~1968. 6. 23.
- 본적: 제주 정의신산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20)



강봉근은 1908년 11월에 제주도 정의면 신산리에서 태어났다.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부에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이후 구속 학생 석방과 식민지 교육 철폐, 민족 해방 등을 요구하는 동조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강봉근은 1930년 1월경 전남 여수공립수산학교에 재학 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지하는 동맹 휴학을 계획하였으며,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 운동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었다. 남은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천명했으나, 그를 포함한 2학년 11명, 1학년 9명은 퇴학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학적부(여수공립수산학교)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1. 26., 1. 30.)

강봉주 (姜鳳柱)

- 생몰년: 1913. 11. 15.~1985. 9. 25.
- 본적: 제주 제주 이도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격: 애족장(1995)



강봉주는 제주공립보통학교, 제주공립농업학교를 거쳐 1928년 충남 예산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일제의 차별 정책에 분노를 느끼던 그는 학우인 정종호, 한정희 등과 비밀리에 독서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항일반제투쟁에 관한 서적 등을 읽고 토론하는 등 민족정신 배양과 항일 의식 고취를 위한 독서회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당시 유행하던 문맹 퇴치 운동과 문자 보급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항일 학생 운동의 세력 확대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1932년 4월 예산 출신의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上海]에서 의거를 일으키자, 이에 자극을 받은 그는 같은 해 5월 초순 박정순, 박희남, 오일규 등 하급생들이 조직하여 활동하던 독서회와 회합을 갖고 본격적인 항일 학생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할 것을 제의하여 좌익 협의회(左翼協議會)를 조직하였다.

연구부, 조직선전부, 에스페란토어부 등 3개 부서가 설치된 좌익협의회에서 연구부를 담당한 그는 같은 해 5월 14일과 22일경 두 차례에 걸쳐 회합을 갖고 김용재 등 선배 졸업생들과 같은 학교 학생 8명을 동지로 규합하여 항일 투쟁 이론과 투쟁 방법을 연구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32년 6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무리한 동원령을 내린 것을 계기로 박희남, 박정순, 정종호 등과 함께 동맹 휴학을 결행하여 항일 투쟁의 목표를 명백히 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어 과목을 국어로 표기하는 반민족적 처사의 시정, 일인 학생과 한인 학생의 차별 정책 개선, 한인 교사의 확대 등을 주장하며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학교 당국으로부터 좌익협의회 회원들 다수가 학사 처분을 받게 됨과 동시에 일제의 감시 강화로 활동이 위축되자, 9월 정종호, 한정희, 박희남 등과 함께 조직 재건에 합의하여 '예산 학생 동맹'을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지역별 항일 학생 운동 조직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먼저 같은 학교 내 김형래 등 5학년생과 이종규 등 3학년생들을 각각 대표로 임명하고 그들을 통해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밖으로는 이강오 등 지방의 청년 동지와 서울 기독교청년회(YMCA)를 비롯한 외지의 학생

조직과 연계를 강화하는 등 조직 활동을 통해 학생 운동의 기획과 기밀 조직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일본 경찰이 감시를 강화하며 조직이 노출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조직 관리를 맡았던 그는 11월경 조직 관리의 위장 방법으로 비밀 결사 명칭을 회합일인 토요일(土曜會)로 개칭하는 한편, 지방의 민족 청년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반일 투쟁 방법을 협의하였다.

그러던 중 1932년 11월 일제의 관제 연극 단체인 극단 만경좌(萬鏡座)가 예산군 예산면 시장 터에서 ‘일제가 만주의 마적(馬賊)으로부터 재만(在滿) 한인을 보호한다’는 반민족적 내용이 담긴 ‘동방의 빛’이라는 연극을 공연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회원들과 함께 이 연극이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연 관람 거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연 중단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극단원들과 충돌한 사건으로 1932년 11월 27일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3년 3월 30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3. 3. 30. 공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수형인명부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609면
- 동아일보(1932. 12. 20.~1933. 5. 16.)
- 조선일보(1994. 1. 29.)
- 중도일보(1994. 1. 29.)
- 한겨레신문(1994. 1. 29.)
- 대전일보(1994. 1. 29. 1. 31.)
- 충남일보(1994. 2. 3.)

강봉환 (姜奉煥)

- 생몰년: 1867. 9. 8.~1961. 3. 5.
- 본적: 제주 구우금악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강봉환은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선봉대 일원으로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를 통하여 항일 의식을 길러 왔다. 김연일은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강봉환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을 도외로 쫓아내는 것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여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고, 도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강봉환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증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 266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순국(殉國)(1994. 11월호) 100-101면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강성건 (姜成健) 이명: 강봉해(姜鵬海)

- 생몰년: 1915. 1. 23.~2006. 10. 9.
- 본 작: 제주 서귀 서귀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강성건은 천주교 신자로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후 잡화상 경영 외에도 동아일보 서귀포 분국장, 제주지국 총무로 활동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 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우선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는 1938년 서귀포 천주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일명 나 신부)에게, '대정면 모슬포의 해군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발진하여 중국의 상하이[上海], 난징[南京] 방면을 도양폭격(渡洋爆擊)하고 있는데, 아마도 비행장 지하실에 폭탄을 저장해 두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군사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1939년 9월경에도 나 신부에게 '중국군 비행기가 전라남도 목포에 폭격하러 왔다가 일본 해군기에 의해 격추되었다'고 말하며 군사 기밀을 유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강성건은 위의 발언들을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말에 나 신부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방보안법(國防保安法) 및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과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 10월 형이 병합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강수오 (姜壽五)

- 생몰년: 1882.~1918. 12. 27.
- 본적: 제주 중면 사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국장(1996)



강수오는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일어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본인의 추방을 주요 행동 방침으로 정하고,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강수오는 법정사 승려 강창규의 친동생으로 비밀 결사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동지들의 규합에도 힘을 쏟았다.

같은 해 10월 5일, 신도 삼십여 명을 동지로 규합한 가운데,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칭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이때 강수오는 반수(班首)의 책임을 맡았다. 이들은 이후 제주도내 각처의 이장들에게 격문을 배포하면서 세력 확대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 각처에서 칠백여 명이 합류하였으며, 이들은 항일 시위군의 주력이 되었다. 강수오는 시위군의 앞에 서서 서귀포 호근리로 진격하는 한편,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시위군과 더불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급습하였다.

시위군은 순식간에 주재소를 파괴하고 소각하였으며, 미처 도망가지 못한 일제 경찰 3명을 포박하고, 무고하게 구금되어 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다. 또한 시위군은 일제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도 공격하여 민족 독립의 의지를 드높였다.

그러나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고, 강수오는 모진 고문을 받다가 후유증으로 1918년 12월 27일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형사사건부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강순봉 (姜舜奉) 이명: 강호봉(姜好奉)

- 생몰년: (1884)~미상
- 본적: 제주 좌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1)



강순봉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팽이 그리고 엽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달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서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포박하고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강순봉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421~424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강시검 (康時儉)

- 생 목 년: 1924. 4. 16.~1982. 7. 10.
- 본 작: 제주 서귀 법환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대통령표창(1995)



강시검은 어릴 적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낮에는 선반공으로 노동을 하고 밤에는 흥국상업학교 야간부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1942년 7월경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고 한민족을 위한 독립투사가 될 것을 맹세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경 학우인 이영문, 강권우 등을 동지로 규합하고 급우들에게 ‘인도의 독립운동은 인도인 학생들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듯이 조선 독립운동의 중심은 우리 학생들 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파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42년 12월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규탄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복사하여 친구들에게 전달하였다. 문건에는 ‘우리들은 진정한 반도인(半島人)이며 개개인이 아닌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아 근로 계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강권에 의하여 자유를 속박당하고 우리 민족은 더욱이 침략 세력의 채찍질에 고통을 받는 피압박 형제들인 것입니다’라며 일제의 지배를 받는 실상을 말하였다.

또한 ‘학교의 교육 방침은 훌륭한 일본인이 되라, 천황에게 충성하라, 황운(皇運)을 부익(扶翼)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에게 조선 반도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말하자면 일본을 위해 일본 교육을 받는 것이지 반도를 위한 조선적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라며 일제의 교육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졸업 기념 간담회에서 이를 낭독하여 일제의 지배 정책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계몽하려다 발각되어 같은 해 12월 27일 일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그 후 약 6개월 후인 1943년 5월 10일 검찰로 송치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松浦三 編) 제8권 88-89면

강운석 (康潤錫)

- 생몰년: 1911. 10. 4.~1946. 11. 30.
- 본 작: 제주 제주 화북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4)



강운석은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3일 김상환, 김보섭 등 광주고등보통학교 독서 회원들과 함께 삼백여 명의 학생 시위대 선두에 서서 대오를 지휘하며 광주 시내를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교가와 운동가를 부르며 시내 중심가를 시위 행진한 후 귀교하였다. 그는 70여 명의 학생과 함께 체포되었고,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미결 기간만으로도 이미 4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였다.

출옥 후 1931년 2월 중순 제주 화북리에서 제주청년동맹 화북지부의 간부로 재임 중 화북 소년회원 신승근의 장례식에서 청년동맹원과 소년회원들로 하여금 혁명가를 반복하여 외치게 하였다.

또한 같은 해 3월에는 ‘밀정(密偵) 교사’를 추방하자는 주장과 그에 덧붙여 일제의 교육 정책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 수 매를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가 말하는 ‘밀정 교사란 교육에 힘을 쏟기보다는 경관들과 어울려 술자리나 만들면서 학교 관계자들의 행동을 일제 경찰에 밀고하는 화북보통학교의 일부 교사들을 지목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유로 3월 중순경 재차 일제 경찰에 붙잡힌 그는 같은 해 7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기려수필(騎驢隨筆)(국사편찬위원회) 39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16~7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0~247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조선일보(1931. 8. 3.)
- 동아일보(1930. 2. 20., 2. 22., 1931. 3. 24., 4. 21., 8. 3.)

강창거 (姜昌擧) 이명: 김치정(金致楨), 이재환(李在煥)

- 생 목 년: 1910. 9. 16.~2004. 11. 17.
- 본 작: 제주 제주 용담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5)



강창거는 1920년대 후반 제주공립농업학교와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동맹 휴학을 주도하며 항일학생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26년 6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재학 중 일본인 교사 야나기다 히코지[柳田彦二]의 한인 학생 차별과 부당한 교육에 항거하여 학교 당국과 전남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 휴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 일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동료 학생들과 함께 퇴학당하였다. 당시 학교 당국은 1·2학년생 모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으며, 야나기다 교장은 평북 지방으로 좌천되었다.

서울로 올라온 강창거는 같은 해 9월 중앙고등보통학교에 편입하여 재학 중 1927년 동맹 휴학 투쟁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일시 구속되기도 하였다.

그는 평소 일제 통치의 모순과 부당성에 대한 저항 의식이 높았으며, 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사회과학 연구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과정에서 1929년 학생 운동 단체인 조선학생과학 연구회(朝鮮學生科學硏究會)에 가입하는 한편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에 가입하여 활동을 전개해 갔다.

강창거는 1931년 7월 양정고등보통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의 지배 체제를 비판하는 모임을 갖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동아일보(1926. 7. 18., 1932. 9. 13.)

판결문(1932. 9. 19. 경성지방법원)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권 986면

중앙고등보통학교생 취조상황 및 학교상황에 관한 件(京鍾警高祕제11029호의 30, 1927. 11. 16.)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 제3권

일제침략하한국삼십육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0권 135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1권 104면

강창규 (姜昌奎)

- 생 물 년: 1872. 12. 2.~1963. 10. 20.
- 본 작: 제주 증면 사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2005)



강창규는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증문면 도순리 법정사(法井寺)에서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신도와 농민들과 함께 일본인 관리 축출과 독립을 위해 무장봉기한 법정사 항일운동의 선봉 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918년 4월 그를 비롯한 법정사 승려들은 항일 운동의 실천을 합의하였고, 7월부터는 법정사 신도와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자를 이끌 조직을 구성하였다. 그들은 독립을 위해 일본인 관리와 일본 상인을 제주에서 쫓아내겠다는 요지의 격문과 몽둥이, 깃발, 총 등을 준비하였다.

1918년 10월 5일과 6일의 법정사 정례 예불일을 기회로 결집한 선봉대는 7일 새벽 예불 후 총과 깃발, 몽둥이 등을 들고 법정사를 출발하였다. 이들은 일격에 서귀포를 습격하려고 하였으나, 진로를 바꾸어 증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봉기한 세력은 칠백여 명의 대규모 집단으로 변모하였다. 그는 강정리와 도순리 사이 대천(大川)의 서안 부근에서 전선과 전주 2본을 절단하고 서귀포 증문리의 주재소를 습격하여 불태우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19년 2월 궤석재판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년 형을 선고 받았고, 4년여 간의 도피 끝에 1922년 12월 27일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매일신보(每日申報)(1923. 2. 18.)
-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검사분국)
- 수형인명부
- 불교신문(1951. 12. 11.)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강창보 (姜昌輔)

- 생몰년: 1902. 12. 29.~1945. 1. 7.
- 본적: 제주 제주 용담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국장(2005)



강창보는 1920년대 초 서울에서 청년학관을 다닐 무렵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1924년 고향 제주로 내려가 사상 단체인 신인회를 조직하였다. 그는 신인회의 교육부 간사로 활동하면서 제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신사상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1925년 4월 그는 전국적 사회주의 단체인 조선사회 운동자동맹에 참가하여 일제 통치로 인한 민족 모순, 계급모순 해결을 위한 사회주의 운동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1925년에는 신인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여 청년연합을 결성하는 데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강창보는 1927년 신간회 제주지회 조직에 힘썼으며, 같은 해 8월 조선공산당에 가입하여 제주도 야체이카⁴⁾ 조직을 주도하였다. 그러던 중 1928년 8월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경기도 검찰부에 넘겨져 2년여 동안 구금되어 고초를 치르다가 1930년 12월 22일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931년 1월 초 제주도로 돌아온 그는 제주 지역 주요 사회주의자들과 '제주도사회주의 운동자간담회'를 가지며, 조직원을 확보하고 사회주의 운동에 다시 뛰어 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청년동맹 출신 신재홍, 이익우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를 결성하고 그 책임자가 되었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사회 각 부면의 청년, 여성, 노동자 그룹 등 모든 운동 단체를 지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1931년 9월 세금 불납 운동, 강제 모목 배포 반대 투쟁 등을 지도했으며, 일제강점기 어업 노동자의 투쟁 가운데 가장 조직적이고 대규모인 1932년 1월 해녀 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4)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이로 인해 3월 일본 경찰에 체포된 그는 유치소에서 탈출한 후, 일본 오사카[大阪]로 피신하였다. 이후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노동 운동을 전개한 그는 1939년 조선문제시국연구회를 조직하고, 『조선신문』의 발간을 지도하는 등 항일 운동을 펼치다가 1943년 4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7년 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1월 7일 옥사하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0. 12. 22. 경성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사사전(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제6권 321-323-326~327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54-210-212-214-217-219~220-223-229-231~271-369-373~374-490-500~521-596~599-605~608-611~618-622~624-717-947-1137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별집 1권 106~107면
현대사자료(강덕상, 1972) 제29권 93-137-142면
판결문(1944. 3. 27. 고등법원)
동아일보(1925. 3. 19., 10. 1., 1932. 12. 14., 12. 16., 12. 25., 1933. 2. 8.)
조선일보(1933. 2. 8.)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28면

강 춘 근 (姜春根)

- 생 목 년: (1892)~1919. 1. 6.
- 본 작: 제주 제주 오라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6)



강춘근은 1918년 10월 제주 법정사(法井寺)에서 일어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 승려들과 교류가 활발하였는데, 법정사 승려들은 1914년경부터 법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일본의 국권 침탈, 일본인 관리와 상인들의 부당함을 인식시키며 항일 의식을 심어주었다.

1918년 9월, 김연일 등 승려들은 '왜노가 우리 조선을 병탄⁵⁾했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불원(不遠)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나, 우선 제주도에 사는 내지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들을 도외로 추방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신도를 설득하였다.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한 김연일은 스스로를 불무황제로 칭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강춘근 등에게 반수(班首)의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각 면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이때 모인 시위대는 칠백여 명이나 되었다.

강춘근 등의 주도자들은 시위대를 지휘하여 서귀포 호근리로 진격하였고, 전선을 절단하여 통신을 단절시켰다. 또한 중문주재소를 파괴하고 소각하였으며 일본 경찰 3명을 포박하였다. 그리고 무고하게 주재소에 구류된 13명의 구금자를 풀어주었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1월 6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6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형사사건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5) 병탄(併呑):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강 태 선 (姜太善)

- 생 물 년: 1924. 6. 15.~생존
- 본 작: 제주 성산 시흥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0)



강태선은 1942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중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던 중 일제의 차별 대우를 체험하면서 점차 민족의식에 눈떠갔다.

그는 중국 국민당 간부이자 이론가인 주불해(周佛海)가 지은 『삼민주의(三民主義)』 등 사상 서적을 탐독하며 민족의 진정한 행복은 일제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독립운동에 헌신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1942년 8월경 친지인 지원호, 심중보 등과 모임을 갖고 독립운동의 방안에 관해 협의하였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일제가 패망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제히 봉기하면 조국의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였다. 또한 징병제는 독립운동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제가 강요하는 동화정책(同化政策)은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저항해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들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서로 민족의식을 함양하며 무력에 의한 독립 봉기의 시기 등을 협의하는 한편 동지 규합에 힘쓰다가 1944년 6월 3일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44년 8월 25일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8·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44. 8. 25. 대판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3권 254면
-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松浦總三 편) 하권 248면

강 태 하 (姜太河) 이명: 강정봉(姜丁奉)

- 생 물 년: 1897. 4. 5.~1967. 8. 8.
- 본 작: 제주 좌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18)



강태하는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었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장 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배포하였다. 강창규의 지휘 아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강태하는 당일 이종창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강태하는 거사 당일 바로 붙잡히지는 않았으나 1918년 11월 26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그는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강태하는 노역장(勞役場)에 유치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7~148, 425면
순국(순국선열유족회, 1994) 11월호 100~101면
대각사상(大覺思想)(대각사상연구원, 2006) 제9권 317면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9) 제12권 356~369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한금순, 2010) 67, 89~91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강 평 국 (姜平國) 이명: 강년국(姜年國), 아가다

- 생 물 년: 1900. 6. 19.~1933. 8. 12.
- 본 작: 제주 제주 일도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2019)



강평국은 1900년 6월 19일 제주 일도리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강년국(姜年國)이며, 천주교 세례명은 아가다이다.

1910년 신성여학교에 입학, 1915년 3월 제1회로 졸업하여 1918년 4월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에 들어갔다. 동급생인 최은희 등과 독립 만세 운동을 상의했으며, 1919년 3월 1일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독립 선언식에 참여하였다. 강평국은 대한문 앞 등을 돌면서 만세를 불렀다. 같이 참여한 최은희와 최정숙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강평국은 다행히 검거를 면하였다.

1921년 제주에서 친구 최정숙과 함께 여성의 문맹 퇴치와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여수원(女修園)을 설립하였다. 1924년 3월 8일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최정숙, 고수선 등과 함께 여성의 수양 기관인 '부인회'를 조직하였다. 1925년 12월 26일 제주도 전체에 여성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자 불교 포교당에서 제주여자청년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고, 강평국은 사회부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강평국은 어릴 때부터 친구인 고수선과 의사가 되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로 약속하였다. 고수선은 서울의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고, 강평국은 일본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일본에서 강평국은 여러 사회단체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7년 1월 16일에 창립된 동경조선여자청년동맹의 초대 집행위원장이 되었고, 3월 15일 재동경 동부조선노동조합 제2회 정기대회에 참가하여 부인부 위원이 되었다. 그해 8월 3일 동경조선노동조합 서부지부 주최와 신간회 동경지회, 노동농민당 성서(成西)지부 후원으로 고전회관에서 열린 '조선 총독 폭압 정치 폭로 연설회'에 동경여자청년동맹 대표로 연설을 하였다. 그 외에 강평국은 1928년 1월 10일 재동경조선청년동맹과 학우회가 주최한 재동경청년단체 합동 위원 간담회에 동경여자청년동맹 대표로 참석하였다.

신간회 동경지회가 1927년 5월 7일 와세다대학 스콧트홀에서 창립된 이후, 신간회의 자매 단체인 근우회 동경지회 발기회가 12월 27일 개최되었다. 박화성이 위원장에 강평국이 서무부 위원에 선출되었다. 근우회 동경지회 창립대회는 1928년 1월 22일 동경제대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되었으며, 박화성이 위원장, 강평국이 정치문화부 위원에 뽑혔다.

강평국은 일본에서 학업을 하며 여러 사회단체에 참여하면서 영양실조와 빈곤에 시달리다가,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 3학년을 수료하고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고향인 제주도에서도 폐병이 더욱 악화되어 1933년 8월 12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학적부(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동아일보(1924. 3. 23., 1925. 6. 1., 7. 20., 1927. 3. 27., 1928. 1. 8., 1. 18., 2. 1.)

강평국, 근대 제주를 짊어지다(한금순, 2024)

고 경 수 (高京守)

- 생 목 년: 1916. 8. 1.~1935. 7. 4.
- 본 적: 제주 구우 귀덕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5)

고경수는 1916년 8월 제주 구우면 귀덕리에서 태어나 신우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재학 중 동료 학생 10여 명이 일본인 교장의 차별 정책 등에 항거하다가 퇴학 또는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두일, 오화, 홍성옥 등이 동지를 규합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교장 스기사키[杉崎勝藏]의 사택에 가서 항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는 홍성옥으로부터 거사 계획을 듣고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고, 양공팔 등과 함께 민족 차별과 일제의 교육 정책에 항거하여 일본인 교장의 사택을 습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고경수는 3월 10일 저녁, 동급생들과 함께 교장의 사택으로 들어가 장작과 곤봉을 이용하여 가옥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1년 8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형사사건부
학적부(제주농업고등학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695면

고담룡 (高湛龍)

- 생 물 년: 1915. 11. 17.~1989. 12. 5.
- 본 작: 제주 제주 조천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0)



고담룡은 일본 주요대학에 재학 중이던 1938년부터 1942년까지 학우 김운봉, 신기현, 구호림 등과 동지적 결합을 맺고, 친목 단체를 가장한 항일 비밀 결사인 '고문(高文) 그룹'을 조직하였다.

당시는 일제가 중일전쟁을 도발한 이후 총동원체제를 공포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으며, 이는 일본 유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더욱 촉발하는 기제로 작용하였다.

'고문 그룹' 조직의 목적은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4년 동안 이십여 차례의 비밀 모임을 가지며 도쿄[東京]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는데 고담룡은 이 집단의 실질적으로 주도자였다.

그는 귀국 이후 일본 주요대학 재학 당시의 비밀 결사 조직 활동이 일제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김운봉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고담룡은 1943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 刑法) 위반'으로 공판에 회부되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예심종결결정(1943. 대구지방법원)

고병희 (高秉禧)

- 생 목 년: 1900. 12. 6.~1964. 1. 5.
- 본 작: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0)



고병희는 1920년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22년 도쿄[東京]의 세이 소쿠영어학교에 재학 중 재일 한인 유학생의 비밀 결사인 형설회(螢雪會)와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후 흑도회가 박열과 김약수의 계열로 양분되자 박열이 주도하는 흑우회(黑友會)에 참가했으며, 사회과학 이론 연구를 통해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러던 중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나자 귀향한 그는 1927년 4월 김형수, 조대수, 강기찬 등 3명의 동지와 함께 아나키즘 사상의 연구를 목적으로 비밀 결사 독서회 '문고(文庫)'를 주도하여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달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동지 규합에 힘쓰는 한편, 1927년 10월 소비 조합을 결성하여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폈다.

또한 이들은 1929년 5월 '우리계(宇利契)'라는 조합을 결성하였다. 우리계는 표면상 '우의 돈목(友誼敦睦)·애경상문(哀慶相問)·생활향상(生活向上)'을 표방하고 이면에서는 아나키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리계원에는 도청·은행·금융조합·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실업가와 도내의 유지들이 가입하였으며, 계원들은 매월 3백원씩 회비를 은행에 예금하고 노자(老子)의 근(勤)·검(儉)·양(讓)의 사상에 따라 생활하기로 하였다.

우리계는 특히 제주도의 전통사회를 바탕으로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점이 주목되는 단체였다. 이들은 1929년 9월 각 동리에 야학을 개설하여 항일 민족의식과 아나키즘 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고병희를 비롯한 동지들은 1930년 7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같은 해 1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31년 7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0. 12. 8.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31. 7. 14. 대구복심법원)

한국의 아나키즘운동사(전편) 242·243·244면

제주군지(상) 408·409면

동아일보(1930. 12. 3., 12. 10.)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9권 614면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호룡, 제주학연구센터, 2016)

고봉조 (高奉朝)

- 생 물 년: 1920. 9. 11.~1963. 10. 8.
- 본 작: 제주 정의 성산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2)

고봉조는 1934년 성산서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부친이 거주하는 오사카[大阪]로 도향하였다. 그는 오사카 심상소학교 고등과, 후세시 성동상업고등학교 야간부를 거쳐 1940년 니혼대학 전문부 특과 야간부에 재학하며 낮에는 김봉각의 매형이 경영하는 금성제작소에서 김병목과 함께 근무하였다.

그는 '조선청년의 갈 길은 오직 하나, 민족 해방을 위하여 헌신하는 길뿐이다'라는 김봉각의 주장에 공감하고 함께 민족 문제를 중심으로 담론한 끝에, 강금중, 한만숙 등의 동지를 규합하고 같은 해 5월 흥아연구회(興亞研究會)를 조직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어 일본 국내 정세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흥아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비밀 결사인 계림동지회(鷄林同志會)를 결성하였다. 계림동지회는 제주도 출신의 청년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는데, 회원들은 정치·사상·문예 등 각 방면의 연구를 통하여 당시의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계림동지회의 행동 방침을 정하고 항일 민족운동을 강화하던 중 고봉조는 1941년 2월 25일 동지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후 1942년 11월 18일 오사카지방법판소에서 '치안 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1년 8월 23일간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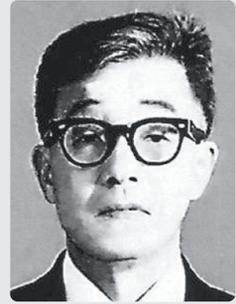
정부는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754~756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2권 762~76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321·322·325·704면
- 소화특고단압사(明石博隆 松浦 三 編) 제7권 139~14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078·1079·1305~1310면

고사만 (高仕萬)

- 생몰년: 1908. 10. 23.~1962. 10. 13.
- 본적: 제주 구좌 종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07)



고사만은 제주도에서 해녀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7년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혁명적 농민조합 결성을 위해 활동하였다. 1928년에 결성된 제주청년동맹이 일제 경찰의 탄압을 피해 지하운동을 시작하면서 1930년 문도배, 신재홍 등과 ‘혁우동맹(革友同盟)’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혁우동맹은 농민부·청년부·소년부·여성부를 편성하여 분야별로 계몽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사유재산 제도와 일본 제국주의를 부인하는 사회주의 선전에도 나섰다. 또한 해녀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등 해녀 운동의 지도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1931년 신재홍 등과 함께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⁶⁾ 조직에 나선 고사만은 혁우동맹을 해체하고 농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농민 단체와 해녀를 중심으로 하고 해녀에게 이익이 되는 해녀 조합의 결성을 주도하였다. 이런 가운데 제주 지역에서는 민족적 열기와 일제 지배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갔다.

1932년 1월 제주에서는 해녀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일어났다. 부당한 해녀어업조합에 반대하고 있던 해녀들은 1천여 명의 시위대로 일본 경찰에 맞섰다. 이때 고사만은 해녀들의 항일 운동 배후 지도자로 지목되어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33년 2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이 지연되는 가운데 1년 10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조선일보(1932. 1. 26., 3. 4., 1933. 3. 4.)

동아일보(1932. 12. 11., 1933. 2. 6., 3. 3.)

6)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고사훈 (高仕訓) 이명: 고승천(高承天)

- 생몰년: 1871. 11. 29.~1909. 3. 4.
- 본적: 제주 제주 이도
- 운동계열: 의병
- 훈격: 애국장(1990)



고사훈은 1905년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하여 체결되자, 호남의 의병장인 최익현과 신돌석이 의거의 기치를 올렸음을 듣고 그들과 행동을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는 1908년 7월 제주도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제주군수 윤원구로부터 전해 듣고 의병 활동을 도모하였다. 장성 출신 의병장 기우만, 기삼연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김석윤 등과 함께 광양에서 대장간을 차려 의병 운동의 효과적 전개를 위한 무기를 제조하였다. 이와 함께 의병을 모집하여 황사평에서 군사 훈련을 추진하여 의거의 기치를 올렸다.

고사훈은 의병 거사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김석윤, 이중심 등과 함께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웠으며 거사일은 3월 3일, 거사 장소는 관덕정으로 결정하였다. 그는 의병장에 추대되었고 격문 및 구체적 행동 내용을 담은 「통고사(通告事)」를 작성하였다.

1909년 2월 10일 국운이 풍전등화에 이르게 되자 의병 운동을 확대하여 대규모의 항일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동지인 김만석과 함께 대정에서 창의⁷⁾ 격문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 거사가 일어나기 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음력 2월 13일 서광리에서 김만석과 함께 피살되어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제주의병행장 비문중에서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 창의(倡義): 국난을 당하였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고수선 (高守善)

- 생몰년: 1898. 5. 4.~1989. 8. 11.
- 본적: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임시정부
- 훈격: 애족장(1990)



고수선은 대정공립보통학교,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18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부설 사범과에 입학하였다. 학교에서 일본 교사 배척운동을 전개하였던 그는 1919년 3월 1일 박희도의 지시를 받아 학생들을 동원하여 탑골공원에서 시위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3월 5일 은사 유철향의 집 지하실에서 신경우 등 동지 학생들과 모여 일편단심을 상징하는 적색 댕기를 수천 매 제작하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각 학교에 배포하게 하였다. 이때 신경우, 김숙정과 함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사범과를 졸업하고 1919년 4월 충청남도 논산공립보통학교 교사가 되었다.

교사로 재직 중 박정식의 부탁으로 군자금 370원을 모금해서 박정식 편에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송금하였고, 이에 일본 경찰의 감시가 심해지자 상하이[上海]로 망명하고자 하였으나 어렵게 되었다.

고수선은 일본으로 피신하였고 1921년 도쿄[東京]에서 동지 이덕요, 이낙도, 이의향 등과 우에노공원[上野公園]에서 독립운동을 모의하던 중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방면되었다. 그러나 1922년에 항일 용의자로 고광수와 함께 붙잡혀 일제 경찰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아 손가락이 불구가 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권 분책 564면
- 미래를 걸었던 거인 운주당 할망, 우인 교수선전(문소연, 제주학연구센터, 2018)
- 교수선 평전(심옥주, 2019)

고 순 흥 (高順欽)

- 생 목 년: 1893. 1. 14.~1977. 11. 5.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계몽 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고순흥은 어려서 한학을 공부하고, 의신학교를 거쳐 1912년 제주농업학교를 제1기로 졸업한 뒤 1914년 3월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였다.

1909년 남형우, 안희제, 이원식 등 8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新民회(新民會) 계열의 비밀 청년 단체인 대동청년당(大東靑年黨)을 조직하여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고 상하이[上海]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김규열, 황종화, 이영봉, 최익무 등 동지들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일제의 관공리인 동포에게」, 「포고 제1호, 남녀 학생에게」, 「포고 제2호, 상업에 종사하는 동포에게」 등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 포고문과 격문을 전달받아 국내에 배포하였다.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의 창립을 발기하고, 1921년 제3회 정기총회에서 간사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고순흥은 1924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가 아나키즘에 입각한 사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남흥여명사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최선명 등과 함께 조선무산자사회연맹을 결성하였다.

또한 7월에는 오사카조선노동동맹회, 관서조선3·1청년회, 오사카조선유학생학우회 등 3개 단체와 조선무산자사회연맹 공동으로 조선인문제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선인여공보호연맹회를 조직하여 여성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분쟁 해결에 노력하였다.

1925년 여름에는 조선 수해 이재민 구제 운동의 의연금 모집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조선대수재동포구원단을 조직하여 구원 연설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28년 12월에는 자주 운항 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 2월 제주와 오사카 사이 직항로가 개설된 이래, 1928년 이 항로를 독점으로 운항하던 아마사키기선[尼崎汽船]과 조선우선(朝鮮郵船)은 뱃삿을 대폭 인상하였다. 제주도민들은 자유 도일(渡日)과 운임 인하를 선박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실행되지 않았고, 이에 같은 해 12월 제주항해조합(濟州航海組合)과 기업동맹기선부(企業同盟汽船部)를 설립하고, 제주와 오사카 사이의 독립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천명하였다.

고순흠 등 14인으로 설립된 기업동맹기선부는 1929년 1월 2일부터 임대한 제2북해환(第二北海丸)과 순길환(順吉丸)을 출항시켰다. 그러나 조직적 기반이 약했던 기업동맹기선부는 곧 경영난에 빠졌고, 자주 운항 운동도 침체되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1, 9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46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114면
-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호룡, 제주학연구센터, 2016)

고연홍 (高蓮紅)

- 생몰년: (1903)~미상
- 본적: 제주 성내 상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19)

고연홍은 1919년 3월 10일 전라남도 광주군 수피아여학교 재학 중 같은 학교 학생들과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전남 광주군 광주면 만세 운동은 김복현, 김강 등에 의해 추진되었다. 3월 6일 이들은 만세 운동 전개 때 학생들을 통해서 「독립 선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와 교원들을 동참시켰는데 수피아여학교는 교사인 박애순이 맡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관련 기사를 읽어주며 독립 사상을 고취하였으며, 김강에게서 받은 「독립 선언서」 약 50여 장을 학생에게 분배하였다.

3월 10일 오후 3시 반경 김복현 등이 만세 운동 개시를 선언하고,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 군중은 강가 모래밭에서 언덕으로 올라와 작은 장터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송일학교와 수피아여학교 학생들이 합류하였다. 수피아여학교 학생인 고연홍도 만세를 부르며 중심 시가 행진에 참여하였다.

군중이 광주우편국에 이르렀을 때 일본 군경에 의해 약 90여 명이 체포되었다. 이때 체포된 고연홍은 4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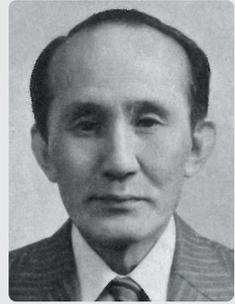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19. 4. 30. 광주지방법원)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9면

고영호 (高瀛豪)

- 생 물 년: 1920. 12. 16.~2004. 2. 24.
- 본 작: 제주 한림 한림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0)



고영호는 1934년 구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6학년 재학 중 일본인 교장 나카야마가 한국어 사용을 억제하는 데 항의했다가 정학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하자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 오사카중학교 졸업 후 메이지대학에 진학하였다. 일본에서 노동을 병행하며 민족 차별을 경험한 고영호는 민족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였고, 1942년 일제가 징병제 실시를 발표하자 동지 윤병윤 등과 함께 민족의식 고취, 독립 국가 건설을 서약하고 비밀 결사 조선 독립청년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6월 독립운동에 착수하는 시기를 두고 논쟁하였고, 당원들이 좀 더 지식을 쌓고 귀국하여 본격적인 운동에 착수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이후 당원 자질을 연마하고 동지를 계몽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40여 회에 걸쳐 회합하며 동지 규합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내용이 일제 경찰에 탐지되어 붙잡혔으며, 혹독한 고문과 취조를 받은 후 1944년 1월 28일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4. 1. 28. 일본대판지방법재판소)

고용석 (高用錫)

- 생몰년: 1866. 9. 8.~1928. 9. 25.
- 본적: 제주 좌중문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고용석은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하여 전개한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승려와 신도, 선도교도, 주민 등이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한 항일 무력 시위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다.

김연일은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고용석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고용석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고운하 (高雲河) 이명: 고운하(高運河)

- 생몰년: 1923. 2. 19.~1983. 7. 2.
- 본적: 제주 성산 성산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격: 건국포장(2022)

고운하는 제주도에서 공립보통학교와 공립심상고등소학교 고등과를 졸업하였다. 1938년 4월 일본 나가사키 고토중학교에 입학하고, 1940년 12월 이사하야농학교로 전학을 갔다.

비슷한 시기에 이사하야농학교에서는 박근철, 이상만, 심재인이 비밀 결사 '삼인단(三人團)'을 조직하였다. 1940년 2월 이사하야시[諫早市]의 히가시코지마치[東小路町]에서 심재인은 '학생들이 일본에 유학을 와서 공부하는 것은 조선 민족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조선 독립에 힘쓰자'고 제안하였다. 고운하는 그와 같은 제안에 찬성하고 실행 방법을 협의하였다.

1942년 초에 귀국한 이상만 등이 부산과 예천 등지에서 활동하다 검거되면서 고운하도 1942년 4월 3일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11월 13일 예심이 종결되었고 1943년 5월 7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이 선고되었다. 정부에서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43. 5. 7. 대구지방법원)
형사사건부
신분장지문원지

고재륜 (高載崙)

- 생몰년: 1901. 10. 28.~1979. 11. 7.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1999)



고재륜은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계속된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하고 고향으로 온 서울 휘문학교 학생 김장환으로부터 서울의 만세 운동 소식을 듣고 김시범, 김시은 등과 함께 동지들을 규합하며 만세 시위 계획에 적극 동참하였다.

이들은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거사 장소는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정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21일 오후 3시경, 고재륜을 비롯하여 신촌, 함덕 등 인근 주민과 서당생도 등 오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미밋동산에 모여들었다.

그런 가운데 김시범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김장환이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고재륜을 비롯한 시위 군중은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따라 외쳤다.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연창하면서 시가지를 향하여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위 군중들은 출동한 일본 군경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며, 고재륜을 비롯한 중심 인물들이 붙잡혔다.

그는 같은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 수형인명부
- 3·1 운동실록(3·1運動實錄)(이용락, 1969) 561-562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4~179-365-427~430-43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6-627면

고종건 (高宗虔)

- 생 물 년: 1902. 12. 30.~1965. 2. 20.
- 본 작: 제주 신좌 함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고종건은 1930년 김두성, 김일준 등 동지들과 같이 같은 마을의 영향력 있는 부녀자 한승렬 등 다수에게 야학을 통하여 한글을 가르치면서 민족 사상을 고취하였다.

1931년 1월 15일 함덕 출신으로 일본 도쿄(東京)에서 항일 운동을 하던 한영섭이 사망하였다. 그 시신이 같은 달 19일 향리로 도착하자 동지장⁸⁾으로 거행하기로 하였다. 김두성, 김일준, 양구문 등은 '불평등한 사회를 파괴하여 무산계급의 자유를 건설하려 한 그대는 죽어도 그대의 주의정신(主義精神)은 동지마다 계승하여 분투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깃발을 제작하고 내걸었다. 장례 당일인 22일에는 장지까지 걸어가면서 동지들과 「적기가(赤旗歌)」를 부르고 '한영섭 만세'를 크게 외쳤다.

장례 이후 그는 동지들과 함께 추모비를 세웠다. 비에는 '동지 적광(赤光) 한영섭 기념비', '차가운 백색(白色) 아래 억눌린 무리들아, 고향쳐 싸우라고 피 뿌린 동지였다'라고 비문을 썼다가 같은 해 4월 12일경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1년 8월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1931년 12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 되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1. 12. 8.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1931. 4. 12.)

8) 동지장(同志葬): 같은 뜻을 가진 동지, 즉 동료나 동지들의 장례식을 의미.

고태리 (高泰利)

- 생몰년: 1912. 9. 24.~1932. 4. 9.
- 본적: 제주 구우 귀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고태리는 1931년 3월 제주농업학교를 졸업한 직후 홍계표, 김두진 등 10여 명의 급우와 함께 평소 학생에게 민족적 차별을 일삼던 일본인 교장에 대한 배척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일본인 교장은 학생에게 민족적 열등감을 부추기는 한편 그에 대항하는 학생을 가차없이 퇴학시키는 등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1931년 3월 제주농업학교 졸업 사정회에서 졸업 예정자 김원요를 제적 처리하고, 신창진, 양두옥 등에게 유급 조치를 내렸다. 이는 학교 행사 때 「교육 칙어」를 ‘봉송⁹⁾’해도 ‘묵도¹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졸업식 당일 김원요는 담임교사에 강력히 항의하였으나 일제 경찰의 출동으로 제주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에 민족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고태리와 동급 학생들은 졸업 직후에 일본인 교장을 배척하기로 결의하고 무력에 의한 실력 행사를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1931년 3월에 일본인 교장을 찾아가 무력으로 시위하는 한편 교장 편에서 동조하는 직원들을 물리치고 직원실을 파괴하였다.

이 일로 일제 경찰에 붙잡힌 그는 1931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폭력’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기까지 1년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그러나 그는 모진 고문의 영향으로 출옥 후 한 달 만인 1932년 4월 9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89면
동아일보(1931. 8. 30.)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형사사건부

9) 봉송(奉誦): 공손한 마음으로 경전이나 문서 등을 읽거나 암송하는 행위.

10) 묵도(默禱):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빌.

김경봉 (金京奉) 이명: 김경순(金京順)

- 생 물 년: 1908. 10. 15.~1957. 4. 4.
- 본 작: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김경봉은 1923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大阪]에서 공장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1929년 귀국하였다. 이후 한림리에서 양화점을 운영하며 혁명적 농민 조합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32년 5월 양병시, 장한호 등과 함께 구우면 한림리에 공산주의 운동의 지도 기관 결성을 협의하였다. 김경봉은 기관의 책임자를 맡아 다른 지방 동지들과의 연락을 담당하고, 독서회를 조직하여 동지 규합에 힘썼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비밀 결사 ‘운동자연구회(運動者 硏究會)’를 조직하여 총책임자로서 연락부와 부인부를 담당하였다.

1933년 1월 부병훈 등과 함께 제주도 적색농민조합 건설의 준비 조직체로 농민조합창립준비 위원회(農民組合創立準備委員會)를 결성, 구우면과 신우면 지역의 조직을 담당하고 임금 투쟁을 목적으로 한 파업의 필요성을 고취하는 등 동지 규합에 힘썼다.

또한 1934년 7월 양병시, 장창구 등과 함께 한림리 적색노동조합과 농민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로 노농연구회(勞農硏究會)를 조직하여 총책임자 겸 가두부(街頭部)를 맡았다. 가두부는 주로 청소년들 가운데 정예 인원을 동지로 규합하여 운동의 전위부대를 조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그는 조직 확대 활동을 하다가 동지들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동아일보(1931. 4. 12.)

김경희 (金慶熙)

- 생 목 년: 1896. 11. 30.~(1952. 8. 3.)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김경희는 1919년 3월 초순 이후 서울과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서울에서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장환이 서울 만세 시위에 참가하여 활동하다 독립 선언서를 갖고 고향 조천리로 귀향하였다. 김시범은 김장환으로부터 서울에서의 시위 상황을 전해 들었고, 김시은 등과 함께 조천 지역에서도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김경희는 이들이 거사 동지를 규합할 때 고재륜, 김용찬 등과 함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에 동참할 것을 결의하였다.

거사일인 3월 21일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한 뒤, 그는 태극기를 세우고 시위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러나 행진 도중 출동한 일제 경찰의 진압으로 현장에서 시위 주도자들이 체포되었다.

김경희는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3·1 운동실록(이용락) 562-56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7면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김기수 (金基洙) 이명: 김기수(金基水)

- 생 물 년: 1888. 12. 28.~1975. 11. 5.
- 본 작: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김기수는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고,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김기수를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김기수 등은 핵심 세력의 일원으로 선봉대에 소속 되어 시위대를 이끌었다.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 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남식 (金南植)

- 생 목 년: 1919. 12. 30.~1989. 3. 3.
- 본 작: 전남 해남 산이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1993)



김남식은 1919년 12월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노송리에서 태어났고, 이후 제주도 서귀면 서귀리에 거주하면서 세탁업에 종사하였다.

천주교 신자로서 창씨개명을 거부했던 그는 제주도 서귀포 천주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나 신부(羅神父: 본명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 및 서 신부(徐神父: 본명 어거스틴 스위니)와 친분을 맺고 1940년 겨울부터 수시로 중일전쟁과 영독전쟁의 전황에 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일본 신문 방송의 보도가 거짓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1년 7월경에는 ‘현재 일본은 중일전쟁을 수행하느라 상당히 약해져 있는 터에 앞으로 영미 양대국을 상대로 해서 교전하게 되면 당연히 패전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위의 발언을 통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10월 나 신부, 서 신부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 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身分帳指紋照會回報書)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김대원 (金大元)

- 생 물 년: 1910. 1. 25.~1958. 7. 19.
- 본 작: 제주 구우 귀덕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김대원은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인 1929년 6월 최규문, 김상환, 김보섭 등과 함께 광주고등보통학교 독서회 조직에 관한 기본 대책을 협의하고 무등산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때 그는 오쾌일과 함께 조직교양부 위원에 선임되어 사회과학 등을 연구하는 등 항일 학생 운동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 독서회는 광주 지역의 항일 학생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결성된 독서회 중앙본부의 하부조직으로 결성된 것이었다. 독서회의 구성은 전 회원을 5개 조로 나누고 각 조를 김대원, 오쾌일, 김상환, 김보섭, 윤창하 등이 각각 책임지고 지도하였다.

김대원은 독서회 활동을 통하여 항일 의식을 고취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광주고등보통학교생의 가두시위에 참가하여 활약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광주 학생 독립 만세 시위에 대해 1930년 5월 대구복심법원에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독서회 운동에 대해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0. 2. 26.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0. 5. 15.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18-720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5-4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13권 240-264-1512~1524-1611~1624-1633~1654-1667~1708면

김동인 (金東仁)

- 생 목 년: 1899. 10. 21.~1944. 4. 25.
- 본 작: 제주 제주 일도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23)



김동인은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이던 김장환은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독립 선언문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와 김시범 등과 제주에서의 만세 운동을 논의하였다. 김시범은 김시은 등 동지를 규합하였고, 김동인은 이들을 통해 만세 운동 소식을 접했으며 함께할 것을 결의하였다.

거사일인 3월 21일 오후 3시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조천과 인근 마을 주민 등 오백여 명이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고, 김동인은 이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조천만세운동은 24일까지 지속되었고 인근 지역인 함덕과 신흥 등으로 확대되었다.

김동인은 이로 인하여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1933년 5월 3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8, 366, 431면

김두경 (金斗璟)

- 생 물 년: 1910. 7. 2.~1937. 7. 13.
- 본 작: 제주 제주 건입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김두경은 1931년 6월 제주청년동맹(濟州靑年同盟) 읍내지부에 가입하여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¹¹⁾의 책임자인 강창보와 함께 조직 확대에 힘을 쏟으며 청년 운동과 농민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9월 6일 그는 송성철과 함께 국제무산청년일에 시위 투쟁을 벌이기 위해 선전물을 작성하고 인쇄하는 한편, 거사 당일 인쇄물을 각처에 배포하였다.

또한 1931년 10월 동지들을 포섭하는 한편 11월 7일 러시아혁명일을 기하여 산지항 축항 인부 사십여 명을 지도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후 그는 주로 축항 인부를 대상으로 항일 사상을 전파하며 조직원을 포섭해 갔다.

그러던 중 1932년 초 강창보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는 조직 재건을 위해 동지를 규합 하던 중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32년 5월 목포지청 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출옥 직후 활동을 재개하여 1932년 6월 부병훈, 김경봉, 김일준 등을 배후에서 지도 하면서 제주도 농민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하게 하였으며, 1933년 8월에 정충조와 힘을 합하여 정세 판단에 따른 운동 노선과 방침을 정하고 조직 활동의 범위를 확대해 갔다.

1934년 말 조직이 발각됨에 따라 붙잡힌 그는 1935년 1월 7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예심에 회부되었다.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병보석으로 출옥한 후 1937년 7월 13일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61면
형사사건부
의견서(1934. 12. 27. 제주도경찰서)

11)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김두삼 (金斗三)

- 생 목 년: 1893. 3. 3.~1919. 8. 21.
- 본 작: 제주 좌영남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5)



김두삼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고,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와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김두삼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김두삼 등은 선봉대 중 1인으로 시위 행진에 앞장섰다.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 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1919년 8월 21일에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순국(1994. 11월호) 99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두성 (金斗性)

- 생 목 년: 1913. 12. 3.~2005. 11. 22.
- 본 작: 제주 신좌 함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19)



김두성은 조선청년총동맹 산하 제주청년동맹(濟州靑年同盟) 함덕지부에서 활동하였다. 1930년 12월 중순부터 1931년 3월 중순까지 제주도 신좌면 함덕리에서 야학을 개설하여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김희례 등 여학생 십여 명을 대상으로 국어, 산술 등을 교수하는 한편, 마르크스와 레닌 등 사회주의 운동가를 소개하고 노동자 중심의 신사회 건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같은 함덕리 출신으로 일본 도쿄(東京)에서 활동하던 사회 운동가 한영섭이 1931년 1월 15일 사망한 뒤 같은 달 19일에 향리로 이송되자, 송건호 등과 함께 '동지장¹²⁾ 거행'에 대해 협의하였다. 21일 '추도(追悼) 적혁(赤革) 한영섭의 영(靈)'이라 쓴 깃발을 제작하였다. 다음날 한영섭의 장례식이 거행될 때 이 조기들을 세워 추모했으며, 공동묘지에 매장될 때 혁명가를 합창하고 '한영섭 만세'를 삼창하였다. 그리고 동지들과 30~50전씩을 각출하여 앞면에는 '동지 적광 한영섭 기념(同志赤光韓永燮記念)', 뒷면에는 '차가운 백색(白色) 아래 억눌린 무리들아, 고함쳐 싸우라고 피뿌린 동지였다'는 문구를 새긴 석비(石碑)를 제작하여 세웠다.

그는 이로 인해 1931년 3월 제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같은 해 5월 6일 동지들과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고, 6월 18일 예심이 종결되었다. 8월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즉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2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고, 1932년 12월 5일 출옥하였다.

김두성은 이후에도 제주에서 사회 운동을 계속하였다. 1934년 4월 김원근, 부생종의 지도하에 함덕독서회를 조직하였다. 10월까지 김태근 등과 함께 20회에 걸쳐 회합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함덕리 여자청년회에서 여자 야학과 여성 계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12) 동지장(同志葬): 같은 뜻을 가진 동지, 즉 동료나 동지들의 장례식을 의미.

다시 체포되었고, 1935년 1월 7일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동아일보(1931. 4. 9., 4. 12., 5. 12., 8. 5., 8. 11.)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25~226, 257, 372, 565~568, 642~713면
수형기록

김만석 (金萬石) 이명: 김선일(金先一)

- 생몰년: (1885)~1909. 3. 4.
- 본적: 제주 이도 광양
- 운동계열: 의병
- 훈격: 애국장(1995)

제주 이도 광양에서 태어난 김만석은 1908년 고사훈이 제주도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제주군수 윤원구로부터 전해 듣고 의병 활동을 모색하자 이에 가담하였다.

고사훈은 전라남도 장성의 의병장 기우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김석운 등과 함께 광양동에 대장간을 차려 무기를 제조하고 화북리 황사평에서 군사 훈련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김만석은 1909년 2월 제주 광양동에서 고사훈, 이중심, 김석운, 조병생, 김재돌, 노상옥 등과 의병을 일으키고 거사일을 3월 3일, 거사 장소를 관덕정으로 결정, 고사훈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고사훈은 '가까운 장래에 일본인의 손에 제주 전역이 점령당하게 되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인을 살해할 것'이라고 하는 격문을 비밀리에 제주 전 지역에 배포하여 의병을 일으킨 사실을 알리며, 군사를 모집하고 군수품을 수합하였다. 이 때 김만석은 고사훈 등과 함께 대정군 등지에서 의병 삼백여 명을 모으고, 군수품을 수합하여 의진 편성을 서둘렀다.

그러나 불행하게 거사가 일어나기 전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음력 2월 13일 서광리에서 고사훈과 함께 피살되어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제주도지(제주도, 1982) 상권 384면
- 제주도지(제주도, 1993) 제1권 1133면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제13집 747~753·761면

김만제 (金萬濟)

- 생 물 년: 1912. 7. 17.~1946. 11. 16.
- 본 작: 제주 구우 명월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5)



김만제는 구우면 명월리에서 태어나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여 1930년 제주공립농업 학교에 입학하였다.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재학 중 동료 학생 십여 명이 일본인 교장의 차별 정책 등에 항거하다가 퇴학 또는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두일, 오화국, 홍성옥 등이 동지를 규합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자 교장 스기사키[杉崎勝藏]의 사택에 가서 항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김만제는 홍성옥으로부터 거사 계획을 듣고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고, 양공팔 등과 함께 민족 차별과 일제의 교육 정책에 항거 하여 일본인 교장의 사택을 습격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같은 달 10일 저녁 교장의 사택으로 들어가 장작과 곤봉 등을 이용하여 가옥을 파괴 하는 등 격렬하게 교육 정책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시위를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김만제는 1931년 8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695면
학적부(제주농업고등학교)
판결문(1931. 10. 22. 대구복심법원)
형사사건부

김명돈 (金明敦)

- 생몰년: 1878. 4. 10.~(1956)
- 본적: 제주 대정 신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김명돈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고,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김명돈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김명돈 등은 선봉대에 소속되어 시위대를 이끌었는데,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순국(1994. 11월호) 100면
- 수형인명부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형사사건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명식 (金明植)

- 생몰년: 1890. 9. 26.~1943. 4. 11.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9)



김명식은 일본 도쿄[東京]의 와세다대학 정치과 유학 중 1912년 10월 27일 조직된 조선인 유학생학우회(朝鮮人留學生學友會)의 간사부장·회장 등으로 활약하였으며, 1919년 2·8독립선언의 주도자로 참가하였다.

2·8독립 선언 이후 귀국한 김명식은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하는 한편,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창립에 참가하였다. 노동공제회는 당시 노동 운동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그는 1921년 3월 노동공제회 회장에 선출되면서 노동 운동에 앞장섰다. 아울러 1920년 6월 28일 조선청년회연합기성회(朝鮮青年會聯合期成會) 창립의 주도자로 참가하고, 이어 12월 서울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청년회연합회가 창립될 때, 그는 지방부의 일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그는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민족 문제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1922년 1월 신생활사(新生活社) 설립에 참가하여 주필 기자로 활동하였다. 『신생활』은 1922년 3월 11일 창간된 사회주의 계열의 최초의 대중 잡지로, 무산대중의 개조와 혁신에 목적을 두고 발행되었다. 『신생활』은 창간호가 나오자마자 발매 금지되었는데, 1922년 11월 14일자 특집의 ‘러시아 혁명 5주년 기념호’가 다시 문제가 되어, 발매 금지가 되었다. 이때 「러시아혁명기념」이란 논문을 기재한 김명식도 체포되어 1923년 1월,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그 후 고문 후유증으로 1924년 7월 26일 형집행정지되었으나 신체 장애자가 되었다.

그는 1927년 조직된 신간회(新幹會)의 제주지회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29년에는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노동 운동을 지도하다가 검거되었다. 그 결과 그는 1930년 6월 7일 오사카형무소에 재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2년 이후에는 잡지 『비판』에 「조선종교론」, 「민족단체 재건계획에 대하여」 등의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한국공산주의운동사(韓國共產主義運動史)(김준엽·김창순) 제2권 36·37·43·44·62·63·65~67·74·103·104·106·109·136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93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19·121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2집 58·214·218·221·222·232·238·241·244·250면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조선독립운동(朝鮮獨立運動)(김정명) 제1권 분책 495면
현대사자료(강덕상) 제27권 478면
한국공산주의운동사(이기하) 1177~1179면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68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47·54·57·95·96·111·112·173·174·200·212·269·309·321·347·366·367·439~452·777·977·1122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48·649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976·988·998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25·29·33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112·114·464·474·482·555면
매일신보(1921. 3. 15.)
동아일보(1920. 5. 7., 1922. 1. 19., 11. 25., 11. 26., 11. 27., 12. 5., 12. 28., 1923. 1. 9., 1. 17., 1927. 2. 9.)
조선일보(1930. 7. 5.)
판결문(1923. 1. 16. 경성지방법원)
현대사자료(강덕상) 제26권 3면
현대사자료(강덕상) 제29권 3·159면

김무석 (金武錫)

- 생몰년: 1887. 1. 20.~1960. 4. 23.
- 본적: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김무석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고,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김무석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김무석 등은 선봉대에 소속되어 시위대를 이끌었는데,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문준 (金文準)

- 생 목 년: 1894. 2. 10.~1936. 5. 22.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2000)



김문준은 일찍이 국내에서 교직에 종사하며 민족 교육을 실시하다 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1927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한인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목격하며 노동 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심하고, 1927년 10월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在日本朝鮮勞動總同盟) 오사카조선노동조합[大阪朝鮮勞動組合] 집행위원과 북부지부 상임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이어 1928년 5월에는 중앙집행위원, 1929년 12월에는 동 관서지방협의회(關西地方協議會) 집행위원장 등에 취임하여 일본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힘쓰는 한편,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싸웠다.

1930년 4월 사회주의 부문 운동 조직의 통합 움직임에 발맞추어 동 동맹 오사카노동조합 북부지부를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오사카화학노동조합에 통합하고 5월에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일본화학산업 노동조합 오사카지부로 개칭한 후 책임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그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노동 대중에게 혁명 의식과 항일 투쟁을 고무하는 내용의 「뉴스」 및 격문을 비롯하여 「제2무산자(無産者) 신문」 등을 제작하고 배포하여 사회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반제투쟁을 고무하였다.

한편 신간회(新幹會) 오사카지회에도 참여하여 1929년 8월 개최된 동회의 확대간사회에서 검사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으로 인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32년 4월 12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35년 5월 '일본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 민중의 생활 개선과 문화적 향상을 촉진한다. 조선인 민중의 생활권 확립과 그 보호 신장을 기한다'는 설립 취지로 『민중시보(民衆時報)』를 창간하고 대표 간사로 재일 한인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 힘썼다.

정부는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2. 4. 12., 대판공소원)
범죄인명부
사상월보(고등법원, 1932. 5.) 제2권, 제2호 502~506면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松浦綏三 편) 제6권 146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498-530면
조선일보(1929. 9. 1., 1931. 4. 2.)
민중시보(民衆時報)(1935. 5.)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025~1039면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 운동 연구(신소연,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9)

김백능 (金百能) 이명: 김충환(金忠煥)

- 생 목 년: 1898. 2. 27.~1929. 7. 10.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9)

김백능은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있었던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의 김시범 등은 만세 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3월 21일 오후 3시경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백능은 조천, 함덕, 신촌 일대의 마을 주민과 서당 학생 등 오백여 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다.

만세 운동은 다음날인 3월 22일로 이어졌다. 이날의 군중은 만세 운동에서 전날 체포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석방 요구는 3월 23일에도 계속되었다. 200여 명의 군중이 경찰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하였다. 8명이 체포되고 해가 질 무렵이 되어 해산하였다.

3월 24일 만세 운동은 더욱 격해졌다. 이날은 조천 장날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군중은 천오백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군중은 만세를 외치며 만세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3일 동안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던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

김백능은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해 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626~628면.

김봉화 (金奉和)

- 생 물 년: 1882. 6. 23.~1919. 12. 1.
- 본 작: 제주 좌 대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5)



김봉화는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고,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김봉화를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김봉화는 선봉 집사로서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1919년 12월 1일에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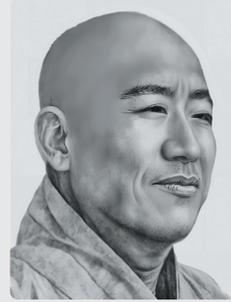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형사사건부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순국(1994. 11월호) 99면
수형인명부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삼만 (金三萬)

- 생몰년: (1864)~미상
- 본적: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14)



김삼만은 1918년 제주 법정사(法井寺)에서 조직된 항일 무장 투쟁의 의군(義軍) 후군대장(後軍大將)으로 일본인 관리 축출과 주재소 공격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의군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이 방동화, 강민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충, 장임호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면서 조직되었다.

김삼만은 1918년 9월 법정사에서 강창규, 김봉화, 양남구, 최태유, 강봉환 등과 함께 의군에 참여하기로 하고, 곤봉과 각 리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같은 해 10월 김연일은 장임호는 모사(謀師), 강창규는 선봉대장(先鋒隊將), 양남구는 중군대장(中軍大將), 김삼만은 후군대장, 김봉화·최태유는 선봉집사(先鋒執事)에 임명하였다.

김삼만 등 시위대는 수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중문리로 집결한 뒤, 경찰관 주재소 건물에 불을 놓아 소각하였으나,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순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흩어졌다.

김삼만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와 '방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집행원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7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 상 언 (金商彦) 이명: 김읍언(金揖彦)

- 생 물 년: 1873. 2. 16.~1965. 8. 24.
- 본 작: 제주 제주 외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김상언은 승려로서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법정사의 승려인 그는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평소 항일 의식이 투철 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다. 김상언은 1918년 봄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와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하였으며,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하여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들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 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순국(1994. 11월호) 94-95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상추 (金商秋)

- 생몰년: 1908. 2. 20.~1993. 10. 14.
- 본적: 제주 서중 신흥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2)



김상추는 1925년 4월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여 학우인 부태환과 잡지 등을 읽으며 항일 의식을 키웠다. 1928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3학년 재학 중 동맹 휴학 및 부태환과 함께 작성한 일왕(日王)에 대한 비판글이 경찰의 가택 수색으로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퇴학 처분을 받았다.

1929년 3월에는 일본의 오사카조선노동조합 북부지부 제3회 정기대회에서 신임위원에 선출되었다. 이어서 1930년 9월 8일 오사카[大阪]에서 동아통항조합 임시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제주도과 일본 각지에서 천여 명이 참석한 대회에 김상추는 제주도 대표로 참가하였다가 검속되었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동아일보(1928. 3. 10, 1930. 9. 14.)
- 조선일보(1929. 4. 7.)
- 학적부(제주고등학교)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543~545면
-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흠, 2005) 223, 224면

김석운 (金錫允) 이명: 김석명(金錫命), 김근수(金勤受)

- 생 물 년: 1877. 8. 23.~1949. 8. 25.
- 본 작: 제주 제주 오라
- 운동계열: 의병
- 훈 격: 애족장(1990)



김석운은 1909년 고사훈, 이중심과 함께 제주의병항쟁을 주도하였다.

그는 전라남도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기우만의 의병 활동에 영향을 받았는데, 제주 출신으로 기정진에게 사사한 안병택이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주도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본인을 모두 죽이고 한국의 구법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1908년 고사훈과 함께 전답을 팔아 광양에 대장간을 차려 비밀리에 무기를 제조하고 화북리 황사평에서 군사 훈련을 추진하였다.

1909년 2월 고사훈, 이중심, 노상옥, 김만석, 김재돌, 양남석, 조병생 등과 함께 모여 구체적인 거사 계획을 세웠다. 거사일은 3월 3일, 거사 장소는 관덕정으로 정하고, 의병장에 고사훈과 이중심을 추대하고 자신은 참모장을 맡았다. 그는 이어 격문 및 구체적 행동 내용을 담은 「통고사(通告事)」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제주성을 점령하기로 정하고 의병을 규합하였다.

그러나 거사를 앞두고 함께 의병을 일으킨 고사훈이 체포되고, 동지들이 광양에서 습격 당하자 그 역시 체포되었으며 그들이 만들어 사용하던 무기들도 압수되었다. 지도부를 잃은 의병은 와해되어 거사는 실패하였다. 그는 일련의 활동이 드러나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도 계속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제주도건립모충사탑 비문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김성수 (金成洙) 이명: 김성숙(金誠淑)

- 생 목 년: 1901. 7. 8.~1965. 12. 25.
- 본 작: 제주 중문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5)



김성수는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신도로 1918년 10월 6~7일 법정사 승려 김연일 등과 함께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하고 파괴하는 등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8년 9월 19일 제주도 좌면 도순리(현재 서귀포시 도순동) 법정사 승려 김연일은 김성수 등 신도 30명에게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¹³⁾했을 뿐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써 반일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5일, 김성수 등 신도 33명은 군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칠백여 명을 규합하였다.

김성수는 10월 7일 새벽, 법정사에 집결한 선봉대의 일원으로 서귀포 방면으로 무력 항쟁을 개시하였다. 선봉대는 화승총과 몽둥이를 들고 깃발을 내세우며 도순리, 영남리, 서호리, 호근리를 돌며 대오를 꾸렸다. 그들은 전선을 절단하고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며 일본인을 포박하고 구타하는 등 이틀 동안 격렬한 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형사사건부(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검사국)
-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3~148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13) 병탄(併呑):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김 성 속 (金成淑) 이명: 김성숙(金成璠)

- 생 물 년: 1896. 6. 4.~1979. 12. 18.
- 본 작: 제주 대정 가파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05)



김성숙은 1919년 3월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 재학 중 독립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퇴학당하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그는 1920년 제주도로 귀향하여 신유의숙(辛酉義塾)을 설립하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활동에 힘쓰다가 일본 도쿄[東京]로 유학하였다.

일본 유학 중이던 1926년 7월 민중의 구제를 목표로 한 협동조합운동사(協同組合運動社)의 창립 주도자로 참가한 이후 귀국 후에도 같은 단체의 활동에 주력하여 1929년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30년대 초반에는 협동조합운동사 활동의 실천 방향에 대하여 신문과 잡지에 다수의 글을 게재하였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가 결성되자 1929년 신간회의 도쿄지회에서 선전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동조하는 활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31년 7월 중국에서 발생한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과 관련하여 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일제를 규탄하고자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했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48일 동안 구금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15권 3~4면, 제16권 282면

제주교육통사(제주도교육연구원, 1974) 112면

조선신경제건설 3개년 계획(삼천리 제3권 제10호, 1931. 10. 1.)

판결문(1919. 8. 30. 경성지방법원)

조선일보(1926. 7. 2., 1927. 6. 7., 1929. 4. 7·4. 12·4. 16., 1931. 7. 16.)

동아일보(1928. 4. 4., 1929. 4. 16., 1931. 8. 23., 1932. 1. 24, 1. 25., 1933. 1. 1.)

협동조합운동사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 개최에 관한 건(京鍾警高祕 제5800호, 1929. 5. 4.),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7)

경리조합 발기인회에 관한 건(京鍾警高祕 제6255호, 1929. 5. 13.),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7)

중외일보(1930. 2. 8.)

김성오 (金聲五)

- 생 목 년: 1910. 6. 18.~1986. 10. 25.
- 본 작: 제주 구좌 연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5)



김성오는 1930년 3월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에서 신재홍, 오문규 등과 함께 비밀 결사 혁우동맹(革友同盟)을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혁우동맹은 주로 청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고취와 대중 계몽을 활동의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있었다.

혁우동맹은 1931년 6월 상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제주도 야체이카¹⁴⁾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갔는데, 그는 청년부원으로 있으며 청년 단원의 포섭을 담당하였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구좌면 등지의 해녀를 대상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 각 방면의 운동 단체를 지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2년 구좌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주 해녀의 항일 시위 운동에는 제주도 야체이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제주 해녀들은 해녀어업조합(海女漁業組合)의 어용화¹⁵⁾와 해산물 매수가격을 둘러싼 부정에 항의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그 여파가 거세지자, 해녀와 청년 운동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속을 실시하였다.

김성오는 이때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형사사건부(조선총독부)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제주도지(제주도, 1982) 상권 410~417면
조선일보(1932. 3. 4.)
우도지(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395~399면

14)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15) 어용화: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 세력, 특히 권력자나 지배 세력의 뜻에 맞춰 움직이도록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현상.

김성종 (金性鐘)

- 생몰년: 1915. 1. 6.~1945. 4. 17.
- 본 작: 제주 구좌 평대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국장(1993)

김성종은 1938년 1월경부터 일본 오사카[大阪]에 있던 한인 야학교인 성심야학교(誠心夜學校) 교사로 활동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성심야학교는 이봉춘이 1934년경부터 오사카 동성구 저사야중의 가정집에 개설한 한인 학교로, 빈곤한 한인 자제들을 모아 민족의 실상과 독립 국가 건설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민족의식의 고양을 도모하고 있었다.

이봉춘, 김주삼, 고갑평 등의 동료 교사와 함께 20~30명의 한인 학생들에게 표면적으로는 국어, 산수 등의 일반 교육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상은 「조선독립가」를 만들어 부르게 하며, 교재의 주 내용을 한국의 역사, 한국어의 유지, 한국 예찬 등에 두는 방침으로 민족의식 계몽에 힘쓰는 한편, 독립 국가를 건설하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는 얻을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의식 강화교육은 이후 11곳을 전전하며 핵심 인물이 붙잡힐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와 함께 그는 1938년 1월 이후 독자적으로 오사카 동성구 저사야서 천신 구락부 옆, 그리고 동성구 중천정 부근 등 두 곳에 무명의 야학교를 개설하고 항일 민족의식 고양에 주력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2년 11월 14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3년 11월 26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45년 4월 6일 출옥하였으나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으로 출옥 열흘 만에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 松浦 三 編) 제8권 55~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346~1348면

김순재 (金淳在) 이명: 김순재(金淳才)

- 생몰년: 1916. 6. 26.~1971. 2. 20.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건국포장(2018)



1916년 6월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난 김순재는 조천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1931년 1월 1일, 동료 학생 김민원, 한을룡, 김봉택 등과 함께 신년하례식장에서 학생 전원이 일본 국가와 ‘칙어봉답가(勅語奉答歌)’ 제창을 거부하도록 하는 활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 일로 인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17세이던 1932년 2월 4~5일경 조천읍 문만근 집 옆 도로에서 소년들을 모아 놓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지 이미 22년, 우리는 그동안 일본 때문에 정치적으로 무한한 압박과 착취를 받아 조그마한 자유도 없고, 부모 형제는 오사카[大阪] 노동시장 혹은 압록강을 건너 유랑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 우리 소년들은 일치단결하여 일본을 타도하고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김순재는 1932년 2월 10일에도 조천공립보통학교 학생 김호실 등 15~16명의 소년들을 모아 놓고, 같은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조천 연설 사건’으로 김평원 등 동지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2년 7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2. 9. 26. 대구복심법원)
- 수형인명부
- 동아일보(1931. 2. 13.)
- 조선일보(1931. 9.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4권 848~849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14~115, 258, 371, 548, 578~580면
-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흠, 2005) 235면

김순중 (金順鍾)

- 생 물 년: 1899. 2. 20.~1972. 3. 20.
- 본 작: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5)



김순중은 1930년 3월 제주도 구좌면 세화리에서 신재홍, 오문규 등과 함께 비밀 결사 혁우동맹(革友同盟)을 조직하고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혁우동맹은 주로 청년 대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의 고취와 대중 계몽을 활동의 주요 방침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때 그는 소집 책임자로 있으며, 단원들 간의 연락 소통을 담당하였다.

혁우동맹은 1931년 6월 상순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 제주도 야체이카¹⁶⁾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갔는데, 그는 청년부원의 관리를 담당하였다. 제주도 야체이카는 구좌면 등지의 해녀들을 대상으로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등 사회 각 방면의 운동 단체를 지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932년 구좌면을 중심으로 일어난 제주 해녀의 항일시위 운동에는 제주도 야체이카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다. 당시 제주 해녀들은 해녀어업조합의 어용화¹⁷⁾와 해산물 매수가격을 둘러싼 부정에 항의하여 지정판매제 반대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는 천여명의 해녀들이 세화주재소까지 몰려와 시위를 벌이는 등 그 여파가 거세지자, 해녀와 청년 운동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검속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으로 해녀 대표 3인이 구속되고, 해녀시위의 배후 조직으로 강창보를 비롯한 백여 명의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체포되었다.

김순중은 이때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조선일보(1932. 3. 4., 1933. 2. 8.)

형사사건부(조선총독부재판소)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제주도지(제주도, 1982) 상권 410~417면

구좌읍지(1986년) 212면

비자림(세화고등학교, 1993년) 제3호 55면

우도지(우도지편찬위원회, 1996년) 394-396-397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년) 301면

대하실록제주백년(강용삼 외, 1984년) 306-311-317면

16)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17) 어용화: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 세력, 특히 권력자나 지배 세력의 뜻에 맞춰 움직이도록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현상.

김 순 탁 (金淳鐸)

- 생 목 년: 1895. 3. 7.~1938. 3. 12.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1997)



1895년 3월 조천리에서 태어난 김순탁은 신명사숙(新明私塾)에서 학업을 마치고 제주공립 농업학교를 졸업, 모교인 신명사숙으로 다시 돌아와 박두규 등과 함께 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민족의식 함양에 노력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좌면 조천리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에 동참하였다. 거사일인 3월 21일 오후 3시경, 김순탁을 비롯한 육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미밋동산(만세동산)에 모였다. 김시범이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김장환이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그를 비롯한 시위대는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연창하며 시위 행진을 하였다. 김순탁은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후 그는 지역사회 활동과 대중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4년 1월 조천청년회관에서 제주산업연구회 조직에 참여하였고, 1926년 4월에는 제주청년연합회 참여, 같은 해 6월에는 신좌청년연맹 발기, 1927년 11월에는 신좌소비조합을 조직하면서 상무이사로 활동하였다.

김순탁은 제주청년연합회가 제주청년동맹으로 바뀌자, 1928년 8월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를 설립하였고 집행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1929년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 정기총회에서 부녀자 노동야학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경찰은 노동야학을 공산주의를 가르치고 동지를 규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김순탁을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체포하였으나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신좌소비조합 간부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였다.

정부는 1997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0. 6. 12. 대구복심법원)
수형인명부

조선일보(1930. 3. 28., 4. 18., 5. 3.)
범죄인명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3-175-178-188-189-224-256-431-432-533-626-633-634-772-774-777-787-792면

김순희 (金淳熙)

- 생 물 년: 1908. 2. 21.~1933. 12. 14.
- 본 작: 제주 서중 남원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국장(1990)



김순희는 1929년 3월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정관진, 김태래, 한경석 등과 함께 1927년 3월 조직한 비밀 결사 조선학생혁명당(朝鮮學生革命黨)을 조선학생전위동맹(朝鮮學生前衛同盟)으로 확대하고 개편하였다. 그는 중앙집행위원 겸 선전부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9년 5~6월 이들은 서울 관훈동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각급 학교에 독서회를 결성하도록 하여 사회주의 사상을 계몽하는 데 힘썼다. 김순희는 중앙고등보통학교와 중등학교의 독서회 조직 책임을 맡았으며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는 같은 해 11월 말 서울 봉익동 자택에서 정종근, 김태래 등과 함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으로 붙잡힌 한국인 학생들의 즉시 석방과 일제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배포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12월 초 연합 시위를 계획하고 격문 천팔백여 매를 인쇄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하였다. 또한 12월 9일 전개된 중앙고등보통학교의 시위 운동을 배후에서 지도하였는데, 같은 학교 학생인 강대성 등과 사전 협의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낭독하여 시위를 전개하도록 지휘하였다.

김순희는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혔고, 1931년 4월 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1931년 5월 경성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가혹한 고문으로 인하여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5. 11. 경성복심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0권 450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85-292-293면
- 동아일보(1931. 4. 9., 4. 19., 5. 12., 1933. 12. 8.)

김시곤 (金時坤)

- 생몰년: 1901. 7. 19.~1983. 9. 21.
- 본적: 제주 구좌 세화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0)



1901년 7월 세화리에서 태어난 김시곤은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8년 하도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 일제의 제주 해녀에 대한 인권유린과 수탈행위가 심해지자 1930년 3월 신재홍, 문도배, 오문규, 강관순 등과 함께 비밀 결사 혁우동맹(革友同盟)을 조직하였다.

혁우동맹은 사회주의 이념 아래 민족 해방을 목표로 하던 비밀 결사로 이들은 소년·소녀의 교양 방안, 농촌 청년과 해녀의 규합 방법, 제주의 사회 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구좌면 일대 해녀 투쟁을 논의하고 해녀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 지원과 수탈 방지, 그리고 독립군자금의 조달을 위해 1인당 10원씩 헌금하기로 결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시곤은 1932년 1월, 해녀조합에 대한 지정판매제 반대 등 요구 조건을 내걸고 해녀 천여 명이 항일 운동을 전개할 때 이 운동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어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3년 2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같은 해 6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 범죄인명부
- 제주도지(上) (1982. 2. 10. 간행) 407면
- 제주의 인맥고(1980. 2. 5.) 90-91면

김시범 (金時範)

- 생 물 년: 1890. 9. 13.~1948. 11. 25.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애족장(2018)



1890년 9월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난 김시범은 1919년 잡화상을 하던 중 조천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3·1 독립 선언 이후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고향 제주로 돌아온 김장환에게서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시위 운동이 발발하고 있음을 듣고, 제주에서의 만세 운동을 위해 김시은과 함께 고재륜, 김형배, 김연배, 황진식 등 동지를 규합하였다. 또한 김형배에게 태극기를 제작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천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들은 당시 제주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신촌과 함덕 등 인근 주민들과 서당 학생들에게 독립 만세 시위 계획을 알리며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3월 21일 오후 3시경 김시범을 비롯한 인근 주민과 서당 생도 등 약 오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조천리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모였다. 김시범이 태극기를 세우고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김장환이 앞에 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군중은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어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연창하며 시가지를 향하여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으나 출동한 일본 무장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고 김시범 등 중심 인물들이 체포당하였다.

김시범은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19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경성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0년 4월 8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7면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30~231면

김시성 (金時成)

- 생 목 년: 1910. 2. 16.~1943. 12. 17.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족장(1993)

김시성은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입학 후 1926년 11월 광주에서 조직된 항일 학생 비밀 결사 조직인 성진회(醒進會)에 가입하였고, 1927년 3월 해산하기까지 매월 회합하면서 사회과학 이론을 공부하였다.

1928년 6월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생 이경채가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체포되어 기소되고 학교 당국으로부터 퇴학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항거하여 동교생 삼백여 명이 동맹 휴학을 단행했을 때, 4학년생이던 김시성은 동맹 휴학 주도자로 활약하다 다른 25명의 학생과 함께 퇴학당하였다.

같은 해 10월 하순 김몽길, 여도현, 김상환, 김보섭 등과 함께 기밀 누설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해체한 항일 학생 비밀 결사 성진회 계열의 비밀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월 1, 2회씩 회합하면서 사회과학 이론을 연구하고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후 일본으로 유학하여 오사카영어학교에 재학 중 1929년 11월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발발하자, 이와 관련하여 광주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참여했던 성진회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0년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으나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11. 3.) 99-100-104-105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98-522면
동아일보(1928. 7. 6.)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886-887-1624-1629-1657-2659-2675-2678면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6면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決定書)(1930. 7. 26. 광주지방법원)

김시용 (金時容)

- 생몰년: 1906. 2. 4.~1945. 7. 23.
- 본적: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국장(1995)



김시용은 1928년 일본 와세다대학에 재학 중 동경유학생학우회와 재일조선청년동맹(在日朝鮮青年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29년에 재일조선청년동맹 기관지 『조선청년(朝鮮靑年)』에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논박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다가 1929년 8월 18일 동경구재판소(東京區裁判所)에서 ‘신문지법(新聞紙法) 위반’으로 벌금 100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병을 얻어 귀국한 그는 1931년 5월 부산에서 조선 방직을 비롯한 여러 공장의 총파업을 지도하면서 노동 운동을 전개하였고, 부산 노동조합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1931년 11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향인 제주 조천으로 귀향하여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면서 소비조합(消費組合)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1937년 8월에 그는 제주도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하다가 옥중 순국한 부생종의 공적을 기리며 비문을 작성하는 등 추모 비문 건립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조천공립소학교의 학생 칠십여 명에 대한 의식계몽 강습회를 계획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또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의 대륙 침략에 반대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각종 부담금과 군수물자 공출에 대하여 불납할 것을 주장하면서 반전운동(反戰運動)을 전개하였다. 1938년 9월에는 경방단(警防團) 조직에 반대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1938년 10월 중일전쟁의 전황에 대하여 ‘현재 일본군에 유리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중국군의 유격전과 장기전 전술에 따라 전황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등 항일 의식을 불러일으켰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일전쟁에서 결국 일본군이 패퇴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독립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일제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붙잡혀 1942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45년 7월 23일 옥중 순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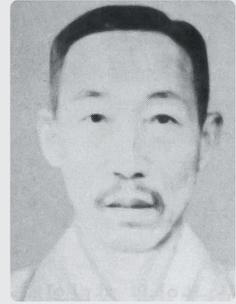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42. 8. 13. 광주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879면
- 조선일보(1931. 6. 10., 7. 23., 7. 26.)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동아일보(1928. 7. 18., 1933. 11. 26.)

김시은 (金時殷)

- 생 목 년: 1887. 10. 10.~1957. 3. 23.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김시은은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좌면 조천리 일대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동하였다.

1919년 3월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 중이던 김장환이, 서울에서 전개된 독립 선언식과 독립 만세 운동에 참가하고 귀향하여 서울의 만세 운동 상황을 김시범에게 전하면서 제주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김시은은 김시범, 김장환과 함께 고재륜, 김형배, 김연배, 황진식, 김찬용, 백응선, 김운배, 박두규, 이문천, 윤계진, 김경희, 김필원 등의 동지들을 규합하고 조천리 미밋동산(만세동산)에 들어가 사생을 같이하기로 맹세하며, 독립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거사일은 제주에서 명망이 높은 유학자였던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로 정하고, 신촌과 함덕 등의 인근 마을 주민과 서당 학생들에게도 독립 만세 시위 계획을 알려 주며 다 함께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3월 21일 오후 3시경, 그는 육백여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미밋동산(만세동산)에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조천 비석거리까지 시위 행진을 하였다. 시위대를 이끌고 제주성 방향으로 행진하던 중 출동한 수십 명의 일본 무장병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그는 같은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 만세 운동으로 투옥되었던 시위 주도자들과 함께 미밋동산의 동지라는 의미로 동미회(同味會)를 조직하였으며, 옥고로 인해 사망한 동지의 묘소에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27-628면

김시추 (金時秋)

- 생 물 년: 1901. 10. 25.~1945. 12. 14.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00)



김시추는 1930년 야학을 개설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일찍부터 사회 운동가로 각 방면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8년경 김순탁 등과 함께 조천리에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를 조직하여 청년 운동의 재결속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신좌문고(新左文庫)를 운영하고 노동야학을 개설하는 등 계몽 활동에 주력하였다.

김시추는 1929년 8월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의 제1회 정기총회에서 부녀자 노동야학을 조직을 결성하고 김유환, 김서호, 김중원 등과 함께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맹 퇴치와 민족의식 고취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말에는 노동야학을 개설하여 청소년에게 한글과 산수 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고, 1930년 4월 24일 제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아 10개월여 동안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범죄인명부
수형인명부
조선일보(1930. 2. 18.)

김시황 (金時黃)

- 생 목 년: 1909. 2. 1.~1956. 8. 1.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9)



김시황은 1929년 광주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참가하였다.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단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11월 3일과 11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학생 시위가 일어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시위 소식이 목포, 나주 등 전남 지역으로 전해지면서 학생 시위가 확산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로 전파되면서 1930년 3월까지 전국 각처와 국외에서 전민족적으로 전개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시발점이었던 광주 지역의 학생 시위는 광주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한 각 학교 한국인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졌으며, 성진회(醒進會) 출신의 청년 운동 세력과 독서회 중앙부 같은 학생 비밀 결사의 지도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다. 광주 지역에는 독서회 중앙부 아래 광주고등보통학교, 광주농업학교, 광주사범학교, 광주여고등보통학교 등에 독서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이들 조직은 독서회 중앙부를 중심으로 결집되어 있었다.

당시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시황은 광주고등보통학교 독서회 회원으로 학생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나주역의 한일 학생 충돌 소식을 접하면서 광주 학생 시위를 추진하여 11월 3일과 12일의 학생 시위에 앞장섰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9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62-293-302-306-30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5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0-247-250면
- 동아일보(1930. 2. 20, 2. 22, 3. 1.)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제1권 분책 716~719면

김시희 (金時熙)

- 생몰년: (1883)~미상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23)

김시희는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전개된 만세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제주도 신좌면의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이어졌다. 3월 21일 오후 3시 조천리 인근 주민과 서당 생도 등 약 오백여 명이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신좌면의 만세 운동은 함덕리, 신흥리, 신촌리로 점차 확대되었다.

조천리 주민인 김시희는 3·1 운동의 취지에 동감하여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1933년 5월 3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8, 366, 431면

김신형 (金辛亨) 이명: 굉가(宏佳)(號)

- 생 목 년: 1921. 4. 7.~1969. 7. 9.
- 본 작: 제주 한림 한림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대통령표창(2020)



김신형은 1941년 4월 와세다실업학교에 입학하고 도쿄[東京] 시나가와구[品川區] 소재 항공계기주식회사 직공으로 취직하였다.

그는 학교와 직장에서 일본인의 차별을 보며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상황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차별 대우를 철폐할 것과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조선 독립의 지도자로 동지적 단결로 독립의 소지(素志) 배양에 정신(挺身)해야만 한다'고 결의하였다.

김신형은 독립 의지 실현을 위해 1942년 2월 중순부터 도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동지로 규합하고, 이들과 여러 차례 회합해 민족적 열의를 보이는 동시에 단결을 강화하였다. 이들은 주로 전문학교 입학 억제 정책과 차별과 착취적인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고 만주와 미국에서의 독립운동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그는 이러한 활동이 발각돼 1943년 5월 20일 체포되었다.

김신형은 1943년 9월 20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도쿄지방법원 재판소 검사국에 송치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 1976) 제5집 450~451면

독립운동사자료집(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13집 1416~1417면

김여석 (金汝錫) 이명: 김여영(金汝暎)

- 생 물 년: 1891. 12. 6.~1961. 1. 15.
- 본 작: 제주 구우 낙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애족장(2005)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제주에서도 같은 해 3월 21일 신좌면 조천리를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다. 김여석은 이에 동조하여 제주도내 서당 생도들을 모아 만세 시위를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당시 구우면(현재 한림읍) 낙천리에서 서당 훈장으로 있던 그는 낙천리의 서당 훈장 조무빈, 저지리의 서당 훈장 박세현, 신촌리의 서당 훈장 신계선 등과 연계하여 격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였다.

그는 거사에 앞서 고사를 지내고 격문을 붙이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및 '도수규칙(屠獸規則)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30일 통산)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20세기 제주인명사전(김찬흡 편저, 제주문화원, 2000) 148면
-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87-366-438면
- 제주항일인사실록(한라일보, 1998. 10. 7.)

김여찬 (金麗贊)

- 생몰년: 1904. 8. 26.~1941. 4. 1.
- 본적: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8)



김여찬은 1930년 9월 민중운동자협의회를 조직하여 1932년 1월 전개되었던 제주 해녀들의 투쟁을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당시 제주에서는 일본 관리들이 해녀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일제의 관제조합인 해녀어업조합(海女漁業組合)이 뇌물을 제공한 일본인 상인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산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으로 인해 해녀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海女會)를 조직하고 부당한 해녀어업조합에 맞섰다. 이는 결국 천여 명의 해녀들이 참여한 시위 투쟁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당시 김여찬은 해녀들의 뱃사공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12월 20일 김여찬을 비롯해 부춘화, 부덕량, 김옥련 등의 해녀들이 모여 요구 조건과 투쟁 방침을 결의하고, 1932년 1월 7일 구좌면 세화 장터에서 1차로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 세화 장날인 1월 12일에는 당시 제주도사(濟州島司)이자 해녀어업조합장이었던 다구치 데이키(田口禎熹)가 면사무소를 방문할 때 호미와 전복 채취 도구인 빗창을 들고 총궐기하여, 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항일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들은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다구치와 담판을 벌여 지정 판매 반대와 공정한 입찰, 조합비 조정, 조합 재정 공개, 손해배상 등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문도배, 신재홍 등 시위 관계자를 체포하였고, 이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1월 24일 해녀와 주민 오백여 명이 세화주재소로 몰려가 시위를 벌이며 격렬히 항의하다 수십 명이 검거되었다.

해녀 투쟁의 배후에 민중운동자협의회라는 비밀 결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일본 경찰은 전라남도 경찰부의 지원을 얻어 26일 11명의 남성을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여찬도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의 체포를 막기 위해 팔백여 명의 해녀들이 우도에서 온몸으로 맞섰고 일본 경찰은 공포탄까지 10여 발을 쏘면서 이를 저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또다시 다수의 해녀들이 체포되었다.

이들 가운데 민중운동자협의회에 관련된 27명은 같은 해 5월 14일 목포로 압송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김여찬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6월 1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조선일보(1930. 12. 11., 1932. 1. 28., 3. 4.)
- 동아일보(1932. 5. 22.)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85~302면
- 여성운동(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248면
- 독립유공자공훈록(부덕량, 부춘화, 김옥련 항목)
- 형사피의자색인부(刑事被疑者索引簿)(1932) 제2-1호 및 제2-2호

김연배 (金年培)

- 생 목 년: 1896. 7. 15.~1923. 11. 26.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1919년 3월 1일 이래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 만세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제주에서도 조천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김장환은 서울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한 이후 제주로 내려와 독립 선언서와 서울의 시위 상황을 전달하였다. 김시범, 김시은 등은 조천에서의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동지를 규합하였으며 거사일을 정하였다.

3월 21일, 김시범 등은 인근 주민과 서당 학생 등 약 오백여 명과 함께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다 일제 경찰과 충돌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도자들이 붙잡혔다, 다음날인 3월 22일에는 조천 장터에서 백응선을 비롯한 주민들이 전날 붙잡힌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만세 시위를 계속하였으나 다시 주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연배는 3월 23일 백응선, 이문천 등과 함께 3차 시위를 주도하였다. 군중을 규합하여 조천리 신도로(新道路)에서 함덕리에 이르는 길에 운집한 다수의 군중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위 행진을 벌였다.

그는 다음 날인 24일에도 함덕리 시장에 집합한 많은 군중과 함께 구금자 석방을 요구하고 독립 만세를 부르며 4차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으나 출동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김연배는 같은 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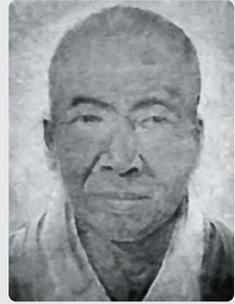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3·1 운동실록(이용락) 562-56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7~628면

김연일 (金連日) 이명: 김기인(金基寅), 김연일(金蓮日)

- 생몰년: 1871. 1. 17.~1940. 5. 10.
- 본 작: 경북 영일 동해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김연일은 경상북도 영일군 동해면에서 태어나 1914년 제주 출신 승려인 강창규와 함께 제주도로 왔다.

그는 제주도 좌면 도순리 소재 법정사(法井寺)의 주지로 1918년 4월부터 항일 무력 투쟁을 준비하였다. 1918년 9월 19일, 신도 30명에게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¹⁸⁾했을 뿐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라는 내용의 연설로써 반일 독립 사상을 고취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여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10월 7일 새벽 법정사에 집결한 선봉대는 서귀포 방면으로 무력 투쟁을 시작하였다. 김연일은 총지휘자로서 항쟁을 주도하였고 법정사에 남아 거사 성공을 기원하였다. 선봉대는 도순리, 영남리, 서호리, 호근리 등을 돌며 주민 칠백여 명을 규합하였고,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였다. 이들은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주재소장 요시하라(吉原)를 비롯한 경찰들을 포박한 뒤 주재소에 갇혀 있던 13명을 풀어주었고, 주재소 건물에 불을 질러 전소시켰다.

김연일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은신하다 1920년 3월에 잡혔으나 이미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되었고 같은 해 징역 5년으로 감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제민일보(1991. 6. 1.)

가출옥증표(1923. 6. 6. 목포형무소 제주지소 발행)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18) 병탄(併呑):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김영선 (金永善)

- 생몰년: (1875)~미상
- 본적: 제주
- 운동계열: 미주 방면
- 훈격: 대통령표창(2025)

제주에서 태어난 김영선은 1909년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국민회 와이말루 지방회 회원과 하리학가 지방회 평의원, 1913년 대한인국민회 와일루아 지방회 회장, 1943~1944년 조선 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 부위원장·재무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여러 차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202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개요

김옥련 (金玉蓮)

- 생 물 년: 1907. 9. 2.~2005. 9. 4.
- 본 작: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03)



1907년 9월 구좌면 하도리에서 태어난 김옥련은 해녀 물질을 생업으로 삼고, 하도보통학교 부설 야학인 하도강습소에 다녔다. 이곳에서 한글과 한문 기초교육, 역사, 『농민독본』, 『노동독본』 등 신지식 교육을 받으며 해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자각하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1932년 1월 제주도 구좌면에서 해녀들의 권익침탈에 항거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이는 해녀들에 대한 일본 관리들의 가혹한 대우와 제주도 해녀조합 어용화¹⁹⁾로 발생한 폐단에 대해서, 1931년 12월 20일 해녀들이 요구 조건 관철과 투쟁 방침을 결의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김옥련은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에서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1월 7일 해녀 삼백여 명을 규합하여 하도리에서 세화 장터까지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어 1932년 1월 12일 도사(島司) 다구치[田口禎熹]가 세화리 경찰 주재소를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해녀 칠백여 명이 세화리의 연두막동산에서 집결하였다. 그들은 호미와 빗창을 들고 세화 장터까지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김옥련은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부춘화 등과 함께 다구치와 담판을 벌여 ‘지정 판매 반대’, ‘해녀조합비 면제’, ‘도사의 조합장 겸직 반대’, ‘일본 상인 배척’ 등 요구 조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일제 경찰은 1월 24일 시위 관계자들을 체포하였고, 김옥련은 1월 26일 해녀들과 제주 민족운동가의 검거를 저지하려다 붙잡혀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3년에 건국포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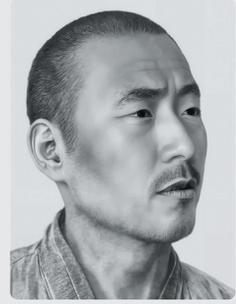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조선일보(1932. 1. 28., 3. 4.)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85-287, 289~302면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현상호, 1950)

19) 어용화: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 세력, 특히 권력자나 지배 세력의 뜻에 맞춰 움직이도록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현상.

김용충 (金用忠) 이명: 김윤수(金允洙)

- 생몰년: (1890)~미상
- 본적: 경북 영일 창주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21)



경상북도 영일군 출신인 김용충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고 항일 무력 항쟁을 도모하였다.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괄이 그리고 엽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달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서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포박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김용충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23년 2월 13일 다시 체포되었다. 같은 해 4월 10일 '소요', '방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으로 재판 확정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 경찰부, 1934) 265~26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운배 (金沅培) 이명: 김신배(金申培)

- 생 물 년: 1899. 3. 24.~1934. 9. 26.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3)

1919년 3월 서울에서의 3·1 독립 만세 시위 운동에 호응하여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주민 수백 명이 참가한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 김운배는 김시범 등과 함께 조천만세운동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3월 21일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이 태극기를 꽂고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김장환의 선창으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대가 행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위 주동자들이 일제 경찰에 끌려갔다. 3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전날 끌려간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2차~4차까지 만세 시위를 벌였다.

그 후 일제 경찰이 시위 주동자 검거에 나서 동지들이 붙잡히기 시작하자 김운배는 제주도를 탈출하여 부산으로 피신하였고 1920년 2월경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갔다.

상하이에서 김창숙과 손영직을 만나 독립운동에 이바지할 길을 찾던 그는 두 사람으로부터 국내로 들어가 군자금 모금에 대한 협조 요청 편지를 경상남도 밀양군 밀양면의 손종현 외 13명에게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1920년 12월 부산으로 입국하여 임무 수행에 착수하려던 중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비밀 편지와 함께 『한국독립사』를 국내에 반입해 독립운동을 전파하고자 노력하였다.

김운배는 1921년 6월 2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4년으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21. 8. 9. 대구복심법원)
- 대하실록 제주백년(태광문화사, 1984. 11. 15.) 379면

김인송 (金仁松)

- 생몰년: 1877. 2. 16.~1929. 5. 19.
- 본적: 제주 좌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8)



김인송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력 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강창규의 지휘 아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의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인송은 당일 이종창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 강태하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김인송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그는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김인송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9, 425면
순국(순국선열유족회, 1994) 11월호 100~101면
대각사상(大覺思想)(대각사상연구원, 2006) 제9권 317면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9) 제12권 356~371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한금순, 2010) 67, 87~91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인수 (金仁秀) 이명: 김경태(金景泰, 金敬泰)

- 생몰년: 1898. 2. 2.~1939. 7. 28.
- 본적: 경북 영일 동해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8)



경상북도 영일 출신인 김인수는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에서 일어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법정사의 스님인 김연일 등은 1918년 9월 19일, 신도 30명에 대하여, ‘왜노(倭奴)가 우리 조선을 병탄²⁰⁾하였을 뿐 아니라, 병합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불원(不遠)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나 우선 제일로 제주도에 사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상인들을 도외로 추방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의병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였다.

마침내 10월 5일, 신도 33명을 소집하여 김연일은 스스로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칭하고 김연일은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을 명하여 대오를 편성하고 각 면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해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하였다. 10월 7일 새벽 법정사에 집결한 선봉대는 서귀포 방면으로 무력 항쟁을 시작하였다. 이때 김인수는 김연일, 김용충과 함께 법정사에 남았다.

선봉대와 함께 모인 항일봉기군은 칠백여 명이나 되었다. 박주석, 강창규 등은 봉기군을 지휘하여 전선을 절단하고 서귀포 호근리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일제 경찰들이 미리 서귀포에서 무장한 채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어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자, 전술을 바꾸어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주재소장 요시하라는 갑작스럽게 닥친 봉기군을 방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주재소를 소각하고 일제 경찰 3명을 포박하였으며, 13명의 구금자를 풀어주었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 병탄(併呑):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3·149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일준 (金日準)

- 생몰년: 1911. 4. 7.~1960. 11. 27.
- 본적: 제주 조천 함덕
- 운동계열: 문화운동
- 훈격: 애족장(1990)



김일준은 1930년 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東京]에서 신문 배달 등을 하다 사회주의 서적을 접하고 이에 공감하여 항일 운동의 수단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이며 11월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청소년과 문맹자를 모아 교육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였다.

1931년 1월, 같은 고향 출신이자 도쿄에서 사회주의·독립운동을 했던 한영섭이 병사(病死)하여 향리에서 장례식을 주도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불평등한 사회를 파괴하고 무산계급의 자유를 건설하고자 한 그대는 죽었으나, 그대의 주의 사상은 동지인 우리들이 계승하여 분투할 것이니 안심하라'라는 사회주의와 항일 정신을 강조한 내용의 기를 게양하고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며 장례를 치렀다. 또한 그를 추모하고 그의 애국혼을 기리기 위하여 향리에 추모비를 세웠는데 비문에 '차가운 백색(白色) 아래 억눌린 무리들아, 고향쳐 싸우라고 피부린 동지였다'라고 새겼다가 독립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31년 12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풀려난 후 1932년 3월 신좌 소비조합 함덕지점을 개설하고 소비조합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2월 부병준, 부생중, 김원근 등과 신좌면 혁농위를 조직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함덕리 혁명적 농민조합협의회를 결성하였다. 김일준은 주민들을 교육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했으며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유사시에 봉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었다.

그는 함경북도 나진으로 피신했으나 그곳에서 붙잡혀 압송된 후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 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다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1. 12. 8. 대구복심법원)

형사사건부(목포법원지청형사분국)
본적지법죄인명부 587면
판결확정증명원(1977. 4. 21. 부산지방검찰청)

김임형 (金林滢)



- 생 물 년: 1915. 12. 30.~1949. 3. 3.
- 본 작: 제주 구좌 세화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족장(1995)

김임형은 1934년 4월 만주 용정시 사립 동흥중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1935년 3월 4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같은 학교의 교사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여 조국의 독립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 후 1935년 4월 서울로 상경하여 사립경성공업학교에 입학한 김임형은 1936년 5월 초 순경 김종천, 박병운 등과 함께 일반상식 함양을 목적으로 조직된 독서회 '우리 학교'를 개편하였다. 이들은 경성공업학교 동창생들을 참석시켜 사회주의 서적을 교재로 하여 사회주의 지식 보급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들은 동지 규합을 위해 자유주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에게 접근하였다. 외부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겉으로는 단순한 문학 연구 모임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청년들에게 사회주의와 항일 사상을 전파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활동 중 1938년 5월 7일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1938년 12월 9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8. 12. 9. 경성지방법원)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2집 477면

김재돌 (金在玢) 이명: 김문우(金文祐)

- 생몰년: 1882. 8. 26.~1956. 7. 17.
- 본적: 제주 이도 광양
- 운동계열: 의병
- 훈격: 건국포장(2018)

김재돌은 호적상 이름은 김문우(金文祐)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 그리고 의병을 일으킬 당시에도 아명(兒名)인 김재돌을 사용하였다.

고사훈은 1908년 7월 제주도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제주군수 윤원구로부터 전해 듣고 의병을 일으킬 뜻을 품었고, 1909년 2월 김만석, 이중심, 한영근 등과 함께 의병 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다.

김재돌은 이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여 의병에 참여하였다. 의병장으로 고사훈과 이중심을 추대하였고, 거사일을 1909년 3월 3일, 거사 장소를 관덕정으로 정하고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는 고사훈 등과 함께 2월 25일 영락리에 이르러 의병 20여 명을 가담시키고 신평리 등지에서 삼백여 명의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거병을 앞두고 대정 군수 김종하가 관군과 장정 30여 명을 동원하여 일본 경찰과 함께 의병 활동을 차단하였다. 2월 28일 고사훈과 김만석은 체포당하고 나머지 의병은 지휘부를 잃어 흩어지게 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4) 제13집 747, 748, 752, 753, 761면

폭도(暴徒)에 관한 편책(編冊)(제주경찰서장 : 1909. 3. 6.)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0, 79, 81, 402, 403, 406면

이도2동지(이도2동지편찬위원회, 2009) 202, 209면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흠, 2005) 278~279면

김재동 (金才童)

- 생 물 년: 1910. 4. 6.~1932. 3. 14.
- 본 작: 제주 신좌 함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3)



김재동은 1931년 1월 고향인 신좌면 함덕리에서 일본 도쿄[東京] 유학 중 사망하여 유해가 운구되어 온 함덕 출신 독립운동가 한영섭의 장례를 김두성 등과 함께 동지장²¹⁾으로 치렀다.

그들은 장례식에서 '불평등한 사회를 파괴하여 무산계급의 자유를 건설하려 한 그대는 죽어도 그대의 주의정신(主義精神)은 동지마다 계승하여 분투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내용의 조기 40여 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혁명가를 외쳤다.

아울러 추모비를 제작하여 공동 샘터 부근에 세웠는데, 그 앞면에는 '동지 적광(同志赤光) 한영섭 기념', 뒷면에는 '차가운 백색(白色) 아래 억눌린 무리들아, 고향쳐 싸우라고 피뿌린 동지였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에 일제 경찰이 '비석의 문구가 불온하여 안녕질서를 방해하였다'라는 이유로 비석을 압류하고 그를 비롯한 동지들을 붙잡았다.

김재동은 1931년 8월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대구형무소에서 재판 대기 중 옥사 순국하였다.

대구복심법원의 항소 기각 결정문은 그의 사망 일자를 1932년 3월 14일로 기록하였으나, 다른 동지 5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이미 1931년 12월 8일에 있었고 그 판결문에는 그의 이름도, 관련 사실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써 보면, 그의 실제 사망 일자는 1931년 8월 5일 이후 12월 8일 이전의 어느 날인데 일제 법원이 그의 옥중 사망 사실을 은폐하려다 뒤늦게야 공표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12. 8.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32. 3. 15. 대구복심법원)
- 범죄인명부

21) 동지장(同志葬): 같은 뜻을 가진 동지, 즉 동료나 동지들의 장례식을 의미.

김재종 (金在鍾)

- 생 목 년: 1910. 2. 21.~미상
- 본 적: 제주 제주 건입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24)

1910년 2월 제주면 건입리에서 태어난 김재종은 1927년 11월 서울에서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 중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 결사대에 가담하여 수업에 불성실한 일본인 교사의 배척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동맹 휴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후 1929년 12월 같은 학교 4학년에 재학 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동조하는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퇴학을 당하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독립유공자 공적개요

김재진 (金在珍)

- 생 물 년: 1912. 1. 18.~1959. 2. 4.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건국포장(2008)



김재진은 제주에서 출생하여 보통학교를 중퇴하고 1929년 1월 일본으로 건너가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1933년 4월 이좌구의 소개로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日本全國勞動組合協議會) 화학(化學) 간사이지부[關西支部]에 가입하였다. 그 후 김재진은 오사카[大阪]의 동지구(東地區) 책임자가 되었다. 그는 같은 해 6월 일본공산청년동맹(日本共產青年同盟)의 동지구 책임자 정우생의 권유로 일본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문서 배포 등의 활동을 하였다.

김재진이 일본에서 노동 운동과 청년 운동을 통해 제일 한인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던 무렵, 1933년 6월 하순부터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가 시작되었다. 이에 그는 같은 해 7월 1일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3년 8월 9일 검사국에 송치되어 9월 8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사카형무소 북구형무지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442면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 제3권 875, 884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제4권 354, 356, 391, 984, 1003면
- 사회 운동의 상황(내무성경보국, 1934. 6) 1520면
- 근대일본사회 운동사인물대사전(동편집위원회, 1997) 제2권 345면
- 대판조일신문(1933. 12. 23.)
- 사상월보(思想月報) 제1호(사법성형사국, 1934. 7.) 222면
- 사상월보(思想月報) 제2호(사법성형사국, 1934. 8.) 88면
- 특고월보(特高月報)(내무성보안국보안과) 제7권 11, 116면

김재형 (金栽滢) 이명: 김철연(金哲鍊)

- 생몰년: 1864. 12. 2.~1920. 12. 21.
- 본적: 제주 구우 두모
- 운동계열: 의병
- 훈격: 애족장(2014)

김재형은 1909년 2월 제주 구우면 두모리 이장으로, 의병장 고사훈의 의병 봉기를 독려하는 격문에 찬성하여 마을 주민을 소집하고 의병 봉기에 호응할 준비를 하던 중 체포되었다.

제주 출신의 고사훈은 1908년 김석운, 노상옥과 함께 전남 장성의 기우만, 기삼연 등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제주와 광양에서 무기를 은밀히 제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의병을 모집하여 황사평에서 훈련시키며 의거의 기치를 올렸다. 이후 대대적인 봉기를 계획하고 1909년 2월 고사훈과 김만석은 제주 각 곳에 사발통문을 배포하였다. 사발통문은 '왜인을 타살함은 그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의병을 모아 만인이 우리 조선의 옛 제도를 복구하자'는 내용이었다.

김재형은 고사훈, 이중심 등이 발한 격문에 호응하고 이에 따라 1909년 2월 28일과 3월 1일에 마을 주민 200여 명을 소집하여 분대 단위로 조직하는 등 의병을 모아 출병을 준비하고 있던 중 제주경찰서에서 파견된 순사에게 체포되었다.

김재형은 1909년 4월 2일 광주지방법판소에서 '내란미수죄'로 유형(流刑)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형사항소사건부
- 수형인명부
- 한국독립운동사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82) 제13권 264, 762~763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2~80, 410~418면

김정맹 (金精孟)

- 생 물 년: 1917. 2. 28.~1969. 11. 16.
- 본 작: 제주 구우 두모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0)



김정맹은 1930년 여름 사회주의자 좌응신의 영향을 받아 신창독서회에 가입하였다. 1931년 5월 홍창주와 함께 '노예 교육 폐지, 교과서 무상 배부, 자질 부족 교사 퇴진' 등 요구 조건을 걸고 한림보통학교 동맹 휴학을 주도하여 퇴학당하였다.

그는 1932년 3월 김두진, 고자화와 함께 비밀 결사 5인회를 조직하고 소년부를 담당하였다. 5인회는 일제 지배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독립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조직이었다. 이들은 노동절 메이데이 기념 시위 운동을 계획하였으며 5월 1일 서당 학생 백여 명을 규합하여 구우면 용수리에서 시위 행진을 주도하였다. 이후 두모리 대동소년단에 가입하여 좌응신의 지도로 항일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김정맹은 1933년 1월부터 김경봉 등과 혁명적 제주도농민조합 창립준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제주적색농민조합의 조직을 목적으로 농민대중의 전위 투사로서 활동할 것을 운동방침으로 결의하였다.

그는 1933년 8월 신창리 서당의 공립보통학교로의 전환과 일제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였다. 또한 주민의 여론을 환기하면서 김윤옥과 함께 소녀야학회(少女夜學會)를 개설하여 재학생들에게 연 25회에 걸쳐 항일 의식과 독립정신 고취를 위한 연설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김종호 (金宗鎬)

- 생몰년: (1902)~미상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23)

조천 출신 김종호는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전개된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당시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장환은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고, 독립 선언문을 갖고 고향으로 내려와 김시범 등과 제주에서의 만세 운동을 논의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거사가 계획되었고, 3월 21일 오후 3시 조천리 인근 주민과 서당 생도 등 약 오백여 명이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김종호는 이러한 조천만세운동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그가 참여한 만세 시위는 24일까지 지속되었고 함덕리, 신흥리, 신촌리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그로 인하여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1933년 5월 3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8, 366, 431면

김중현 (金仲鉉)

- 생 물 년: 1914. 7. 20.~1974. 8. 20.
- 본 작: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천주교 신자이던 김중현은 1939년 7월부터 가을 무렵까지 제주읍 천주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주도 대정면 모슬포의 해군 비행장에는 대규모의 격납고가 설치되어 30대 가량의 비행기가 계류 중이고 다수 군인이 주둔하며 해상에도 항상 수 척의 군함이 정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슬포 비행장에서 발진한 일본 해군기가 바다를 건너 중국의 상하이[上海]를 폭격하다 중국군의 포격을 받아 퇴각하던 중 추락했다는 정보를 알려 주었다.

또한 1940년 12월부터 1941년 여름까지 손 신부와 허봉학, 하성구 등 다른 신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일본의 신문들은 독영전쟁(獨英戰爭)에서 독일이 대승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은 허위보도에 지나지 않는다, 전황은 영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일전쟁이 장기화하면 일본군은 물자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패전할 것이다’, ‘정감록의 예언에 따르더라도 중일전쟁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날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중현 또한 위의 발언들이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말에 손 신부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는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방보안법(國防保安法) 및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과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禁錮) 10월 형이 병합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김진현 (金鎭賢)

- 생 목 년: 1909. 5. 18.~2001. 2. 21.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9)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 이화여자고등 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진현은 1930년 1월 10일경부터 학우들과 동조 시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는 최복순 등과 함께 시내 각급 여학교 대표들과 연락을 취하여 모임을 갖고 시위 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1월 15일 오전 9시 30분을 기해 일제히 만세 시위를 벌인 후 종로 네거리에 집결하여 연합 시위 운동을 전개하기로 약속하였다.

김진현은 교내 기숙사에서 항일 격문과 태극기 100여 장을 제작하였다.

예정된 1월 15일 김진현은 전교 학생 삼백여 명과 함께 교정에 모여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 만세’, ‘구속 학생 석방’, ‘식민지 교육 철폐’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그는 1930년 3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동아일보(1930. 1. 31, 2. 11, 2. 12, 2. 15, 2. 16, 2. 18, 2. 20, 3. 9, 3. 18, 3. 19, 3. 20, 3. 23, 3. 24, 3. 25, 3. 2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2) 제51권 77~108, 145~150, 250~252면

김진희 (金晋熙)

- 생 물 년: 1907. 5. 1.~1971. 8. 21.
- 본 작: 제주 신좌 함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김진희는 1931년 1월 제주도 신좌면 함덕리 출신으로 항일 활동을 하던 한영섭이 일본 도쿄 [東京]에서 사망하여 그 유해가 19일 향리에 돌아오자, 김두성, 김일준, 고종건, 양구문 등과 함께 추도식을 준비하였다.

장례식을 거행하는 과정에서 '추도(追悼), 적혁(赤革) 한영섭의 영(靈)', '불평등한 사회를 파괴하여 무산계급의 자유를 건설하려 한 그대는 죽었어도 그대의 주의정신(主義精神)은 동지마다 계승하여 분투할 것이니 안심하라'라는 내용의 기(旗)를 제작하여 세우고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며 한영섭을 추모하는 만세를 삼창하였다.

또한 동지들과 함께 '동지 적광 한영섭 기념(同志赤光韓永燮記念)', '차가운 백색(白色) 아래 억눌린 무리들아, 고함쳐 싸우라고 피뿌린 동지였다'라는 비문을 새긴 추모비를 세웠다. 이와 같은 움직임이 일제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으로 확대될 것을 두려워한 일제 경찰은 청년들을 체포하고, 추모비 등을 압수하였다.

이로 인해 김진희는 1931년 8월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1931년 12월 8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1. 12. 8. 대구복심법원)

김창옥 (金昌沃)

- 생 목 년: 1917. 12. 8.~1946. 7. 2.
- 본 작: 제주 조천 신촌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3)



김창옥은 1932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가 시모노세키시[下關市] 심상소학교를 다녔으나 5학년에 중퇴하였다. 1936년 2월에는 다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도쿄[東京]로 가 우편 배달부 등을 전전하면서 사립 목백상업학교를 거쳐 릿쇼대학 고등사범부에 입학하였지만, 1941년 중퇴하였다.

도쿄에서 지내는 동안 일본인의 한인에 대한 민족 차별을 직접 보면서 민족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940년 3월에는 동아연맹(東亞聯盟)에 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폐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분을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일제 지배의 기본 방침이 한민족 말살에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1940년 11월 동아연맹 한인 학생 좌담회에서 알게 된 박석우 등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40년 12월 그의 주도하에 박석우 등 3인의 동지들과 함께 민족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비밀 결사 '우리들'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동경제국대학 식물원에서 회합을 갖고 민족 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조치로 학생의 처지임을 감안하여 각자 전문 분야에서 민족 지도 원리의 연구에 노력하기로 하였는데, 그는 역사 분야를 담당하였다.

1941년 8월에는 일시 귀국하여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의 박석우 집에서 다시 회합을 열고 그동안의 활동을 검토하면서 독립 의식을 고취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뒤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와 같은 회합을 수차례에 걸쳐 가지면서 독립 결의를 다져 가던 중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4년 10월 6일 야마구치[山口] 지방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판결문(1944. 10. 6. 산구지방재판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771면

김창환 (金昌煥)

- 생몰년: 1908. 1. 9.~1977. 1. 11.
- 본적: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9)



김창환은 1920년대 말, 제주도 조천리의 제주청년동맹(濟州靑年同盟) 조천지부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1929년 8월 조천지부에서 김시추 등과 함께 노동야학을 개설하고 한글, 산수 등을 가르쳤다. 1930년 2월 14일 조천에서 제주청년동맹의 무인가 야학 설립과 운영 관련으로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가택 수색을 당하였다.

그는 1931년 2월 김유환으로부터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한국인의 단결을 주창하는 내용의 「도항노동자(渡航勞動者)와 동아통합조합(東亞統合組合)」이라는 글을 받고 배포하였다. 당시 김창환의 이러한 활동은 ‘조천 야체이카²²⁾’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환은 1932년 초, 강창보 등의 ‘제주도 야체이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1932년 5월 12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같은 달 2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불기소로 풀려났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동아일보(1930. 2. 18, 1932. 12. 25, 1933. 1. 16.)

조선일보(1930. 2. 18, 3. 13.)

22)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김태권 (金太權)

이명: 김진성(金鎭成), 김영(金榮)

- 생몰년: 1910. 2. 3.~1941. 9. 4.
- 본적: 제주 구좌 연평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격: 건국포장(2006)



김태권은 일본에서 한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투쟁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29년 6월 일본으로 건너가 1932년 일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협) 출판 오사카 지부[大阪支部] 동성지구준비회(東成地區準備會)에 가입하여 노동 운동에 참여하였다. 다음해 6월 고베[神戸]로 옮겨 전협 화학 고베지구 서부지구준비회(西部地區準備會) 등에 가입하여 한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 등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다.

주로 전협 화학 고베 서부지구 책임자로 활동하던 김태권은 고베시 위원회 재건에 앞장서서 선전문 배포, 기념일 데모, 노동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조직 확대 강화에 노력하다가 1933년 10월 25일 효고현(兵庫縣)에서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그는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전협 고베지구 재건 활동을 기도하였다. 김태권은 노옥경찰서에 유치되어 취조를 당하던 중 1934년 1월 23일 '경찰범처벌령(警察犯處罰令) 위반'으로 구류 10일에 처해져 경찰서에 구금 중이던 가쿠다 요시노리[角田義憲]와 같은 방에 유치되어 있었다.

김태권은 가쿠다 요시노리가 석방될 무렵 그를 통해 전협 화학 고베 서부지구의 동지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재건 운동을 계속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가쿠다 요시노리가 석방된 후 2월 4일 효고현 삼궁경찰서에 다시 검거되면서 그가 동지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연락문이 발각되었다. 이에 따라 전협 일본화학 고베 서부지구를 재건하려고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태권의 동지들이 일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김태권은 1934년 10월 15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조선독립운동(김정명, 1967) iv 994-996면

한국공산주의운동사(김준업·김창순, 1986) 제5권 170-184-233면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439-460-463면

특고월보(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1934년 2월호 88-89면

재일본 한국인 활동 일지(구일본 내무성 소장 특별고등경찰자료)

근대일본사회 운동사인물대사전(동편집위원회, 1997) 제2권 364면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松浦總三 편, 1975) 제6권 97면

김태근 (金泰根)

- 생 물 년: 1911. 8. 11.~1948. 11. 10.
- 본 작: 제주 조천 함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19)



김태근은 조천면에서 조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1934년 4월 김원근, 부생종의 지도하에 비밀 결사 함덕독서회(咸德讀書會)를 조직하였고, 10월까지 김두성과 함께 20회에 걸쳐 「프롤레타리아 경제학」 등을 교재로 연구하면서 동지 규합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18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1935년 2월 7일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김태근은 전시체제기에 군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 차례 더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1940~1941년경 이웃에 사는 이노우에 츠요시[井上烈]에게 '이번에 지원병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상당히 병대(兵隊)가 부족한 게 아닐까' 등의 이야기를 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그는 1941년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禁錮) 6월 형을 선고받고, 1942년 4월 29일에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41. 10. 27.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지편찬위원회, 1996) 646, 690, 691, 709면

김필원 (金弼遠)

- 생몰년: 1900. 9. 16.~1954. 3. 16.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1995)



김필원은 1919년 3월 21일 제주 신좌면 조천리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제주의 만세 운동은 조천에서 시작되었는데, 조천만세운동의 계획은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유학하고 있던 김장환이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가한 뒤 귀향하여 숙부 김시범에게 서울에서의 시위 상황을 알려면서 구체화되었다.

그리하여 김시범, 김시은 등은 동지를 규합하고, 당시 유림들 사이에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며 만세 운동을 추진하였는데, 김필원은 이때 만세 운동 계획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조천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인 신촌, 함덕 등지에도 만세 운동의 계획을 알려면서 서당 생도와 함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거사 당일인 3월 21일 김필원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창호지에 혈서로 ‘대한 독립 만세’라 써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대가 모여 있는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행진하였고, 이에 많은 주민이 그를 따랐다. 거사 장소에는 약 육백여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고 ‘독립 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다음날인 3월 22일 백응선, 박두규 등과 함께 군중을 이끌고 전날 연행된 검속자의 석방을 요구하며 2차 만세 시위를 전개하며 행진하던 도중에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김필원은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 범죄인명부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제주도지(제주도) 상권 392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6-6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64~1274면
- 3·1 운동실록(이용락) 561~564면

김한정 (金漢貞)

- 생몰년: 1896. 5. 22.~(1950. 4. 22.)
- 본 작: 제주 대정 가파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2019)



김한정은 1925년 9월 23일 창립된 제주청년연합회(濟州靑年聯合會)에서 집행위원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대정면 가파도의 가파소년회(加波少年會)에서 무산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자 신유익숙(辛酉義塾) 내 야학회를 결성하여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1930년 9월 제주읍 용담천 모래사장에서 흥관아 등과 모여 제주도 사회 운동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주도 내 사회 운동의 운동 방향과 조직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청년 대중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12월 강창보 등과 제주도 사회 운동자 비밀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및 신간회(新幹會) 해소, 농민과 여성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협의하였다.

1931년 5월 16일 강창보의 제안으로 비밀 결사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²³⁾를 결성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한정은 좌면과 증면을 담당해 활동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6월 13일 제주읍내 흥관아의 집에서 김민화 등과 함께 제주도 소년운동 지도자 비밀 간담회를 열고 소년·부인·농민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그는 9월 중문 경찰관 주재소에 가택 수색을 당하고 진철주 등과 함께 검속되었다가 풀려났다.

김한정은 1931년 11월 12~13일 부경득의 자살 사건에 대해 부친인 부대혁에게 항의하였다. 이후 15일 ‘공안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한정이 중문 경찰관 주재소에 검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진철주 등 수십 명의 군중이 주재소로 몰려가 김한정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1931년 12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1932년 1월에 일어난 ‘제주도 해녀 시위 운동 사건’을 취조하던 중 비밀 결사의 존재가 드러나 1932년 3월 제주도 전역에서 대규모 검거가 이루어졌다. 이때 체포된 김한정은 5월 12일 신재홍 등과 함께 목포형무소로 압송되었다.

23)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김한정은 1933년 2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6년 2월 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3월 2일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는 6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예배 방해’, ‘협박’, ‘주거 침입’ 및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36년 6월 26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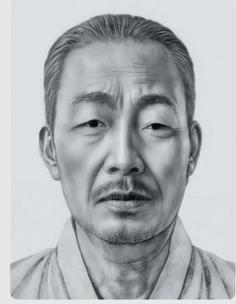
공훈전자자료관

동아일보(1925. 10. 1., 10. 3., 1931. 9. 17., 1932. 12. 11., 12. 14., 12. 16., 12. 20., 12. 25., 1933. 1. 15~16., 2. 8., 2. 10~11., 2. 21., 3. 3., 6. 7.)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흠, 2005) 306, 307면

김항률 (金恒律)

- 생몰년: 1890. 10. 5.~1924. 5. 20.
- 본작: 제주 좌영남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8)



김항률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력 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나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김항률은 당일 이종창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그는 시위대와 함께 강창규의 지휘 아래 중문의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김항률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7~149, 365, 424면

순국(순국선열유족회, 1994) 11월호 100~101면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6) 제9권 317면, 제12권 356~371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한금순, 2010) 67, 87~91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김형배 (金瑩培) 이명: 김형배(金滢培)

- 생몰년: 1901. 10. 22.~1944. 2. 9.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1993)



1919년 3월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귀향한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김장환으로부터 서울에서의 시위 상황을 전해 들은 김시범, 김시는 등은 조천 지역에서도 만세 운동을 계획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김용찬, 고재륜, 황진식 등 동지를 규합하였고, 당시 유림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았던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을 거사일로, 조천리에 위치한 미밋동산(만세동산)을 거사 장소로 합의하였다. 김형배는 김시범에게 대형 태극기 4매를 제작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태극기를 제작하며 시위 준비에 착수하였다.

3월 21일 김형배가 제작한 태극기에 김장환이 '독립 만세'라고 쓰고 이를 미밋동산으로 가져가 김시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들은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김형배는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다. 같은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7면
3·1 운동실록(이용락) 562-564면

김형수 (金炯洙) 이명: 김홍명(金弘明)

- 생 목 년: 1905. 2. 5.~1988. 8. 15.
- 본 작: 제주 제주 이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김형수는 1927년 4월 9일 제주면 삼도리 소재 자신의 집에서 고병희, 강기찬, 조대수와 함께 아나키즘 독립운동 노선의 비밀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매월 한 차례씩 모임을 갖고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동지 규합에 힘쓰는 한편, 1927년 10월 소비조합(消費組合)을 결성하여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독서회 회원들은 1929년 5월 우리계(宇利契)를 조직하였는데, 우리계는 표면상 '우의돈목(友誼敦睦), 애경상문(哀慶相問), 생활향상(生活向上)'을 표방하고 이면에서는 아나키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전통사회를 바탕으로 두고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 주목되는 점이었는데, 도청·은행·금융·조합·학교 등의 직원과 교원, 도내 유지들이 계원으로 대거 참여하였다. 그들은 1929년 9월 도내 각 마을에 야학을 설립하여 항일 의식을 고취하고 아나키즘 사상을 선전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 사실이 일본 경찰에 포착됨으로써 그는 1930년 7월 다른 동지들과 함께 붙잡혀, 같은 해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1931년 7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6월로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7. 14.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9권 614면
- 동아일보(1930. 12. 10.)
-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호룡, 제주학연구센터, 2016)

김 홍 규 (金弘奎)

- 생 물 년: 1916. 5. 12.~미상
- 본 작: 제주 애월 하귀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20)

1934년 8월 김홍규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 회원으로 활동했던 배창아와 함께 애월면 하귀리에 야학을 설립하였다.

이들은 야학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선전과 동지 획득을 목적으로 수십 명의 학생을 지도하였다. 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은 야학에 모여 「혁명가」, 「단결가」 등의 창가를 부르고 계급 의식을 고취하는 연설 등을 실행하였다.

이 무렵 제주에서는 강문일, 박영순 등도 같은 취지로 야학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김홍규는 1934년 12월 강문일 등과 공동전선 결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강연회를 조직하고 생도 연설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1935년 5월에 체포돼 같은 해 10월 10일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동아일보(1935. 8. 16., 8. 27.)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김희봉 (金喜奉)

- 생 목 년: 1907. 4. 16.~1991. 4. 22.
- 본 작: 제주 대정 신도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2006)



김희봉은 1926년 6월 제주공립농업학교 2학년 재학 중 일본인 교장서리 야나기다 히코지 [柳田彦二]의 민족 차별 언동에 항거하여 양공팔 등과 함께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1926년 6월 서울에서 6·10 만세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전국적으로 파급되면서 그 영향을 받아 1926년 6월 25일 제주공립농업학교 1, 2학년 학생 전원이 일본인 교장서리에 대해 배척하는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다. 그는 걸핏하면 한인 학생들을 차별하는 말을 일삼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오랫동안 불만이 쌓여 있었던 것을 동맹 휴학으로 표출하였던 것이다.

김희봉 등 동맹 휴학 주동자들은 일본인 교장서리의 이 같은 언동에 대해 전라남도 지사와 학무과장에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학교 직원회에도 진정서를 보냈다.

7월 12일 학교 당국은 동맹 휴학에 참여한 1, 2학년 학생 전원에게 무기정학 조치라는 초강경책을 썼다. 이에 동창회와 학부형회, 유지들은 긴급히 모여 대책위원으로 홍순녕 등 5명을 선출하여 학교 당국에 맞섰다. 일제는 결국 일본인 교장서리를 평안북도로 좌천시키고 동맹 휴학을 주도한 김희봉 등에게 퇴학 처분을 하였다.

학교를 퇴학당한 후 김희봉은 1931년 10월 일본으로 건너가 그해 11월 전국노동조합협의회 [全協] 섬유노조 와카야마지부 [和歌山支部] 책임자로서 항일 활동에 앞장섰다. 이때 같은 고향 김익휴를 만나 사회주의 서적을 탐독하며 사회 모순과 일제의 민족 차별에 공분을 느꼈다.

1933년 2월 일본인 니시무라(西村)의 권유로 일본공산당에 입당하여 기관지 『적기(赤旗)』의 배포책으로 활동한 김희봉은 와카야마 지역에서 노동 운동 등을 하던 중 1933년 4월 6일 숙소에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일제에 검거된 김희봉은 같은 해 7월 31일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기소되어 11월 21일 와카야마지방법재판소에서 징역 5년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고 항소하여 1934년 2월 5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오사카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동아일보(1926. 7. 1.)
- 수형인명부(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적부(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장)
- 근대일본사회 운동사인물대사전(편찬위원회, 1997) 제2권 334면

김희수 (金熙洙)

- 생몰년: 1899. 6. 5.~1985. 12. 3.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00)



김희수는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계속된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월 이래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하는 시위 운동이 있었다. 당시 서울 휘문고등 보통학교 학생 김장환이 서울에서 만세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시위 상황을 전하자 김시범, 김시는 등은 제주에서의 만세 운동을 계획하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때 김희수는 만세 시위의 계획을 듣고 적극 찬동하여 거사 준비에 동참하였다.

이들은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거사 장소는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신촌, 함덕리 등 인근 마을과 서당 학생들에게도 독립 만세 시위 계획을 알리며 다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21일 오후 3시경, 오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미밋동산에 모여들었다. 김시범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김장환이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김희수를 비롯한 시위 군중은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고창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연창하면서 시가지를 향하여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시위 군중은 출동한 일본 군경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으며, 김희수를 비롯한 중심 인물들이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이해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같은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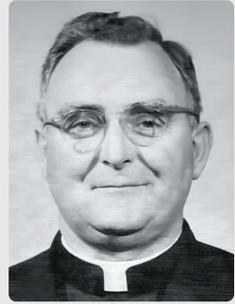
정부는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범죄인명부
명적표(대구감옥)

토마스 다니엘라이언(Thomas Daniel Ryan) 이명: 나 신부(羅神父)

- 생 물 년: (1907)~1971. 11. 20.
- 본 작: 아일랜드 메이요주 크로스 오모라이나
- 운동계열: 독립운동 지원
- 훈 격: 애족장(1999)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일명 나 신부)은 1934년 4월부터 서귀포 흥로 천주교회 신부로 근무하다 1937년 천주교회 본당을 흥로에서 서귀포로 이전하였다.

그는 1939년 봄부터 1940년 가을 사이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일본의 신문에는 일본군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그것은 전부 허위다. 중국이 영미의 원조를 받아서 사변이 장기화되면 일본은 패망한다. 이번에 한국에 지원병 제도를 만들어 한국인을 군으로 징집하는 것은 중일전쟁으로 일본 군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 되면 일본은 반드시 패전할 것이다’고 폭로하였다.

특히 1940년 가을 서귀포에 사는 강봉해에게 ‘현재 일본·독일·이탈리아 3국이 동맹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번의 영독전(英獨戰)에서 독일이 패전할 경우, 후일 일본은 영미에 의해 참혹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같은 무렵 서귀포 천주교회에서 신도 10여 명에게 ‘지금 일본이 승리하고 있어도 중국은 대국으로서 영미의 원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후에는 일본이 패전할 것이다’라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토마스 다니엘 라이언은 1941년 12월 유언비어 유포 혐의 등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제주도지(제주도, 1982) 하권 430면

제주도지(제주도, 1993) 제3권 710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Those Who Journeyed With us: St. Columban 선교회, 1918~1992년) 19면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문남규 (文南圭) 이명: 문남규(文南奎)

- 생 목 년: 1870. 6. 23.~1932. 1. 16.
- 본 작: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문남규는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항일 의식이 투철하였던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으며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들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문남규를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문남규는 동생인 문남은과 함께 선봉대에 참여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문남규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순국(1994. 11월호) 100면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문남은 (文南恩)

- 생 물 년: 1875. 6. 28.~1953. 6. 29.
- 본 작: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문남은은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김연일은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문남은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문남은은 형인 문남규와 함께 선봉대에 참여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군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문남은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문덕홍 (文德洪)

- 생몰년: 1902. 9. 19.~1949. 5. 12.
- 본적: 제주 한림 옹포
- 운동계열: 광복군
- 훈격: 애국장(1990)



1902년 9월 한림면 옹포리에서 태어났다. 문덕홍은 일제강점기 일본 선박의 선원으로 강제 징용되어 근무하던 중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정박했을 때 탈출하여 1941년 초 한국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였다.

그는 1942년 10월부터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부 산하 경위대 대원에 임명되어 1945년 1월 까지 활동하였다. 1943년 10월 2일 대한민국임시의정원에서 전라도 대표 의원으로 선출 되었으며, 한국독립당에 입당한 뒤 1944년에는 임시정부 재무부 총무과원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6월 서무국원을 겸직하였다.

그는 1945년 초 광복군이 미국 전략첩보국과의 합작을 통해 무전 교신과 첩보 활동을 위한 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되자, 부지대장 이복원, 구대장 박영준 등과 함께 지도 요원에 선발 되었다.

그리고 1945년 봄, 비밀공작원으로 국내에 특파되어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으나 조국 광복으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2권 719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2권 725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3권 279-608-612-694면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463-520-602-604-605-608-636-689-703-772-786-828-856-857-858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968-981면

문도배 (文道培)

- 생몰년: 1908. 12. 27.~1953. 6. 2.
- 본 작: 제주 구좌 세화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3)



문도배는 1930년 혁우동맹(革友同盟)을 조직하고 제주도 해녀들의 권익침탈에 항거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문도배는 1930년 3월 신재홍, 오문규, 김성오, 김순중, 김시곤, 강관순 등과 함께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하고 일본제국의 통치를 전복할 목적으로 혁우동맹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다. 여기에서 문도배는 여성부 책임자가 되었으며, 혁우동맹의 조직을 확대하고 해녀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중반 혁우동맹이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²⁴⁾로 발전하자 1931년 7월 여기에 가입하여 8월부터 독자적인 농민 단체와 해녀조합의 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1932년 1월 제주도 해녀들이 제주도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수탈과 경매가 하향에 대항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자 문도배는 신재홍, 오문규, 한형택, 한원택 등과 같이 이를 배후 지도하는 등 시위에 참여하다가 체포되었다. 일제 경찰은 이들의 공산주의 사상을 문제 삼으며 사상 사건으로 간주해 야체이카 회원들을 대대적으로 검속하였다.

그는 이 일로 1933년 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였다. 같은 해 6월 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조선일보(1932. 3. 4., 1933. 3. 4., 6. 8.)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1932. 12. 22., 12. 25.)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24)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문창래 (文昌來)

- 생몰년: 1885. 5. 15.~(1950)
- 본적: 제주 신우 애월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9)

문창래는 1919년 5월 제주도에서 조봉호의 권유로 조선독립희생회(朝鮮獨立犧牲會)에 몸담았다. 그는 문창숙 등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여 조봉호에게 전달하였다.

조선독립희생회 결성 경위는 이렇다. 조봉호는 서울에서 내려온 김창규로부터 조선독립희생회라는 단체가 서울에 조직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김창규는 조봉호에게 「선포문(宣布文)」을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집행관 총재 이승만 등 각료의 명단과 약법이 기재되어 있었다. 조봉호는 제주면 삼도리에 있는 최정식의 집에서 「선포문」 150매를 복사하여, 신좌면 등지의 면사무소에 배부하였다. 문창래는 이 과정에서 조봉호를 만나 조선독립희생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활동한 것이다.

문창래는 이로 인해 1919년 7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5일 광주 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정사범(政事犯)'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즉시 항소를 제기했고 11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19. 11. 12. 대구복심법원)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977~979면

박규훈 (朴圭薰)

- 생몰년: 1900. 7. 23.~1975. 8. 20.
- 본적: 제주 제주 이도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1992)



1900년 7월 제주면 이도리에서 태어난 박규훈은 1919년 3월 1일 당시 경성고등보통학교 4학년이던 재학 중에 서울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의 취지에 찬성하여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탑골공원에서 진행된 독립 선언 행사에 참가하였다. 다수의 시위 군중과 함께 탑골공원을 뛰쳐나와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그는 일본군 헌병과 일제 경찰의 무차별 총격에도 굴하지 않고 만세 시위를 벌이다가 붙잡혔다.

박규훈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미결 구류 일수 90일 분형 산입)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05~11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5~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4~106·140~143면

박두규 (朴斗圭) 이명: 박두규(朴斗奎)

- 생몰년: 1897. 6. 14.~1959. 2. 8.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애족장(2008)



박두규는 1897년 6월 제주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나 1919년 조천리 신명사숙의 교사로 재직 중 조천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서울에서 3·1 운동에 참여했던 김장환이 고향 제주로 돌아와 숙부 김시범 등과 만세 운동을 계획하자, 박두규는 동지로서 적극 참여하였다. 그는 군중을 동원하기 위해 신촌, 함덕 등 인근 마을에 연락하는 등 만세 시위 준비를 함께하였다.

1919년 3월 21일 오후 3시경 박두규, 김장환, 김시범 등은 인근 주민과 서당 생도 등 약 오백여 명과 조천리 미밋동산(만세동산)에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불렀다. 시위 대열이 큰길로 나서자 일제 무장대가 출동하여 주도자들이 체포되고 군중은 해산되었다.

다음날인 3월 22일 박두규는 김필원 등과 함께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하다 연행되었으며, 1919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이후 박두규는 1920년 10월 중순경 제주 성내에서 ‘신일본주의(新日本主義)’를 선전하던 국민협회(國民協會)의 총무 정병조에게 ‘협박장’을 보냈다가 다시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범죄인명부
- 매일신보(1919. 5. 1.)
- 신한민보(新韓民報)(1921. 4. 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626~628면
- 동아일보(1921. 3. 7.)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427~430면

박 상 준 (朴相俊)

- 생 목 년: 1911. 9. 3.~1986. 4. 11.
- 본 작: 제주 제주 도두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박상준은 1929년 전라남도 목포공립상업학교 4학년으로 재학 중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지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대대적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목포공립상업학교의 최창호, 이인형 등이 광주로 파견되어 진상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협력을 부탁받고 귀향하여 학교 독서 회원들과 협의,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박상준은 이인형에게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듣고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고자 동급생들과 만세 시위에 참가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11월 16일 박상준은 박사배, 임성춘 등과 함께 모임을 갖고 목포상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규합하여 동맹 휴학을 결행하고 시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들은 '총독부 폭압 정치 절대 반대', '치안유지법 철폐', '피압박 민족 해방 만세' 등의 큰 깃발을 제작하였다.

1929년 11월 19일 양재욱이 준비한 등사판을 이용하여 '이천만 피압박 민족 여러분',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라는 제목의 격문 등을 수천 매 인쇄하였다. 그들은 수업 시간 중에 거리로 뛰쳐나가 목포역전까지 시가행진하며 격문을 살포하고, '총독부 폭압 정치 절대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미리 만든 깃발을 흔들며 시위하다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1930년 3월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같은 해 11월 2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0. 3. 20. 광주지방법원)

판결문(1930. 11. 20. 대구복심법원)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565~570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67~273면

예심종결결정서(1930. 2.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9권 411~414-437-442면

동아일보(1929. 12 28., 1930. 1. 9., 3. 4., 11. 3., 12. 3., 3. 16.)

박 세 현 (朴世賢)

- 생 목 년: (1881)~미상
- 본 작: 전남 장흥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애족장(2018)

박세현은 3·1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난 직후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격문을 붙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전라남도 장흥군 출신의 박세현은 제주군 구우면 저지리로 이주하여 한문서당을 운영하였다. 그는 일제의 국권 침탈 소식을 듣고 국권 회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좌면 조천리 일대에서 김장환, 김시범, 김시은 등의 주도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열렸다. 3월 21일 약 육백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일본 무장대에 의해 시위 군중은 해산되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조천리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전개된 이후, 구우면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서당 학생들을 모아 시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격문 사건이 발생하였다.

구우면 저지리의 서당 훈장 박세현과 낙천리의 훈장 김여석, 조무빈, 신촌리의 훈장 신계선 등은 의기투합하여 거사 전에 ‘항일 의거의 고사(告祀)’라는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 도민들의 쫓기를 촉구하게 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정사범(政事犯)’ 및 ‘도수규칙(屠獸規則)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수형인명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87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30~231면

박영순 (朴榮淳) 이명: 박영순(朴英淳)

- 생몰년: 1916. 7. 12.~1947. 4. 2.
- 본작: 제주 애월 하귀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건국포장(1995)

박영순은 1933년 8월 제주도 애월면 하귀리에서 강문일 등과 함께 야학을 운영하며 민족 의식을 고취하였다.

평소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그는 일본에서 전기 제작 공장에 근무하던 중 같은 고향 출신 김귀영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사상에 공감하게 되었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실천 방침으로써 무산 아동들에게 항일 의식을 주입하기로 강문일과 뜻을 모으고 귀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1933년 8월에 고향인 하귀리에서 야학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 통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또한 1934년 12월에는 야학을 발전 시키고자 이웃 마을에서 김홍규, 김을봉 등이 운영하던 야학과 통합하면서 야학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통합 후 그는 육십여 명의 학생들에게 민족 사상을 전파하면서, 일제의 수탈에 의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달성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방편으로 「이천만가(二千萬歌)」, 「혁명가(革命歌)」, 「단결가(團結歌)」 등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고, 1935년 10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1936년 6월 2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6. 6. 25. 대구복심법원)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형사사건부

박인생 (朴仁生) 이명: 박인성(朴仁性)

- 생몰년: 1903. 8. 19.~1929. 5. 12.
- 본작: 제주 표선 성읍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05)



박인생은 광주공립농업학교를 나와 1926년 11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출신 장재성, 왕재일 등과 학생 비밀 결사 성진회(醒進會)를 조직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평소에 일제의 조선 지배에 반감을 품고 독립을 꿈꾸었으며 민족의식이 강했고, 당시 지식층 사이에서 광범하게 수용되고 있던 사회주의 사상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성진회는 '일제의 기반에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일제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절대 반대한다',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요구한다' 등을 강령으로 삼았다. 박인생은 성진회의 서기를 맡아 회의 운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성진회는 회원 중 한 사람이 광주경찰서 형사와 혈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어, 결사 5개월 만인 1927년 3월 정남균의 집에서 전술상 해산을 결의하였다. 이후 비밀 보장을 위해 모임을 갖지는 않았지만 구성원들은 각 학교 단위로 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정부는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489~490면
- 판결문(1930. 10. 27. 광주지방법원)
- 광주학생독립운동사(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1974) 42·10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권 1628면
- 예심종결결정서(1930. 7. 26. 광주지방법원)

박재하 (朴宰夏)

- 생몰년: (1881)~미상
- 본적: 제주 좌중문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19)

1919년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주민들은 1919년 3월 8일 장날을 맞이하여 ‘독립 만세 운동’을 추진했지만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었다가 3월 10일 광주교(光州橋) 아래에서 일어났다. 이날 만세 운동은 기독교인들과 송일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되었다. 수백 명의 시위 군중은 오후 3시 반경 장터를 향해 만세를 외치며 갔다.

장터에는 만세 운동 소식을 들은 송일학교, 수피아여학교, 광주농업학교 학생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그 수는 천여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광주경찰서 등을 찾아가 ‘독립’을 외쳤다. 일본 경찰들은 무력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하지만 시위는 3월 13일까지 이어졌다.

박재하는 3월 10일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4월 30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4. 30. 광주지방법원)
- 매일신보(1919. 5. 4.)

박주석 (朴周錫) 이명: 박명수(朴明洙)

- 생몰년: 1864. 2. 17.~1921. 7. 24.
- 본 작: 제주 구우금악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국장(1995)



박주석은 1918년 10월 7일 제주 법정사(法井寺)의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과 함께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으며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등의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하고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박주석은 이 과정에서 8월 말 법정사 승려 방동화가 찾아와 거사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9월 8일 법정사로 가서 항일 운동 준비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이때 박주석은 모사(謀師)의 임무를 맡았다. 조직 편성 후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때 박주석은 선봉대로 도순리, 영남리, 서호리, 호근리 등 각 마을에서 참여자 모집에 앞장섰다.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1921년 7월 24일에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순국(1994. 11월호) 94-95면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방 동 화 (房東華) 이명: 방하룡(房河龍)

- 생 목 년: 1887. 8. 8.~1970. 12. 28.
- 본 작: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방동화는 제주 법정사(法井寺) 승려로 1918년 10월 7일 승려 김연일, 강창규 등과 함께 항일 무력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망국의 한을 품고 종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다. 1913년 육지로 건너가 경상도 일대의 기림사와 대승사 등지의 사찰에서 득도한 뒤 1918년 봄 법정사에 돌아와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를 통하여 항일 의식을 길렀다.

방동화는 1918년 봄에 김연일, 강창규 등 승려들과 함께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하였으며, 점차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하였는데 이때 방동화는 좌대장을 맡았다. 조직 편성 후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본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고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주민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방동화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방동화는 은신생활을 하다 붙잡힌 후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국(1994. 11월호) 94-95면

형사사건부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배창아 (裵昌兒) 이명: 배두봉(裵斗鳳)

- 생몰년: 1913. 11. 3.~(1955. 3. 7.)
- 본 작: 제주 애월 하귀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19)



배창아는 일찍이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日本労働組合全國協議會), 일명 전협에 가입하여 노동 운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4월 22일 오사카 니시요도가와구[西淀川區]에 위치한 오즈다케바야시[小津武林]라는 방직공장에서 한인 여공 36명을 무단 해고한 데 항의하여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무단 해고 반대와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회사 측이 이를 묵살하자, 같은 해 5월 14일에 다시 시위 운동과 공장 내 농성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당시 배창아는 이를 배후에서 지도한 주모자로 지목되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위반’으로 기소되었다. 1933년 4월 18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징역 6월(미결구류 100일 통산)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향으로 돌아온 배창아는 1934년 8월 애월면 하귀리에서 김홍규와 함께 야학을 설치하고 30여 명의 청소년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 무렵 제주에서는 일본에서 돌아온 강문일, 박영순 등도 같은 취지로 야학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해 12월 서로 공동전선을 펴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강연회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천만가(二千萬歌)」, 「혁명가(革命歌)」, 「단결가(團結歌)」 등의 노래를 가르치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고, 강연회를 통해 운동 자금을 모은 후 생도연설회,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1935년 어린이날 운동회에 외도리주재소와 제주경찰서에서 총동원되어 선생과 학생 백여명을 검거하였다. 8월 13일 그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으로 송치되었으며 23일 김을봉과 함께 기소유예로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민중시보(1935. 8. 1.)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5. 8. 16.)

백응선 (白膺善)

- 생몰년: 1896. 3. 27.~1920. 3. 28.
- 본적: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건국포장(1992)

백응선은 1896년 3월 제주 신좌면 조천리에서 태어나 1919년 상업에 종사하던 중 조천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21일 조천리 미딿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을 비롯한 동지들, 주민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쳤다. 참여자 중 일부는 조천 비석거리, 일부는 신촌리를 향하여 시위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일제 헌병들이 출동, 주도자 13명이 연행되면서 시위는 종료되었다.

백응선은 3월 22일은 박두규, 김필원 등과 함께 전날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대를 이끌고 신촌리를 향해 행진하였다. 다음날인 23일은 김연배와 이문천,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부르며 함덕리까지 행진하였는데, 일제 헌병이 출동하여 주도 인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후 백응선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출옥 6개월 후인 1920년 3월 28일 2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정부는 199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이농문집(김봉옥, 1989. 2. 1.) 334-335면
제주도지(상)(제주도, 1982. 2. 10.) 391-392면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북제주군지 214-215면

변성현 (邊聖現)

- 생 물 년: 1916. 12. 24.~1938. 12. 12.
- 본 작: 제주 서귀 법환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06)



변성현은 서귀포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야학 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31년 3월 서귀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33년경 김춘지의 지도를 받아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34년 6월 서귀면 법환리, 속칭 막원포(막숙) 해안에서 사회과학연구회라는 독서회를 조직하여 마을 청년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변성현은 독서회 회원들과 수차례 모임을 갖고 민족의식의 고취, 일본 제국주의 비판, 무산자 계급 의식 고양 등을 주요 주제로 토론하고 일제의 차별 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집안에 야학을 개설하여 소년과 여성들의 문맹 퇴치에 앞장섰으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품앗이 형태의 갈개²⁵⁾계를 조직하여 농민들의 생활 개선을 지도하는 등 농민 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변성현은 1935년 6월경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35년 10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1937년 6월 4일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 365일 통산)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7.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25) 갈개(갈개): ‘호미’의 제주 방언.

변태우 (邊太祐)

- 생 목 년: 1899. 8. 5.~1965. 2. 7.
- 본 작: 제주 대정 하모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1993)



천주교인이었던 변태우는 1923년 의생 시험에 합격하여 고향에서 의업에 종사하던 중 1934년부터 제주읍 천주교회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던 아일랜드인 선교사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과 교류하였다.

그는 1938년 가을경, 패트릭 신부로부터 대정면 모슬포 소재 해군 비행장의 면적, 주둔군 인원, 비행기 대수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는 대로 상세히 답해 주었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우선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변태우는 위의 문답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1941년 말 손 신부 등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방보안법(國防保安法) 및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부 기 준 (夫己準)

- 생 물 년: 1911. 11. 11.~1952. 8. 1.
- 본 작: 제주 조천 북촌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8)

1929년 10월 나주역에서 통학하던 한일 학생들 간의 충돌이 11월 3일 광주에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과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학교 학생들 사이에 집단 충돌을 초래하여, 민족 차별 교육에 반대하고 일제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만세 시위로 이어졌다.

부기준은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7일경,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한 소식을 손울기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지지하는 같은 학교의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그는 같은 학교 2학년생 정부균과 협의하여, 먼저 학교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9일 만세를 부르며 일제히 동맹 휴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손울기와 함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희생자의 무조건 석방, 언론·집회의 자유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동맹 휴학을 진행하려 했으나, 당일 아침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좌절되었다. 당시 부기준은 조선학생전위동맹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1930년 1월 18일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잠시 피신해 있다가 1930년 3월 28일 일본으로 건너가, 4월 6일 히로시마현[廣島縣] 구레시[吳市]에 있는 사립 고분중학교 5학년에 편입하였다. 그러나 5월 7일 구레시로 출장 온 종로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어 11일 밤 종로서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취조 결과, 계획 단계에서 그쳤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아 30일 후 석방되었다.

부기준은 1931년 4월 22일 중앙청년동맹 북구지부 정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으나, 같은 해 7~8월경 박영희 등이 중심이 된 '프로예술동맹의 격문 배포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8월 말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동아일보(1930. 4. 5.)

매일신보(1930. 5. 13.~14., 6. 1.)

조선일보(1930. 5. 13.~14., 1931. 8. 24.)

사상(思想)에 관한 서류(書類)(1)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철(情報綴)(6)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情報) 부분(副本)

배재고등보통학교 학적부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2003) 제53권 243~248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908면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홍, 2005) 349면

부덕량 (夫德良)

- 생몰년: 1911. 11. 5.~1939. 10. 4.
- 본적: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건국포장(2005)



부덕량은 1911년 11월 제주 구좌면 하도리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13세부터 해녀 물질에 종사하며 하도보통학교 부설 야학인 하도강습소를 다녔다. 교육을 받으면서 민족과 계급에 대해 이해하고, 해녀들의 노동 가치에 대해 자각하였다.

부덕량은 제주 해녀로서 1932년 1월 7일과 12일 제주도 구좌면에서 제주도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제주에는 관제조합인 해녀어업조합의 부정으로 해녀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에 제주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고 부당한 해녀어업조합에 맞서 나갔다. 이는 점차 시위 투쟁으로 발전하였고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1932년 1월 7일과 12일 구좌면 세화 장터에서는 일천여 명의 해녀들이 세화주재소의 저지를 뚫고 호미와 빗장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부덕량은 시위 이후 일제 경찰이 해녀들과 제주출신 민족운동가를 체포하려는 것을 저지하려다가 붙잡혀 목포경찰서로 이송되어 6개월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1932년도 형사피의자색인부(제2-1호·제2-2호)
- 조선일보(1932. 1. 28., 3. 4.)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85·287·289-302면
- 공적서(김전근,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장, 2004)
-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현상호, 1950)

부 덕 환 (夫德煥)

- 생 물 년: 1908. 3. 12.~1944. 7. 5.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2000)



부덕환은 20세가 되던 해인 1927년 9월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가죽공장 등에서 일하였다. 그는 1931년 6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산업노동조합 오사카지부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일제의 탄압에도 임금 차별 철폐, 노동 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썼다.

그는 1932년 7월 재일본조선청년동맹(在日本朝鮮靑年同盟) 해산 후 새롭게 합류한 한인 청년들이 소속된 일본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여 일제 타도와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다. 당시 일본공산청년동맹은 한국과 일본 사회주의자들이 연계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1932년 8월 이 동맹의 중앙위원회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 침탈의 날에 전조선 노동자, 청소년에게 보냄’이라는 격문을 제작 배포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한일 노동자 청년들의 공동 투쟁을 제의하였다. 이들은 공장 내 노동 청년에게 공산주의 이론을 교육하고 선전하였으며, 청년 동지를 규합할 목적으로 화학산업노동조합 내부에 공산청년동맹 조직을 구성해 활동하였다.

부덕환은 이와 같은 일본 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의 관서지방위원회 오사카시위원회 남지구(南地區) 산하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중 1933년 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1934년 6월 18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범죄인명부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제4권 999-1003면
- 일본 법무성 회신문(주일대사관, 1996. 1. 31.)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별집 제3집 435면
- 수형인명부(조선총독부재판소)
- 조선인의 공산주의운동(사법성형사국, 1939) 135면

부 동 흥 (夫東興)

- 생 목 년: 1927. 12. 4.~1999. 5. 26.
- 본 작: 제주 구좌 동복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대통령표창(1995)



부동흥은 1942년 7월 일본 오사카[大阪]의 동아전기공업학교에 재학 중 학교와 일상에서 차별 대우에 분노하고, 한인의 자유와 행복,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조국을 재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한인 학생 나가노 요시오[中野吉雄]·정주식[杉山周植] 등과 함께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오사카와 히로시마[廣島] 지역의 한인 학우를 동지로 규합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자주 회합을 가지며 민족의식을 키웠다.

그들은 ‘첫째, 일본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이 시기에 독립 쟁취를 위해 봉기해야 한다. 둘째, 만주에 본부를 설치하여 독립국민군(獨立國民軍)을 편성한다. 셋째, 만주를 조선의 영토로 한다. 넷째, 이(李) 왕가는 매국(賣國)의 책임자로 처단하고 공화국으로 독립을 실현한다.’는 네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동 조직으로부터 계몽 소설의 창작, 한국 농촌의 실정과 사상운동 상황 파악, 제주 지역 진출 후 탈출 루트 탐색 등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고 일시 제주도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 위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제주 지역의 진출과 탈출 루트 탐색을 위한 조사 활동과 함께 의식 계몽 활동을 전개하던 도중 일본 경찰에 의해 발각, 1943년 11월 25일 붙잡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 松浦總三 편) 제8권 244~246면
- 중앙일보(1984. 4. 16.)

부 두 전 (夫斗 栓) 이명: 부림전(夫林栓)

- 생 물 년: 1920. 2. 7.~1977. 11. 24.
- 본 작: 제주 조천 북촌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1990)



부두전은 니혼대학[日本大學] 오사카전문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0년 5월, 일본 오사카에서 김봉각, 강금중, 김병목 등의 동지들과 함께 동포를 계몽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공부하며 어떠한 곤란도 무릅쓰기로 의기투합하여 흥아동지회(興亞同志會)라 불리는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흥아동지회에서 그는 동지 규합의 책임을 맡고 활동하였다.

이후 국제 정세의 압박과 국내의 물자 수급 문제에 따라 조직 활동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같은 해 5월 26일 계림동지회(鷄林同志會)로 개칭하였다.

계림동지회는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동지들의 공고한 결집이 요청되며 지식인층을 규합하여 지도 체제를 확립한 후 적시에 봉기한다는 운동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니혼대학 오사카전문학교 관계자를 중심으로 하여 학내 구성원을 확보하는 등 조직 강화에 힘쓰던 중 그를 비롯한 동지들은 1941년 2월 26일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42년 10월 9일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수형인명부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松浦總三 편) 제7권 139~143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12권 762~765면

사상월보 제98호(대판지방법재판소 보고: 1942. 9. 10)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305~1310면

부병각 (夫秉恪)

- 생몰년: 1898. 12. 13.~1963. 4. 11.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18)



부병각은 1919년 3월 1일 이래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호응하여 제주 조천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의 3·1 운동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에 걸쳐 나흘 동안 전개되었다. 당시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김장환이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시위 상황을 전하며 숙부 김시범, 김시은 등과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고,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3월 21일 부병각을 비롯한 인근 주민과 서당 학생 등 약 오백여 명이 조천리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모였다. 김시범이 큰 태극기를 만세동산 마루에 세우고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선언서 낭독 후 군중들은 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연창하며 시가지를 향해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으나, 출동한 일본 군경에 의해 강제 해산당하고 주도자들은 체포되었다.

부병각은 이와 같이 조천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으며, 1919년 4월 26일 광주 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수형인명부(1919. 4. 26.)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30~231면

부병준 (夫丙準)

- 생 물 년: 1906. 12. 12.~1952. 2. 7.
- 본 작: 제주 조천 북촌
- 운동계열: 문화운동
- 훈 격: 애족장(1990)



부병준은 1928년 3월 서울에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에 가입하여 서무부원으로 활동하다가 1929년 4월 조선공산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중앙간부회의에서 학생부 책임자로 임명되어 휘문고등보통학교, 배재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의 야체이카²⁶⁾를 조직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청년총동맹이 파견한 진상조사위원이 되어 광주에서 동맹 휴학을 지도하다가 ‘학생 전위 동맹 사건’으로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겪었다. 그는 1930년 8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 면소로 풀려나 제주도로 귀향하였다.

1933년 2월 부병준은 김일준, 부생종 등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향동회(鄕同會)와 민풍진흥회(民風振興會)를 조직하고 각 지역별로 분담하여 독립사상의 고취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3년 3월 김일준, 부생종과 회합하여 독서회를 조직하고 기성조직과 합세하게 하였다. 이후 야학을 개설하여 부녀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민족역사의 교육을 통한 구국 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8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부병준은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기려수필 412면

26)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부생종 (夫生鍾) 이명: 부영화(夫永華)

- 생몰년: 1909. 8. 25.~1936. 6. 29.
- 본적: 제주 조천 함덕
- 운동계열: 문화운동
- 훈격: 애국장(1991)



부생종은 1928년 조천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일본에서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면서 민족의식을 자각하였다.

그는 1931년 1월 제주에서 김일준과 함께 함덕 출신 항일 운동가 한영섭의 장례식 때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며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고, 그를 애도하는 기념비를 건립하려다가 비문에 독립사상이 있다 하여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그는 이로 인해 1931년 12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1933년 2월 부생종은 김일준과 함께 항일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향동회(鄉同會)와 민풍진흥회(民風振興會)를 조직하여 입회하고, 농민조합을 조직하여 애국 동지 포섭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34년 3월에 김원근의 집에서 독서회를 조직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글과 민족 역사를 가르치며 구국 운동을 전개하다가 1934년 8월 일제 경찰에 붙잡혀 잔혹한 고문을 받고 1936년 6월 29일 목포형무소에서 옥사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부 승 림 (夫升琳)

- 생 목 년: 1905. 4. 30.~1980. 5. 7.
- 본 작: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18)

부승림은 1920년대 중반 구좌면 하도리 하도강습소에서 부덕량을 비롯한 부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산수 등을 가르쳤다.

그는 1930년 9월 20일경 구좌면 세화리에 있는 김시화의 집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논의 끝에 비밀 결사 민중운동자협의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제주에서는 일본 관리들이 해녀들을 가혹하게 대우하고, 일제의 관제조합(官製組合)인 해녀어업조합(海女漁業組合)이 뇌물을 제공한 일본인 상인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해산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해녀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이에 제주도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海女會)를 조직하고 해녀어업조합에 맞섰다.

이에 부승림은 11월 4일 밤 오문규, 채최선, 오동진 등과 함께 구좌면, 정의면 일대에 관제조합의 무리한 행위를 규탄하는 격문을 배포하였다가 제주경찰서에 체포되었다. 그는 ‘협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송치되어, 12월 19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벌금 30원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해녀들의 항일 투쟁은 특히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 1931년 12월 20일 부승림 등 민중운동자협의회 관계자들과 부춘화, 부덕량, 김옥련 등의 해녀들이 모여 요구조건과 투쟁 방침을 결의하였다. 1932년 1월 7일 구좌면 세화 장터에서 1차로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어서 12일에는 당시 제주도사(濟州島司)이자 해녀어업조합장이었던 다구치 데이키(田口禎熹)의 세화리 시찰을 기해 호미와 전복 채취 도구인 빗창을 들고 총궐기하여, 해녀어업조합의 부당한 침탈 행위를 규탄하는 대규모 항일 시위 운동을 전개하였다. 결국 이들은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다구치와 담판을 벌여 지정 판매 반대와 공정한 입찰, 조합비 조정, 조합 재정 공개, 손해배상 등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켰다.

1월 24일에는 해녀들이 세화주재소로 몰려가 투쟁하다가 29명이 검거되었다. 이러한 해녀 투쟁의 배후에 민중운동자협의회라는 비밀 결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일본 경찰은 전라남도경찰부의 지원을 얻어 26일 11명의 남성을 검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승림도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들의 체포를 막기 위해 팔백여 명의 해녀들이 우도에서 온몸으로 맞섰고 일본 경찰은 공포탄까지 10여 발을 쏘면서 이를 저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시 다수의 해녀들이 체포되었다.

이들 가운데 민중운동자협의회에 관련된 27명은 1932년 5월 14일 목포로 압송되어 예심에 회부되었다. 부승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6월 15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수형인명부
- 형사사건기록보존부(刑事事件記錄保存簿)
- 형사피의자색인부(1932) 제2-1호 및 제2-2호
- 조선일보(1930. 12. 11., 1932. 1. 28., 3. 4.)
- 동아일보(1932. 5. 22.)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85~302면
- 독립유공자공훈록(부덕량·부춘화·김옥련 항목)
-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현상호, 1950)

부장 환 (夫章煥)

- 생 목 년: 1914. 6. 27.~1988. 12. 2.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건국포장(2005)



1931년 일본으로 건너간 부장환은 1932년 2월 시마나가 노부오[島中信雄]의 권유로 일본 노동조합전국협의회(이하 전협) 출판노동조합 오사카[大阪]지부에 가입하여 지부위원, 관서(關西)위원회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어 같은 해 4월 비밀 조직인 공산청년회에 가입하였고, 전협 출판노조에서 사회 운동 이론을 지도하고 동지를 규합하는 임무를 맡아 활발히 활동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사범학교내 결성된 사회과학연구그룹에서 사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회과학 서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 일은 1932년 4월 일제 경찰에 탐지되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장환은 이후 한국인 출판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시위 활동, 순회교육, 전단지 살포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힘썼다.

1933년 1월 일제의 탄압으로 출판노동조합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조직 재건에 힘썼으며, 전협 확대위원회 책임자 오영수, 김광수, 유원식 등과 함께 출판관서지부를 결성하고 중앙에서 파견된 조직원 야마다 가레오[山田包夫]와 협력하여 조직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그러나 오영수와 유원식 등이 붙잡히면서 뜻대로 활동을 펼 수 없게 되자, 그는 신문 판매점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충하려는 재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1933년 6월 체포되어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수형인명부
- 조선인의 공산주의운동(사법성 형사국, 1939) 138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1993) 제4권 1003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324-336-390-1047-1048면
- 한국공산주의운동사(김준엽-김창순, 1986) 제5권 234면
- 범죄인명부

부춘화 (夫春花)

- 생 물 년: 1908. 4. 6.~1995. 2. 24.
- 본 작: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2003)



부춘화는 1908년 4월 6일 제주 구좌면 하도리에서 태어나 15세 무렵부터 해녀 물질을 하였다. 그는 1927년 하도보통학교 부설 야학인 하도강습소에서 김순중, 오문규 등으로부터 신지식 교육을 받으며 해녀 노동의 가치에 대해 자각하고 민족의식을 갖게 되었다.

1928년에는 구좌면 해녀조합 대표에 선임되었다. 당시 일제에 어용화²⁷⁾된 제주도해녀 어업조합은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불공평한 조건으로 매입하고 무리하게 조합비를 징수하는 등 해녀들의 권익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일제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부춘화는 김옥련, 부덕량과 함께 투쟁하기로 결의하고, 1932년 1월 7일 해녀들을 규합하여 하도리에서 세화 장터 까지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후 1월 12일 구좌면 세화리에서 해녀들과 집결하여 호미와 빗창을 들고 '우리들의 요구에 칼로써 대응하면 우리는 죽음으로써 대응한다'고 외치며 해녀조합의 부당한 침탈 행위를 규탄 하는 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제주도사(濟州島司)와 담판을 벌여 요구 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1월 26일 해녀들과 제주 민족운동가의 검거를 저지하려다 붙잡혀 6개월 정도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조선일보(1932. 1. 28., 3. 4., 5. 1.)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285-287-289~302면
- 제주해녀항일투쟁실록(제주해녀항일투쟁기념사업추진위원회, 1995)
- 제주도 해녀투쟁의 사실(현상호, 1950)

27) 어용화: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 세력, 특히 권력자나 지배 세력의 뜻에 맞춰 움직이도록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현상.

어거스틴 스위니(Augustin Sweeny) 이명: 서 신부(徐神父)

- 생 목 년: (1909)~1980. 1. 19.
- 본 작: 영국 맨체스터
- 운동계열: 독립운동 지원
- 훈 격: 애족장(1999)



어거스틴 스위니(일명 서 신부)는 1936년부터 제주도 서귀포 서흥리 천주교회 신부로 재직하면서 주민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1939년 2월부터 1941년 11월 사이에 교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면서 저지른 만행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장기화되면 물자 부족으로 일본이 패전할 것이며, 일본군의 전황 보도는 모두 허위라고 폭로하였다.

1941년 2월경 자신의 집을 방문한 신도 강군평에게 ‘장차 영국과 전쟁이 일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일본은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장기화될 경우 영미와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장기화를 피하는 일본이 패전하는 것은 확정적이다’라고 일본의 패전을 예언하였다.

11월경에는 제주읍에 사는 한 교인에게 일본이 일본군의 중국 점령지역을 모두 반환하라는 영미 양국의 요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영·소 3국이 공동으로 일본을 포위 공격할 목적으로 남양(南洋) 방면에 다수의 군함을 대기시키고 있으며, 2년 이내에 일본군이 패망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였다.

서 신부는 이러한 활동으로 1941년 12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禁錮)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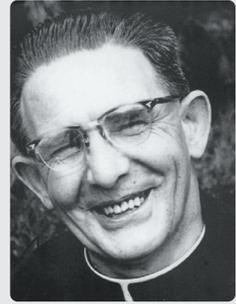
제주도지(제주도, 1982) 하권 430면

제주도지(제주도, 1993) 제3권 710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Those Who Journeyed With Us : St. Columban 선교회, 1918~1992년) 19면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패트릭 도슨 (Patrick Dawson) 이명: 손 신부(孫神父)

- 생몰년: 1905. 8. 18.~1989. 2. 9.
- 본적: 아일랜드 도네갈 레터케니
- 운동계열: 독립운동 지원
- 훈격: 애국장(1999)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은 1934년부터 제주도 삼도리 천주교회 신부로 재직하면서 주민들에게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평소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동양에서 천주교 포교는 불가능할 것이며, 일본이 패배하면 한국은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동양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1939년 가을부터 1941년 9월 사이에 여러 차례 교인들에게 당시 신문과 라디오 방송의 중일전쟁 관련 소식은 허위보도라며 비판하였다. 일본군은 물자가 부족하여 장기전에서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등 일본의 패배를 예언하여 교인들에게 독립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1939년 4월경 목포천주교회에서 열린 전라남도 천주교 선교사 집회에서는 '일본 신문에 의하면 일본군은 창사[長沙]까지 진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상하이[上海]의 라디오에서는 창사 전투에서 일본군의 패전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의 신문 보도는 허위이다'라고 중일전쟁 관련 허위보도를 비판하였다. 10월경 제주읍에 사는 청년 신도인 허봉학에게 '이번 중국사변에서 일본도 많은 군대를 상실하여 특별지원병이라는 명목하에 한국인을 군인으로 보충하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1941년 8월경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초등학교생에게 '우리 천주님은 천황보다 위대하다. 진무(神武) 천황(天皇)은 처를 두 사람이나 두고 있었다'라고 일왕을 비난하였다. 9월 14일경 허봉학이 자신의 집 벽에 걸어둔 '황실 사진'을 설명하자 그에게 '너도 쇼와[昭和] 천황이 되려는가' 하고 야유하였다. 이 일로 그는 재판받을 때 '불경죄'가 추가되었다.

손 신부는 1941년 12월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1942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불경죄' 및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과 '국방보안법(國防保安法) 및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으로 각각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두 선고가 병합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9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제주도지(제주도, 1982) 하권 430면

제주도지(제주도, 1993) 제3권 710면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Those Who Journeyed With us: St. Columban 선교회, 1918~1992년) 19면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송을생 (宋乙生)

- 생몰년: 1877. 3. 23.~1975. 10. 10.
- 본적: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1)



송을생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괄이 그리고 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10월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서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포박하고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송을생도 이 같은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신계선 (愼啓善)

- 생 물 년: 1875. 12. 6.~1950. 6. 14.
- 본 작: 제주 신좌 신촌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8)

신계선은 1919년 당시 마을에서 서당 훈장으로 외세 침략에 대한 저항과 민족 독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3월 말 신좌면과 구우면을 중심으로 만세 운동을 계획하다가 붙잡혀 옥고를 겪었다.

제주도의 3·1 만세 운동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신좌면 조천리 일대에서 김장환, 김시범, 김시은 등의 주도로 대규모 만세 시위가 열렸다. 3월 21일 육백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곧 이어 출동한 일본 무장대에 의해 시위 군중은 해산되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조천리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전개된 이후, 구우면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서당 생도들을 모아 시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격문사건이 발생하였다.

구우면 저지리의 서당 훈장 박세현과 낙천리의 훈장 김여석, 조무빈, 신촌리의 훈장 신계선 등은 의기투합하여 거사 전에 ‘항일 의거의 고사(告祀)’라는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 도민들의 쫓기를 촉구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정사범’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30~231면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87면

신재홍 (申才弘)

- 생몰년: 1900. 12. 15.~1960. 12. 25.
- 본적: 제주 구좌 연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국장(2005)



신재홍은 신문기자로 재직하던 중 1927년 2월 조선공산당에 입당해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선공산당의 방침에 따라 군 단위의 청년동맹과 농민동맹을 조직하는 데 주력한 결과 1928년 4월 제주청년동맹이 조직되었다.

1928년 8월 제4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 때 검거를 면한 그는 1930년 3월 고향인 제주에서 항일 비밀 결사 혁우동맹(革友同盟)을 조직하고 상임위원 겸 농민부의 책임을 맡아 농촌 청년과 해녀, 소년·소녀 등을 대상으로 항일 민족의식과 사회주의 사상을 고취하면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신재홍은 항일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1931년 5월 말 혁우동맹을 해체하고 도내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²⁸⁾를 조직하여 구좌면과 정의면 일대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각지에서 농민회와 비밀 결사들을 조직하였는데, 신계선은 같은 해 7월 강관순 등과 함께 비밀 결사 '적(赤)'을 조직하여 청년동맹, 해녀회, 농민회 등에 대해 사회주의 사회 건설과 항일 투쟁 방향을 지도하였다.

1932년 1월, 제주도 야체이카는 제주도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제주도 해녀 투쟁'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조종하였다. 당시 관제조합인 해녀어업조합의 부정으로 해녀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제주도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고 부당한 해녀어업조합에 맞섰다. 해녀 투쟁은 특히 신재홍이 담당하는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1932년 1월 7일과 12일 구좌면 세화 장터에서는 천여 명의 해녀들이 세화주재소의 저지를 뚫고 호미와 빗장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8)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신재홍은 제주 해녀 투쟁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제주도지(1993) 제1권 1147면
-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 우도지(우도지편찬위원회, 1996) 394~397면
- 조선일보(1932. 3. 4., 5. 1., 12. 27., 1933. 2. 8., 2. 20., 3. 4., 5. 23., 6. 8.)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301면

신찬익 (申璨翊)

- 생 목 년: 1912. 8. 1.~1969. 3. 13.
- 본 작: 제주 구우 대림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건국포장(1993)



신찬익은 1929년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당시, '사상 불순'을 이유로 졸업 직전 퇴학당한 동급생 김원요가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한 일로 졸업식장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이후 동급생 신창진과 양두옥이 같은 이유로 유급 처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신찬익은 학교 당국의 차별과 강압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일제의 교육 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로 몰려가 퇴학 및 유급 조치의 부당함을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다른 동료 학생과 함께 붙잡혀, 1931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 형사사건부(19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8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면
- 동아일보(1931. 3. 11., 3. 14., 8. 30.)

신 창 진 (慎昌珍)

- 생 물 년: 1914. 2. 20.~1940. 7. 5.
- 본 작: 제주 구좌 월정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건국포장(1993)

신창진은 1929년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직전에 학교 당국으로부터 동급생 양두옥과 함께 유급 조치를, 김원요는 퇴학을 당하였다. 평소 일왕(日王)의 ‘칙어’를 학교 의식 때 낭독해도 묵념하지 않는 등 불순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욱이 김원요는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한 일로 졸업식장에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제주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신창진은 학교 당국의 차별과 강압 정책에 불만을 가졌던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일제의 교육 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로 몰려가 유급 조치의 부당함과 김원요의 수감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그는 이 일로 다른 동료 학생과 함께 제주경찰서에 붙잡혀 1931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신창진은 풀려난 후 1933년 5월 신좌 혁명적 농민조합 준비위원회에 가입하고 신좌면 월정리, 김녕리, 동북리의 책임자를 맡아 활동하다 1934년 10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으나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면
- 동아일보(1931. 3. 11., 3. 14., 8. 30.)

양기형 (梁基亨)

- 생몰년: 1916. 2. 1.~1947. 3. 9.
- 본적: 제주 안덕 덕수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격: 건국포장(2018)

일본공산청년동맹의 한인들은 ‘천황제 철폐’와 독립을 위해 활동하였다. 한인 청년들은 이 단체를 매개로 독립을 요구하는 한편, 조선공산청년동맹의 재건 활동도 함께 전개하였다. 양기형 역시 이러한 일본공산청년동맹의 취지에 동조하여 오사카[大阪] 지역에서 간사이 지방위원회 준비회의 반제(反帝) 조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1934년 2월 상순 간사이지방위원회 준비회가 결성된 후 동북지구 책임자로 이도화가 선임되었다. 양기형은 심삼봉, 임암우 등과 함께 반제 조직이 되어 조직의 역량 강화와 확대를 위해 힘썼다. 또한 동맹원들과 함께 천황제를 비판하는 전단지 ‘진무천황제(神武天皇祭) 및 반동 시위 운동을 분쇄하라’를 배포하고, 비합법 메이데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4월에는 오사카시위원회 남지구준비회 공청원이 되어 남지구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사카 지역 한인 청년들에게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한편,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양기형은 이러한 활동을 하던 중 검거되어 1935년 1월 21일 기소된 후 1936년 6월 29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한국공산주의운동사(김준엽·김창순, 1976)
- 수형인명부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제3권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1967) 제4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양남구 (梁南球) 이명: 양남구(梁南久)

- 생 물 년: 1892. 9. 9.~1976. 4. 26.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0)



양남구는 1918년 음력 2월부터 좌면 도순리의 법정사(法井寺)의 신도가 되었다. 같은 해 9월 우란분회(盂蘭盆會)에 참석하였을 때 법정사 주지 김연일이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세상에 나타나 널리 포교함과 아울러 국권 회복도 이루게 해줄 것이니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말에 경청하고 호응하였다.

1918년 10월 5일 김연일이 신도들 앞에서 불무황제를 자칭하고 '왜노는 우리 민족의 원수이니, 교도는 우선 도내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모두 섬 밖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사람들을 모아 먼저 중문주재소를 습격할 것을 지시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하였다.

이때 양남구는 중군대장(中軍大將)으로 임명받고 다른 신도 33인과 함께 새벽에 법정사를 떠나, 영남리, 호근리, 강정리, 도순리, 하원리를 거쳐 약 칠백여 명의 주민을 규합하고 중문리로 나아갔다. 이들은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여 전소시키고, 일본인 순사들을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에 동참하였다.

양남구는 이로 인하여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19년 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양 두 옥 (梁斗玉)

- 생 목 년: 1914. 1. 27.~1966. 8. 11.
- 본 작: 제주 한림 신창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양두옥은 1931년 3월 9일 제주공립농업학교 3학년에 재학 중 신창진과 함께 부당하게 유급을 당하였다.

그는 신창진 등 동료들과 함께 학교를 습격하여 교장에게 유급 조치의 부당함을 항변하고 일본인 교사를 구타하였다. 이들은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과 학교 당국의 '황민화 교육'에 대한 불만을 갖고 학교 기물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동료들과 붙잡혀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1932년 3월 제주도 구우면 신창리에서 좌응신, 김두진, 고자화, 김정맹과 5인조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농민부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서당 학생 백여 명을 규합하여 시위 행진을 하였다.

8월에는 신창리 등 4개 리 부락민대회에 참석하여 신창서당의 공립보통학교 승격을 통한 일제의 교육 정책에 항거하는 연설을 하였고, 일제의 강압적인 면(面) 행정에 대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1934년 일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오랜 미결 기간을 거쳐 1937년 4월 12일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사건부(19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주도사연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66-172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6면
동아일보(1930. 3. 11., 3. 14., 1931. 8. 30.)

양병시 (梁秉時)

- 생 목 년: 1915. 4. 13.~1949. 8. 11.
- 본 작: 제주 한림 한림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19)



양병시는 1930년 일본 오사카[大阪]로 건너가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1931년에 돌아왔다. 그는 제주도 한림면에서 고갑선 등과 함께 사회주의자 이익우의 지도를 받았고, 같은 해 말경 이들과 함께 한림독서회(翰林讀書會)를 조직하였다.

1932년 5월 김경봉 등과 회합하여 한림리에 사회 운동의 지도 기관을 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체 책임과 타 지방과의 연락은 김경봉이 맡았으며, 나머지는 각자 독서회를 조직해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였다.

그는 6월 하순경 운동자연구회(運動者研究會)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청년부를 맡았다. 운동 방법은 '가두를 배회하지 말 것, 주의적 교양에 노력할 것, 합법단체에 들어가 농민 대중을 의식화할 것, 독서회를 조직하여 동지 획득에 노력할 것' 등이었다.

양병시는 1932년 10월 중순경 김경봉 등과 회합하였다. 적색농민조합(赤色農民組合) 결성의 준비로 제주의 각 리(里)에 반(班)을, 각 면(面)에 지부(支部)를 설치하였다. 이에 더해 외곽 단체로는 각 리에서 농민위원회를 조직해 각각의 반을 두어 지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준비로 새로이 '운동자연구회'라는 결사를 조직하여 책임부서와 담당을 정하였다. 같은 해 말경 한림면의 민풍진흥회(民風振興會)에 가입하고, 그 총무를 설득하여 함께 구우면장이 주창한 '도로 확장 수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1933년 1월 28일 부병훈, 김경봉 등이 설립한 '제주도 적색농민조합 창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6월 중순경 김경봉, 장창구 등과 회합하여, '성질이 온순한 자, 음주하지 않는 자, 비밀을 엄수하는 자'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기로 하는 등 운동 방침을 협의하였다. 1934년 2월 민풍진흥회를 통해 '도로 수선 무상 부역 반대, 면 당국이 지정한 공동목야 설치 반대, 한림 축항 공사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7월 구우면 명월리에서 김경봉 등과 함께 한림리 적색노동조합과 농민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로 '노농연구회(勞農研究會)'라는 결사를 조직하고, 농민부 책임을 맡아 활동하였다. 농민부는 주로 농민 청년을 규합하여 독서회를 조직하고 이들을 전위부대로 양성하는 데 치중하였다.

양병시는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1934년 10월경 제주경찰서에 체포되어 12월 28일에 동지 60여 명과 함께 목포감사분국으로 송치되었다. 여섯 차례의 공판 끝에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713~729면

양봉 (梁鳳)

- 생몰년: (1891)~미상
- 본적: 제주 좌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1)



양봉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괄이 그리고 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달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를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항일 시위 참여로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424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양 유 생 (梁酉生)

- 생 목 년: 1909. 8. 2.~1976. 5. 6.
- 본 작: 제주 대정 상모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9)

1926년 당시 제주공립농업학교의 일본인 교사들은 우리 민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학생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갔다. 특히 교장 업무를 맡고 있던 일인 교사 야나기다[柳田]는 교사의 자질이 형편없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심지어 그는 늘상 '조선인은 야만인'이라며 민족을 모욕하고 학생들에게 노예 정신을 주입하여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였다.

1926년 6월 25일 양유생과 학생들은 야나기다 교사 배척 등 15개 항의 요구 조건을 담은 진정서를 만들었다. 이를 도 당국과 학교 당국에 제출하고 동맹 휴학에 들어갔다.

학교 당국자들은 일본인 교사를 옹호하며,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지어 학교는 7월 13일 양유생을 비롯한 동맹 휴학 주도 학생들을 퇴학 처분시켰다.

7월 말 동맹 휴학이 장기화되면서 경찰이 개입했고 교섭위원들의 조정으로 해당 일본인 교사가 사과함으로써 동맹 휴학은 종료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동아일보(1926. 7. 1., 7. 18., 7. 25., 1995. 6. 20.)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977) 제13권 984-985면

양치삼 (梁致三)

- 생몰년: 1911. 6. 19.~1937. 1. 12.
- 본적: 제주 구우대림
- 운동계열: 학생운동
- 훈격: 건국포장(1993)

양치삼은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하였다.

졸업을 앞두고 동급생 김원요, 양두옥, 신창진이 ‘사상 불순’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퇴학과 유급을 당하였다. 해당 학생들은 평소 교내에서 「교육칙어(教育勅語)」가 낭독될 때 묵념 자세를 취하기를 거부하였는데,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라며 학교 측이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퇴학 처분을 받은 동급생 김원요는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한 일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양치삼은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일제의 교육 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로 몰려가 퇴학과 유급 조치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시키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다른 동료 학생들과 함께 붙잡혀 1931년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면
- 동아일보(1931. 3. 11., 3. 14., 8. 30.)
- 형사사건부(19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오남학 (吳南鶴) 이명: 오자문(吳自文)

- 생 물 년: 1921. 4. 14.~1992. 4. 23.
- 본 작: 제주 남원 한남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1995)



오남학은 1945년 1월 일본 오사카[大阪]의 조일화학공업소(朝日化學工業所)에 근무하던 중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선전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1940년경 일본으로 건너가 부친이 경영하는 군수회사 협력공장인 조일화학공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1945년 1월 미군기가 일본 도쿄[東京]를 공습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일제의 패망이 도래했음을 직감하였다.

1945년 1월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전남 여수로 향하는 관려연락선(關麗連絡船) 안에서 제주 출신 송행일 등에게 미군기의 도쿄 공습과 이로 인한 사상자 발생, 사이판에서 일본과 연합군의 전투 상황, 나고야·도쿄 등지의 항공기 회사 폭격으로 인한 공장 소실과 사상자 발생, 일본 전투기의 격추 사실 등 일본의 불리한 전황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고향인 제주에 돌아와 정조원, 오봉희 등 여러 사람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붙잡힌 그는 1945년 3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및 조선임시보안령(朝鮮臨時保安令)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1945년 8·15 광복을 맞이하여 출옥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5. 3. 16.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오병윤 (吳秉允) 이명: 오병용(吳丙用)

- 생몰년: 1901. 11. 20.~1973. 4. 20.
- 본적: 제주 중문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05)



오병윤은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신도로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서귀포의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하는 등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1918년 9월 19일, 제주도 좌면 도순리의 법정사 승려 김연일은 오병윤 등 신도 30명에게 ‘왜놈은 우리 조선을 병탄²⁹⁾했을 뿐 아니라 병합 후에는, 관리는 물론 상인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하고 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관리를 죽이고 일본 상인을 섬 밖으로 몰아내자’는 내용의 연설로 반일 독립 사상을 고취하였다.

이어 같은 해 10월 5일, 오병윤 등 신도 33명이 무력 항쟁을 이끌 선봉대로 결성되었으며, 군사 체제를 편성하고 각 면의 면장들에게 격문을 보낸 후, 주민 칠백여 명을 규합하였다. 10월 7일 그들은 전선을 절단하고 중문주재소를 습격하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 격렬한 항쟁을 벌였다.

오병윤은 이 일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3~148면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29) 병탄(併呑): 남의 재물이나 다른 나라의 영토를 한데 아울러서 제 것으로 만들.

오성행 (吳成行)

- 생 물 년: 1921. 7. 25.~2000. 6. 28.
- 본 작: 평남 평양 창전
- 운동계열: 광복군
- 훈 격: 애국장(1990)



1921년 7월 평안남도 평양부 창전리에서 태어난 오성행은 서울 휘문중학교를 졸업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

1939년 산서성(山西省) 심현(心縣)에서 중국군 군사위원회 제18집단 군사령부에 소속되어 항일전에 참전하기도 하였으며, 1940년에는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에 입대하였다가 광복군이 창설되자 제5지대에 배속되었으며, 중국 중앙전시간부훈련 제4단 특과총대학원대 한청반(中央戰時幹部訓練 第四團 特科總大學員隊韓青班)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다.

1942년 4월에는 광복군 제2지대 제1구대 제3분대장이 되어 초모 공작 활동과 일본군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광복군 제2지대본부 부관으로 배속되어 복무하였으며, 1944년에는 중국군관학교 외국어과 교관으로 임명되어 후배를 양성 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1945년 조국이 해방되자 국군으로 입대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며, 1956년 9월 육군 대령으로 예편되고 제주도를 생활 근거지로 삼아 살았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194면
-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5권 85면
- 임시정부의정원문서(국회도서관) 78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4권 94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6권 231·406·61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3권 94·2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231면

오인식 (吳寅植) 이명: 오병길(吳丙吉)

- 생몰년: 1896. 9. 9.~1938. 6. 7.
- 본적: 제주 좌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8)



오인식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력 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강창규의 지휘 아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 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인식은 당일 이종창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오인식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고,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오인식은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6) 제9권 317면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9) 제12권 356~371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한금순, 2010) 67, 87~91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향토문화전자대전)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7~149, 365, 424면

순국(순국선열유족회, 1994) 11월호 100~101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오 평 윤 (吳坪允)

- 생 물 년: 1910. 5. 21.~1951. 7. 28.
- 본 작: 제주 제주 오라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건국포장(2008)



오평윤은 보통학교 6년을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세선합자회사[大阪細線合資會社] 직공으로 일하였다. 그는 노동을 하면서 한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 운동에 투신하여 1932년 12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 금속오사카지부[金屬大阪支部]에 가입하였다.

이후 오평윤은 금속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노동 운동과 항일 운동을 하였으며, 1933년 4월 일본공산당 오사카시위원회에 소속되어 동지구(東地區)의 배포계(配布系)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문서 배포계에 배속되어 길거리에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노동자들에게 당 기관지 『적기(赤旗)』를 비롯한 항일 문서를 나눠주는 임무를 맡았다.

오평윤은 동지를 규합하기 위한 선전 활동을 하다가 1934년 1월 10일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후 경찰에서 취조를 받고 2월 8일 기소되어 1935년 10월 14일 오사카공소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뒤 1937년 10월 2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0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별집 제3집 460, 461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제4권 481면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339, 390, 1047면
- 근대일본사회 운동사인물대사전(인물대사전편집위원회 편, 1997) 제2권 510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원인수 (元仁水)

- 생몰년: (1868)~미상
- 본적: 제주 좌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1)



원인수는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였다.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함께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괄이 그리고 엽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10월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전선과 전주를 끊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서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원인수는 이러한 항일 운동에 참가하여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放火)’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윤기옥 (尹奇玉)

- 생 목 년: 1911. 2. 2.~1988. 12. 17.
- 본 작: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건국포장(1993)



천주교 신자인 윤기옥은 1941년 4월 제주도 제주읍의 본인이 경영하는 이발관에서 한 손님에게 ‘미국과 일본이 개전(開戰)하게 되면 미국은 먼저 제주도를 공략할 것이고 이 섬을 근거지로 하여 일본과 한국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주읍 천주교회의 선교사인 아일랜드인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과 허봉학, 신도 두 명과 함께 미·일, 영·일 간의 개전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일본은 힘도 없고 병력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패할 것이다. 그때는 조선도 독립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말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위의 발언들을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10월 손 신부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 형법(陸軍·海軍刑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윤창석 (尹昌錫)

- 생 목 년: 1913. 9. 5.~1949. 12. 18.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06)



윤창석은 제주청년동맹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30년 2월 14일, 제주청년동맹 조천지부 회원으로서 신좌면 조천리에서 야학활동을 하며 청년들에게 민족의식을 함양하게 하고 신사상을 토대로 한 대중 운동을 전개하다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로 인해 1930년 4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후, 1930년 11월 13일 출옥하였다.

출옥 후 윤창석은 조선공산당(朝鮮共產黨)의 재건을 목표로 설립된 제주도 야체이카³⁰⁾ 조직에 참여하였다. 이후 윤창석은 해녀들이 주도하여 생존권 투쟁과 항일 운동으로 발전시킨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는 이러한 항거를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1933년 2월 28일 체포되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징역 10월(미결구류 240일 통산)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고 1933년 5월 13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30)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범죄인명부
- 조선일보(1930. 3. 13., 5. 3.)
- 동아일보(1933. 2. 8.)
-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 형사사건부(1933, 조선총독부재판소)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이갑문 (李甲文) 이명: 이성효(李成孝)

- 생 목 년: 1913. 8. 28.~미상
- 본 작: 제주 대정 하모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건국포장(2018)



이갑문은 서울의 사립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31년 7월 초 홍병모, 김만유, 이동재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 시내 중등학교의 연합 동맹 휴학 계획의 실행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격문 이천삼백여 매를 제작하여 각 중등학교에 배분하였으며, 10일을 기하여 일제히 동맹 휴학을 단행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격문의 내용은 2일 중국 지린성(吉林省) 창춘현(長春縣)에서 일어난 '만보산(萬寶山) 사건' 등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갑문은 7일 안국동 자택으로 방문한 홍병모와 김만유로부터 그러한 내용이 담긴 서신과 격문 한 꾸러미를 건네받고, 격문의 배포와 동맹 휴학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이른 아침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내 각 교실에 격문을 배포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 시내 각 학교의 '반제격문(反帝檄文) 사건'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검거되었는데, 이갑문도 이때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종로경찰서 고등계에서 오랜 기간 취조를 받은 후 1932년 6월 6일 홍병모 등 6명의 동지들과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7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고, 18일 출옥하였다.

이후 서울에서 '이재유(李載裕) 그룹'의 혁명적 대중조직운동에 참여하였다. 1934년 6월, 자신의 연인이자 '이재유 그룹'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을 주도하던 핵심 활동가인 박영출에게 '경성반제동맹(京城反帝同盟)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고 3월 31일 병보석으로 가출옥한 이관술을 소개하였다. 이후 이관술의 지도하에 윤금자 등 주로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출신들과 실천 운동에 대해 협의하면서 이관술의 연락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활동하다가 박영출 등의 '용산적색노동조합(龍山赤色勞動組合) 사건'에 연루되어 1935년 용산경찰서에 체포되었다. 3월 13일 박영출 등 10여 명의 동지들과 함께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송치되었다가, 23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형사사건부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사상(思想)에 관한 정보철(情報綴)(3)
- 치안정황(治安情況)(1934. 3.)
- 경찰상보(警察狀報)(1935)
- 동아일보(1932. 6. 7., 6. 18., 7. 15., 7. 19., 1936. 7. 16.)
- 조선일보(1936. 6. 3.)

이 경 선 (李景仙) 이명: 이연순(李蓮順)

- 생 목 년: 1914. 5. 14.~미상
- 본 작: 제주 대정 가파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21)



이경선은 서울에서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 재학 중이던 1931년 10월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관술과 연계된 이 독서회는 사회주의 서적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경선은 이러한 활동으로 1933년 1월경 체포되었다가 같은 해 2월 21일 석방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33년 6월부터 이재유(李載裕) 그룹에 참여하여 여자중등학교 책임을 맡았다. 1934년 경기도 시흥군 소재의 조선직물주식회사에서 산업별 적색노동조합 동지 규합과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해 활동하였다. 그는 이로 인해 같은 해 2월 체포되어 1935년 1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경선은 1942년 10월 일본에서 고베약학전문학교에 진학하였다. 이 시기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고베지방법재판소에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1944년 2월 29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1935. 8. 8.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35. 12. 20. 경성지방법원)
- 매일신보(1933. 2. 22., 1935. 12. 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5) 별집 3권 697, 701면

이 기 순 (李基淳)

- 생 물 년: 1909. 10. 2.~1942. 8. 21.
- 본 작: 제주 중문 중문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이기순은 1938년 중문면사무소 서기로 재직하는 한편, 서귀면 서흥리 천주교회 신도 회장을 맡으며 아일랜드인 어거스틴 스위니(일명 서 신부)와 함께 ‘일본 패전’에 관한 시국담을 논하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서 신부는 ‘지금 미국과 영국이 중국을 원조하고 있는 것은 중일전쟁(中日戰爭)에서 일본이 중국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중일전쟁이 장기화 되면 일본은 물자 부족으로 패전할 것이다’라고 설파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소위 전시체제 아래 대륙 침략에 필요한 군수 자원을 국내에서 수탈하는 한편, 민족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국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일제의 패전을 예견하였다.

그리고 일제가 1941년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며 징병 제도를 실시하게 되자, 그는 이러한 사실을 교인들에게 알리며 항일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일제가 강행한 지원병 제도에 대하여 반대 운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에 항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붙잡힌 이기순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1942년 8월 21일 광주형무소에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이달생 (李達生)

- 생몰년: 1886. 8. 26.~1960. 12. 20.
- 본적: 제주 좌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이달생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김연일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구하였는데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이달생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달생 등은 선봉대로 일본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뒤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이달생은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수형인명부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형사사건부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이 두 생 (李斗生) 이명: 이연순(李蓮順)

- 생 몰 년: (1890)~미상
- 본 작: 제주 중문 강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22)

1935년 음력 7월 하순 미륵교의 지로사(指路師)인 전라남도 순천군 별량면 학산리의 김형오가 제주도에 와서 미륵교(彌勒教)를 포교하였다. 이에 이두생은 ‘칠성 주문을 부르게 되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듣고 미륵교에 입교하였다. 그리고 10월 무렵 미륵교에서 출교하였다.

1940년 7월 28일 밤 ‘강증산사망기념제(姜甌山死亡記念祭)’에 참가하면서 미륵교에 재입교하였다. 1940년 7월 28일부터 1942년 3월 21일까지 독립을 기원하는 기원제에 참가하여 1942년 8월에 체포되었다. 1943년 2월 16일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43.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64, 165면

이 두 일 (李斗一)

- 생 목 년: 1914. 6. 17.~2008. 7. 7.
- 본 작: 제주 구좌 평대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2)



이두일은 1927년 3월 하도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진학하였다. 1931년 3월 6일 제주공립농업학교에 재학 중 일본인 교장 스기사키[杉崎勝藏]가 평소 한인 학생을 경멸하며 일제의 교육 정책을 강제하는 데 불만을 나타낸 학생 김원요를 퇴학시키고, 신창진과 양두옥을 유급시켰을 뿐 아니라, 졸업생에 대한 재학생의 송별회도 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3월 7일 김원요가 항의하였고, 9일에는 신창진 외 9명이 학교 측에 다시 강경하게 항의 하였으나 일제 경찰이 이들을 모두 구속하였다. 이두일은 홍성옥, 오화국과 함께 회합을 가지며 모든 책임이 교장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각자 학생들을 규합하여 교장을 응징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10일 저녁, 이들은 교장 사택을 습격하였으며 마당에 있는 장작, 곤봉, 돌맹이 등으로 유리창과 기물을 파괴하고, 일시 피신하였다. 이후 다시 조천면에서 격문을 살포하던 중 3월 13일 일제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두일은 1931년 8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1931년 10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옥하였다.

정부는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10. 22. 대구복심법원)
- 제농회우(제주농업고등학교총동창회, 1985. 10. 1.) 6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6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62-1563면

이문천 (李文千)

- 생 목 년: 1892. 3. 17.~1941. 5. 23.
- 본 작: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00)



이문천은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계속된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한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 김장환이 귀향하면서 시위 소식을 전하였고, 김시범, 김시은 등은 시위 운동을 계획하며 동지들을 규합하였다. 이때 이문천은 만세 시위의 계획을 듣고 적극 찬동하였다.

이들은 3월 21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거사 장소는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신촌과 함덕 등 인근 마을과 서당 학생들에게도 독립 만세 시위 계획을 알리며 다 함께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21일 오후 3시경, 이문천을 비롯한 오백여 명의 시위 군중이 미밋동산에 모여들었다. 김시범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고, 김장환이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이문천을 비롯한 시위 군중은 일제히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다.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연창하면서 시가지를 향하여 시위 행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출동한 일본 군경에 의해 시위 군중은 강제 해산되었으며, 중심 인물이 붙잡혔다.

이어진 23일 시위에서는 김연배 등과 함께 시위대를 모아 조천 장터에서 만세를 외쳤다. 이후 함덕리로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는 등 이문천은 조천리 시위 운동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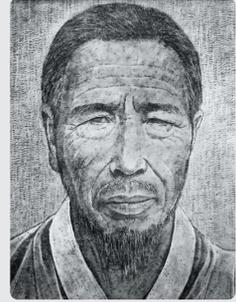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명적표(대구감옥)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7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427~431면

이봉규 (李奉奎)

- 생몰년: 1877. 2. 9.~1927. 5. 20.
- 본적: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18)



이봉규는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을 갖추어 무력 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선봉대는 강창규의 지휘 아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의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봉규는 당일 이종창, 정귀룡, 박주석, 김명돈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 강태하, 김항률, 김인송, 오인식 등과 함께 거사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6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이봉규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어,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이봉규는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수형인명부
형사사건부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7~149, 365, 424면

순국(순국선열유족회, 1994) 11월호 100~101면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6) 제9권 317면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2009) 제12권 356~371면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한금순, 2010) 67, 87~91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향토문화전자대전)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이 봉 춘 (李奉春)

- 생 물 년: 1914. 5. 26.~미상
- 본 작: 제주 구좌 연평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2024)

1914년 5월 구좌 연평에서 태어난 이봉춘은 1934년 7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독립 국가를 건설할 목적으로 성심야학교를 개설하고 민족 교육을 실시하다 체포되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 공적개요

이 승 빈 (李昇斌)

- 생 물 년: 1891. 10. 8.~1927. 9. 16.
- 본 작: 제주 좌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이승빈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김연일은 1918년 봄 승려 강창규, 방동화 등을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이승빈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승빈 등 선봉대는 일본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 형사사건부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이신형 (李信珩)

- 생 목 년: 1911. 9. 17.~미상
- 본 작: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족장(2019)

1926년 이후 전라남도 광주의 각 중등학교에는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독서 모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1929년 6월 장재성을 중심으로 광주고등보통학교, 전남사범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독서회 중앙부를 조직했으며, 각 학교에는 별도의 독서회가 신설되었다.

이신형은 1929년 7월경 전남사범학교 재학 중 수피아여학교 동산에서 비밀 결사 독서회를 조직하고, 9월 독서회의 조사선전부 위원을 맡아 회원을 5개 반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사회과학을 연구하였다. 또한, 각 학교 독서 회원들은 자금을 출자하여 소비 조합으로 문방구점을 열었다.

11월 3일 이신형은 광주고등보통학교·전남사범학교·광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합동하여 광주 시내에서 시위 행진을 전개할 때 참여하였다. 같은 달 10일 장재성의 지도로 각 학교의 독서회 주도자들이 모여 검거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2차 시위 운동을 추진하였다. 이신형은 전남사범학교의 대표로 모임에 참석하여 항일 격문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는 12일 다시 동지를 규합하여 시위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30년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1931년 6월 13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사상월보(조선총독부 고등법원 검사국, 1931) 제1권 제6호 562면

이운강 (李雲岡)

- 생몰년: 1895. 7. 3.~1972. 11. 29.
- 본적: 황해도 장연
- 운동계열: 만주 방면
- 훈격: 애국장(1990)



1895년 7월 황해도 장연군에서 태어난 이운강은 1919년 서간도 지역의 독립군 양성소인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성적이 우수하여 그곳 교관으로 임명되었다.

1919년 8월 북로군정서 김좌진 사령관의 요청으로 그는 북간도 왕청현 십리평에 설치된 사관연성소의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온 힘을 기울였다.

이어 1919년 12월 북로군정서 제4중대 제2소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20년 10월 독립군 전투 사상 미증유의 대승전을 거둔 청산리 독립전쟁에서 전공을 세웠다.

이운강은 광복 후 국군 창설에 참여하였으며, 1955년 육군 중령으로 제주 병사구사령부의 군수참모관을 역임하였고 예편 후 제주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조선민족운동연감 93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34면
- 무장독립운동비사 8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5권 175-385면
- 민족독립투쟁사(해외편) 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0권 34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313면

이원영 (李遠榮)

- 생몰년: 1875. 3. 14.~1961. 2. 24.
- 본 작: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19)



이원영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좌면 하원리 법정사(法井寺)에서 승려들이 중심이 되어 국권 회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무장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법정사의 승려들과 인근의 주민 다수가 참여하여 전개한 일제강점기 제주 최초의 대규모 항일 운동이었다. 이들은 6개월여 전부터 조직적으로 거사를 계획하고 화승총이나 곤봉 등 무장 항쟁을 준비하였다.

거사 당일,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제주도에서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시키겠다는 목적을 격문으로 알렸다. 강창규의 지휘 아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불태우며 일본인을 구타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원영은 당일 이종창 등이 하원리로 들어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자 양봉 등과 함께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66명이 일제 경찰에 체포되고 법정사는 불태워졌다. 이원영 역시 이 과정에서 체포되었고, 11월 27일 동지들과 함께 기소되었다.

이원영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放火)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벌금을 완납할 수 없을 때는 30일간 노역장(勞役場)에 유치한다는 결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1948년 「대통령령(大統領令) 제8호」에 의거하여 복권(復權)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18년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한금순, 2006) 50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이운평 (李允平)

- 생몰년: 1889. 5. 5.~1980. 7. 15.
- 본적: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이운평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김연일은 1918년 봄 승려 강창규, 방동화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이운평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운평 등은 일본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이응범 (李應範)

- 생몰년: 1901. 10. 13.~1957. 1. 24.
- 본적: 전남 나주 노안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3)



1901년 10월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난 이응범은 제주도 제주읍 천주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던 1940년 1월경, 같은 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에게 제주도 동쪽 해상의 우도에 해군 비행장이 건설될 예정이며 우도에는 현재 군대가 주둔하면서 매일 해상을 감시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1941년 봄 그는 손 신부와 김중현, 허봉학 등 다른 신도들과 함께 '일본의 신문들은 중일 전쟁에서 일제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독영전쟁에서도 독일이 대승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일본군은 물자부족으로 결국 패전할 것이고 또 당연히 패전해야 하며 독영전쟁도 실은 영국에 유리하게 전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내용의 시국담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었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우선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응범도 위의 발언과 시국담을 통해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손 신부 등과 함께 1941년 10월에 일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군기(軍機)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과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 10월 형이 병합되어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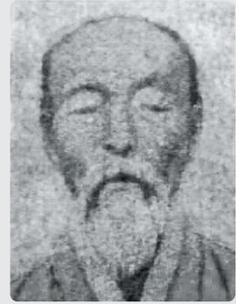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조사회보서
-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이종창 (李宗昌)

- 생몰년: 1880. 9. 9.~1966. 2. 9.
- 본적: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이종창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김연일은 우선 1918년 봄에 강창규, 방동화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이종창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종창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 순국(1994. 11월호) 100·101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이창휘 (李昌輝)

- 생몰년: 1897. 5. 27.~1934. 9. 9.
- 본적: 제주 구우 고산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이창휘는 변호사로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에 자진 변호를 맡거나 무료 변호를 통하여 애국적 의지를 드높이는 한편, 조선농민사(朝鮮農民社)의 중앙이사로서 농촌 계몽 운동에도 힘을 쏟았다.

그는 1923년 경성법정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법률과에 편입하여 1924년 졸업하였다. 같은 해 5월 전주지방법원 서기보로 근무하였고, 10월 제3회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1925년 10월 29일 조선농민사의 창립 총회에서 중앙이사로 선출된 그는 조선농민사 주최 농촌 문제 강연회의 주요 연사로 활약하면서 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 등을 강연하는 등 농민 계몽에 앞장섰다.

한편 1926년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나 주동 학생들이 일제 법정에 서게 되자, 그는 이인 등과 함께 학생들의 애국적 행동을 변론함으로써 민족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이창휘는 1927년 6월 좌우합작으로 신간회(新幹會)가 결성되자, 신간회 경성지회의 간사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일본의 미츠비시[三菱] 회사가 수력 전기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일제 경찰을 앞세워 토지를 강제 매수하려 하자, 허헌과 함께 법률 투쟁을 전개하여 토지 침탈을 저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1928년 경남 도청년연맹(道靑年聯盟)의 항일 투쟁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자진하여 변호를 썼으며, 1929년 4월 공명단(共鳴團)의 단원들이 군자금 모집을 위해 망우리에서 일제의 우편물 수송차를 습격하다가 붙잡힌 '공명단 의거'의 공판에서도 이인, 허헌과 함께 공명단원을 민족적 입장에서 변호하였다.

그는 1925년 11월 신의주청년회의 폭행 사건으로 조직이 탄로난 '조선공산당 사건'의 변호에 참여하여 공개 재판 요구, 공판정의 경계 완화, 형사 등의 특별 방청 금지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형사공동연구회의 회원들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광주 지역 변호사들과 연합하여 변호하였다, 이 외에도 1931년 '간도

공산당 사건' 등 사회주의 계열 운동과 항일 독립운동 사건의 변호를 많이 담당하고 무료 변론을 하여 사상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던 중 과로로 인하여 병을 얻어 1934년 9월 9일에 서거하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7권 674~681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21면

동아일보(1928. 6. 22., 7. 7., 1929. 8. 12., 11. 27., 1934. 9. 12.)

조선일보(1927. 10. 25., 1930. 2. 6., 2. 22., 6. 16., 1931. 12. 4.)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10권 428-429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29면

이 춘 삼 (李春三)

- 생 물 년: (1855. 6.)~1945. 9. 16.
- 본 작: 제주 좌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1995)



이춘삼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하며 항일 의식을 길렀다. 1918년 봄 김연일은 승려 강창규, 방동화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이춘삼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이춘삼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 266면
- 순국(1994. 11월호) 96면
- 형사사건부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임삼호 (任三浩)

- 생몰년: 1911. 10. 26.~1966. 2. 18.
- 본적: 제주 제주 화북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1995)



임삼호는 1931년 제주청년동맹(濟州靑年同盟) 화북지부(禾北支部)에 가입하여 청년 운동을 통하여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평소 사회주의 이론 연구를 통해 항일 의식을 길렀던 그는 1931년 2월 제주읍 화북리 소재 화북보통학교 6학년생이자 화북소년회 회원인 신승근이 사망하자, 같은 학교 학생들을 인솔하여 장례 행렬을 이루었다. 그리고 항일 내용이 담긴 「혁명가(革命歌)」를 지휘하면서 학생들에게 반복하여 외치게 하는 등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리고 화북리 사립학교의 일부 교원들이 학교 관계자들을 감시하여 일본 경찰에 밀고 하는 등 친일적 행동을 일삼자, 이에 분개한 그는 교원 배척을 주장하는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면서 교원 배척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일로 인해 1931년 3월 화북지부원들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힌 그는 1931년 10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10. 22. 대구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동아일보(1931. 3. 24., 4. 21., 8. 3.)

장병운 (張炳允) 이명: 장석호(張碩鎬)

- 생 목 년: 1914. 1. 16.~1983. 7. 3.
- 본 작: 제주 한림 협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장병운은 1925년 구우공립보통학교 재학 중 협재소년회(挾才少年會)에 참여하였다. 1927년 구우공립보통학교 졸업 후 1928년 일본으로 건너가 노동을 하면서 사회주의 사상 관련 서적을 읽고 독립 사상을 고취하였다. 1930년 귀국 후 같은 고향 출신 윤한진의 지도하에 독서회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33년 6월경 제주도 구우면 협재리 흥경옥의 집에서 여러 동지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구우면 소재 구우공립보통학교의 이전 문제에 관해 이전은 무산농민의 부담을 가중하므로 이전 반대 진정서를 만들어 반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부락민에게 현대 사회 제도 변혁을 역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제주도사연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72-173면

장 용 진 (張 瑢 珍)

- 생 물 년: 1910. 5. 27.~1983. 7. 3.
- 본 작: 제주 한림 협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장용진은 1926년 3월 구우면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이주하여 노동자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1933년 6월경 제주도 구우면 협재리 흥경옥의 집에서 여러 동지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하였고, 같은 해 9월에는 구우면 소재 구우공립보통학교의 이전 문제에 관해 이전은 무산농민 부담을 가중하므로 이전 반대 진정서를 만들어 반대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1934년 7월 무명의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재정부를 담당하여 자금 조달에 힘쓰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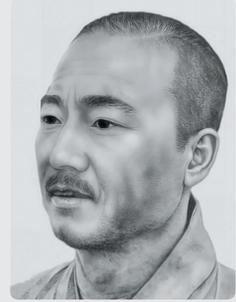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제주도사연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71-172면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장임호 (張林虎)

- 생몰년: (1856)~미상
- 본적: 제주 좌도순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14)



장임호는 1918년 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에 참여하여 제주에서 일본인 관리를 축출하고 주재소를 공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좌면 도순리에 소재한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은 장임호, 방동화, 강민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충 등과 제주 내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장임호 등은 1918년 9월 14일부터 같은 달 말까지 법정사에 머물고 있던 강창규, 김삼만 등을 거사 계획에 합류시키고, 각 리(里)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김연일은 장임호는 모사(謀師), 강창규는 선봉대장, 양남구는 중군대장, 김삼만은 후군대장, 김봉화·최태유는 선봉집사에 임명하였다.

장임호는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우면 서호리와 호근리에서 준비한 격문을 배포하였다. 그리고 박주석 등과 좌면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放火)'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형사사건부
집행원부
수형인명부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장한호 (張漢鎬)

- 생몰년: 1906. 12. 15.~1972. 4. 16.
- 본적: 제주 한림 한림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3)



장한호는 1923년 구우면에서 공립보통학교 4학년을 마치고, 1926년까지 일본을 왕래하며 노동자로 일하였다.

그는 1933년 5월 제주도 구우면 한림리에서 김경봉, 양병시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서회를 조직하고 동지 규합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해 6월에는 같은 곳에서 운동자연구회(運動者研究會)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총책임자인 김경봉을 대표로 사회주의 사상의 함양에 힘썼다. 10월에는 김경봉의 주도로 양병시 등과 제주도 농민조합 조직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외곽 단체로서 각 마을에 농민을 규합하고 농민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 경찰에 붙잡혀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제주도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65-16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69면

전영일 (全永一)

- 생 목 년: 1887. 3. 10.~1970. 11. 8.
- 본 작: 평남 순천 은산
- 운동계열: 만주 방면
- 훈 격: 애족장(1990)

1887년 3월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전영일은 만주에 있을 당시 한인들의 생활을 돕고 동삼성한족생계회(東三省族生計會)·농민호조사(農民互助社) 등 민간 단체에 참여하여 한인을 대표해 중국 관헌과 교류를 하였다.

그는 1918년 12월경 설립된 동삼성한족생계회의 성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한인들의 농업·상업·공업·광업·임업의 확장과 수전 개척, 교육 등의 문제 해결을 임무로 삼았다. 또한, 중국 정부에 요청하여 한인의 입적 문제, 치안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1927년 4월 1일 만주 길림성 대동문에서 재만동포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김기풍, 김진호, 김원식, 김이대, 김호, 김동삼 등 35명과 창립 주동자 되어 농민호조사를 조직하였다.

그는 이탁, 최일, 윤인보, 손정도 등과 함께 주비위원(籌備委員)이 되어 만주 지역에 이주해 온 농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 생산의 증가, 교육의 발전, 위생과 보건의 향상을 기하는 데 단체의 힘을 총 집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조선민족운동연감 215-221면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58면
무장독립운동비사 144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8권 429면

전 태 현 (全泰賢) 이명: 전태현(全泰鉉)

- 생 물 년: 1922. 7. 28.~2005. 4. 15.
- 본 작: 황해 응진 서 읍저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7)



1922년 7월 황해도 응진군 서면 읍저리에서 태어난 전태현은 1940년 경성에 있던 같은 고향 학우 등과 함께 향후 미일 관계와 중일전쟁을 전망하며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현재 정세상 중국이 불리한 형국이지만 장차 중국, 소련군이 제휴하여 일본군을 공격하면 일본이 반드시 패할 것이므로, 이때 중국군과 소련군에 가담하여 독립을 실현하자’고 결의하였다. 이에 더해 대중을 대상으로 항일 의식과 민족 사상을 고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는 같은 해 9월 서울 사직공원 앞에 있는 선전문 게시판에 ‘대한 독립 만세’라는 대자보를 붙이는 등 일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독립 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혔다.

전태현은 이로 인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및 ‘육군형법(陸軍刑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7집 364면

정구용 (鄭九鎔) 이명: 정구용(鄭龜龍)

- 생몰년: 1880. 10. 5.~1941. 5. 5.
- 본 작: 경북 영일 동해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02)



1880년 10월 경상북도 영일에서 태어난 정구용은 승려 신분으로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여 격문 작성 임무를 맡아 거사를 계획하고 지도하였다.

그는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의 영향을 받아 함께 수행하던 강민수, 김인수, 김용충 등과 함께 항일 의식을 키워갔다. 김연일은 1918년 봄 승려들을 중심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한 뒤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1918년 10월에 이르러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정구용은 '우리 조선인이 일본에 침탈당하여 괴로움을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옥황상제 성덕주인(聖德主人)께서 우리 조선인을 구원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에 각 면장과 이장은 즉시 마을에서 장정을 모아 이달 3일 오전 4시에 하원리에 집결하도록 하고, 4일에는 거사를 일으켜 관리를 체포하고 일본인들을 축출하도록 한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군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의 격문을 제작해 서귀포 일대에 배포하는 등 김연일과 함께 이 거사를 계획하고 기세를 진작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들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였으며,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를 석방하고,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는 서귀포주재소 기마순사대가 공격해 오자 참여자들과 함께 해산하였다.

정구용은 은신하였다가 1923년 2월 붙잡힌 후 1923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23. 6. 29. 대구복심법원)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421~425면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정우생 (鄭友生)

- 생몰년: (1913)~1935. 9. 19.
- 본적: 제주 제주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격: 애족장(2006)

정우생은 제주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노동 운동 등에 참여하면서 항일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다가 1932년 3월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全協] 금속오사카지부[金屬大阪支部]에 가입하였으며, 그해 9월 반제동맹(反帝同盟) 오사카지방 위원회[大阪地方委員會]에 가입하여 회원 규합에 노력하였다.

한편, 정우생은 1933년 3월 신성만(申聖萬)·미쓰야[三矢] 등의 권유로 일본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 후 일본공산청년동맹 오사카시위원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오사카시위원회에 소속된 정우생은 오사카의 동지구(東地區) 책임을 맡았으며 1933년 6월에는 오사카시위원회의 조직 부장이 되었다. 정우생은 오사카 지역의 한인들을 규합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회원 50명을 공청원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이처럼 정우생은 반제동맹 등 일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1933년 7월 13일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8월 31일 기소되었다.

정우생은 경찰에 검거되어 예심으로 옥중에서 생활하였고, 옥중에서 얻은 병이 심해지며 1935년 8월 초순에 보석으로 출옥되었다. 그는 부친이 사는 경도(京都)에서 요양하던 중 1935년 9월 19일 세상을 떠났다.

정부는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근대일본사회 운동사인물대사전(1997) 3권 499면
-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 2권 698~700면
- 민중시보 7호(1935.10. 1.)
- 특고월보(1933. 8.) 8면

조계성 (趙桂成)

- 생몰년: 1880. 2. 3.~1949. 3. 20.
- 본적: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06)



조계성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의 승려 김연일 등과 함께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들을 섬 밖으로 몰아내고자 결의하고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조계성은 10월 5일 법정사 집회에서 김연일의 '의군을 일으켜 제주도에서 일본인 관리를 섬 밖으로 소탕하자'는 제의에 동참하였다.

같은 해 10월 7일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불을 질러 문서와 함께 건물을 불태웠다. 오전 11시경 서귀포 경찰관 주재소 순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여 시위대는 천제천 부근에서 해산하였다.

이 사건으로 체포된 조계성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放火)'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조선총독부재판소)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조대수 (趙大秀)

- 생몰년: 1906. 9. 20.~1948. 12. 24.
- 본적: 제주 한림 귀덕
- 운동계열: 문화운동
- 훈격: 애국장(1990)



조대수는 1927년 4월 9일 동지 고병희 등과 함께 제주면 삼도리에서 회합하여 아나키즘 항일 독립운동 노선의 독서회를 조직하고 문고(文庫)를 설치하여 1930년 6월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같은 해 10월 소비조합을 조직하여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전개하였다.

조대수는 1929년 5월 아나키즘 비밀 결사 우리계(宇利契)를 조직하였다. 우리계는 표면적으로는 친목계였으나, 실제로는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중국에는 일제를 몰아내고 아나키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해 9월에는 각 동리에 야학을 설치하여 민족 교육과 사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러한 활동으로 1930년 6월 일제 경찰에 붙잡혀 1930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1931년 7월 1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0. 12. 8. 광주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9권 614면
- 동아일보(1930. 12. 10.)
- 판결문(1931. 7. 14. 대구복심법원)
- 제주도 지역의 아나키스트 운동(이호룡, 제주학연구센터, 2016)

조 무 빈 (趙武彬)

- 생 물 년: 1886. 7. 20.~1952. 10. 4.
- 본 작: 제주 구우 낙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8)

조무빈은 1919년 3월 구우면에서 서당 훈장으로서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제주도의 3·1 만세 운동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 휘문학교 재학생 김장환은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시위 상황을 전하고 김시범, 김시은 등과 동지를 규합하였다.

3월 21일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의 독립 선언서 낭독이 끝나고 김장환이 앞에 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니 군중이 함께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수십 명의 일본 무장대에 의해 시위 군중은 해산되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조천리에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만세 시위가 전개된 이후, 구우면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서당 생도들을 모아 시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격문사건이 발생하였다. 구우면 저지리의 서당 훈장 박세현과 낙천리의 훈장 김여석, 조무빈, 신촌리의 훈장 신계선 등은 의기투합하여 거사 전에 ‘항일 의거의 고사(告祀)’라는 제천의식을 거행하였다. 또한, 일제를 타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 도민들의 쫓기를 촉구하게 하는 격문을 작성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다가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처럼 조무빈도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하려는 격문을 붙이다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이른바 ‘정사범(政事犯)’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수형인명부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홍, 2005) 483~484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30~231면

조봉호 (趙鳳鎬)

- 생몰년: 1884. 5. 12.~1920. 4. 28.
- 본적: 제주 한림 귀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국장(1990)



조봉호는 1919년 5월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제주도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만세 시위를 펼 것을 동료 기독교인들과 협의하던 중 서울에서 밀파된 독립희생회(獨立犧牲會) 연락원 김창규와 접선하게 되었다.

김창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과 ‘해외통신과 제반사항’ 등의 문서를 들고 제주도로 왔는데 조봉호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조선독립희생회 지회 조직을 권유하였다. 이에 평소 뜻을 나누던 동지인 김창국, 최정식, 김창언 등을 소개하고 이들과 함께 독립희생회 제주도지방조직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회원 1인당 2원씩 독립군자금 헌납을 결심하고 최정식의 집에서 임시정부 관련 문서를 복사하여 전 도내에 배포하며 군자금 수합 활동을 폈다.

그러나 1919년 7월 이 사실이 일본 경찰에 노출되며 그와 최정식, 김창국, 문창래, 이도중, 김창언 등 관련자 60여 명이 붙잡혔다. 그는 사건의 중대성과 동지들의 희생을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 스스로 제주도 내의 군자금 모집 총책임자라고 자처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같은 해 11월 1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가혹한 고문의 영향으로 옥중 순국하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11. 12. 대구복심법원)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71-27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9권 977~979면

조창국 (趙昌國)

- 생 물 년: 1898. 3. 25.~(1959. 10. 31.)
- 본 작: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20)



1919년 5월경 서울에서 김창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과 ‘해외통신과 제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갖고 제주도로 왔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에 조선 독립 청원서 제출과 파리 강화 회의에서의 독립 승인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이었다.

김창규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선독립희생회 지회를 조직할 것을 권유하자 조창국 등이 이에 공감하였다. 이들은 제주면 삼도리의 최정식 집에서 김창규가 가지고 온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를 인쇄하여 신좌면 등 면사무소와 제주 성내 부근에 배포하였다.

조창국은 조선독립희생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 운동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12월 12일 제주지청에서 ‘정사범(政事犯)’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출옥 이후 1923년 6월 28일 창립한 제주도 기독교청년회에 참여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19. 11. 12. 대구복심법원)

제주 항일인사 실기(김찬흠, 2005) 487면

조창권 (趙昌權)

- 생몰년: 1881. 9. 15.~1926. 1. 17.
- 본적: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0)

1919년 5월경 서울에서 김창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과 ‘해외통신과 제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갖고 제주도로 왔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에 조선 독립 청원서 제출과 파리 강화 회의에서의 독립 승인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이었다.

김창규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선독립희생회 지회를 조직할 것을 권유하자 조창국 등이 이에 공감하였다. 이들은 제주면 삼도리의 최정식 집에서 김창규가 가지고 온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문서를 인쇄하여 신좌면 등 면사무소와 제주 성내 부근에 배포하였다.

조창국은 조선독립희생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독립 운동자금을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9월 25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정사범(政事犯)’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판결문(1919. 11. 12. 대구복심법원)

모슬포교회100년사(모슬포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2009) 92~95, 122~124면.

지갑생 (池甲生) 이명: 지영춘(池永春)

- 생몰년: 1889. 9. 20.~1935. 6. 9.
- 본적: 제주 좌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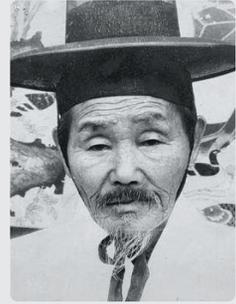
지갑생은 1918년 10월 제주 좌면에서 일어난 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당시 법정사의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신도들과 마을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여한 항일 운동이다. 이들은 제주도에서 일본인을 내쫓고 국권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며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고 방화하였다. 지갑생은 이 시위에 참가하여 체포되었고,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放火)'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의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형사사건부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지 축 생 (池丑生)

- 생 목 년: (1877)~미상
- 본 작: 제주 좌 하원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대통령표창(2022)



지축생은 1918년 음력 3월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등과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내쫓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신도 수백 명과 함께 10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7일 강창규, 박주석 등의 주도로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무장한 봉기대 칠백여 명이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서귀포로 이동하던 중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불태웠으며 일본인 순사 등을 응징하였다.

지축생은 이러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로 인하여 1919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騷擾)’, ‘방화(放火)’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9, 365, 424면
-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신국가 건설운동(안후상, 2023) 48~115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채순병 (蔡順秉)

- 생몰년: 1904. 6. 24.~1922. 6. 5.
- 본적: 제주 제주 일도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애족장(1990)



채순병은 1919년 당시 서울 안국동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사립 국어보급학교 고등과에 재학 중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 이후 서울의 학생들은 3월 5일 남대문역 앞에서 2차 시위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같은 해 3월 4일 밤 서울학생단 주관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본인 하숙방에서 ‘명일 오전 8시 30분 남대문역전에서 제2차 독립 만세 운동이 개최되니 태극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내용의 격문 4백여 매를 만들어 동지 3명과 함께 중학동을 비롯해 인근 각 동에 배포하여 주민을 동원하였다.

다음날인 3월 5일 채순병은 김종현, 최강운 등과 함께 남대문 역전에 모인 수백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조선 독립’이라고 쓴 깃발을 휘날리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벌이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 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았고 다음해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1년 3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3권 55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56-184~186-193-19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5-107-141면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832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11-11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58~82-99~104-155~1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23면

채재오 (蔡載五)

- 생몰년: 1908. 8. 24.~1980. 2. 5.
- 본적: 제주 구좌 종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05)



채재오는 제주의 농민 운동과 사회 운동을 주도하며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0년 제주에는 신재홍의 주도로 항일 비밀 결사 혁우동맹(革友同盟)이 결성되었고, 1931년 5월에는 혁우동맹이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³¹⁾로 개편되었다. 그는 제주도 야체이카에서 신재홍 등과 함께 농민부를 맡았다.

농민 조직 확대에 힘을 쏟던 그는 1931년 11월 3일 신재홍, 한원택 등과 함께 김기생의 집에서 농민조합의 설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농민 수십여 명에게 그는 ‘농민의 피를 짜는 악질 조합 반대’, ‘종묘 강제 배포 반대’, ‘무상 부역 반대’, ‘농민 대중의 이익에 배치되는 면 행정 반대’ 등의 표어를 내걸고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1932년 1월 제주도 해녀들의 권익을 위해 제주도 해녀 투쟁을 배후에서 지휘하였다. 당시 관제조합인 해녀어업조합의 부정으로 해녀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제주도 해녀들은 자생적으로 해녀회를 조직하고 부당한 해녀어업조합에 맞서 나갔다.

해녀 투쟁은 특히 구좌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는데, 1932년 1월 7일과 12일 구좌면 세화 장터에서는 1천여 명의 해녀들이 세화주재소의 저지를 뚫고 호미와 빗창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채재오는 제주해녀항일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고 1년 4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사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조선일보(1932. 3. 4.)
수형인명부(법무부, 1931~1933)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동아일보(1932. 12. 11., 1933. 2. 8., 2. 21.)
형사사건부(조선총독부재판소)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31)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최신일 (崔信日)

- 생 물 년: 1875. 7. 7.~1925. 2. 22.
- 본 작: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5)



최신일은 1918년 10월 7일 제주도 법정사(法井寺) 승려 김연일, 강창규, 방동화 등이 주도한 항일 무력 시위에 참가하였다.

그는 평소 김연일과 교류를 통해 항일 의식을 기르던 중 법정사의 항일 운동 계획에 찬성하였다. 김연일은 1918년 봄 강창규, 방동화 승려를 중심으로 항일 비밀 결사를 결성한 다음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최신일을 비롯한 삼십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추대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추방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여 무력에 의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행동에 앞서 각 면의 이장에게 격문을 배포하고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칠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최신일 등은 일제 경찰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주재소를 습격하고,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풀어주었으며, 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순국(1994. 11월호) 100면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최정숙 (崔貞淑)

- 생 목 년: 1902. 2. 10.~1977. 2. 22.
- 본 작: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최정숙은 1919년 당시 경성여자보통학교 학생으로 3월 1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1일 기숙사 밖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동창생들과 밖으로 나와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독립 선언문이 발표되자 학생들을 포함하여 수천 명의 시위 군중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나와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일제 경찰의 무력 탄압으로 시위가 강제로 해산되고 최정숙은 다른 동지들과 함께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기까지 8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출옥 후에도 교사로 민족 교육과 인재 양성에 힘쓰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1921년 제주에서 강평국 등과 함께 여성 강습소인 여수원(女修園)을 개설하였고, 1927년에는 제주 여자청년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을 맡았다. 또한 1942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제주에 정화위원을 개원하고, 무료 의료 봉사 등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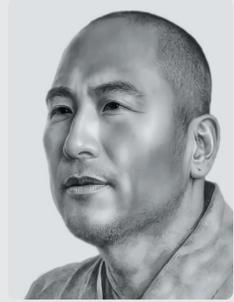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0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13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19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95-10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4집 451면
-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8권 38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66-73-96-98면

최태유 (崔泰裕) 이명: 최태유(崔太兪)

- 생몰년: (1874)~미상
- 본 작: 제주 우서흥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2014)



최태유는 1918년 제주에서 법정사(法井寺) 무력 항일 시위에 선봉집사(先鋒執事)로 참여하여 일본인 관리를 축출하고 주재소를 공격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8년 음력 3월경 법정사의 승려 김연일은 방동화, 강민수, 장임호 등과 제주 내의 일본인 관리와 경찰을 추방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9월 14일에 모여 10월 7일 시위를 일으켜 제주 읍내로 들어가 각지의 일본인 관리를 쫓아내고, 불교도와 법정사 부근의 농민 등을 규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최태유는 1918년 9월 14일 이후 같은 달 말까지 법정사에 머무는 동안, 강창규, 김삼만, 김봉화, 양남구, 강봉환 등과 함께 김연일의 계획에 참여하기로 하고, 각 리에 배포할 격문을 준비하였다. 이어 제주도 좌면 영남리로 들어가 서호리와 호근리에서 준비한 격문을 배포하였다.

선봉대장 강창규 등은 강정리, 도순리, 하원리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를 규합하여 중문리의 주재소를 습격하고 일제 경찰을 제압하였다.

이때 최태유는 선봉집사로서 강창규를 도와 시위대를 지휘하다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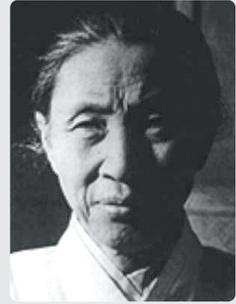
정부는 201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집행원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7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탁명숙 (卓明淑)

- 생몰년: 1900. 12. 4.~1972. 10. 24.
- 본 작: 함남 함흥 서호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건국포장(2013)



1900년 12월 함경남도 함흥군 서호면에서 태어난 탁명숙은 1919년 3월 서울 남대문역 앞에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같은 해 9월 조선총독 처단을 시도한 강우규를 지인의 집에 피신시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5일 학생들과 군중들은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고 남대문 쪽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탁명숙은 도량동 오화영의 집에 가는 도중 명월관 앞에서 독립 만세를 부르는 시위대에 참가하였다.

시위행렬이 남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경비 중이던 일제의 군경이 이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약 만 명으로 늘어난 시위 군중은 저지선을 뚫고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때 시위대를 이끌던 강기덕과 김원벽 등 약 50명이 본정경찰서로부터 지원 나온 일제 경찰에게 체포되어 강제 연행되어 갔다.

이때부터 시위 행렬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갈래는 남대문 안 시장에서 조선은행 앞을 거쳐 종로 쪽으로 향하였고, 또 다른 한 갈래는 남대문 안에서 태평통, 대한문 앞, 황금정을 거쳐 종로로 향하였다. 결국 이 두 대열은 보신각 앞에서 다시 만났는데 군중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일제 경찰대도 더욱 증강되어 검을 빼어 휘두르며 해산을 강행하였다. 이에 많은 학생이 중상을 입고 종로경찰서로 연행되어 갔으며, 나머지 군중은 강제 해산 당하였다.

종로 네거리에서 체포된 탁명숙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20년에는 고향인 함경도에서 사립 동명여학교를 설립하는 등 여성 교육에 앞장섰으며, 1922년 혼인으로 제주와 인연을 맺고는 4·3사건으로 제주에 고아가 많이 발생하자 1951년 제주보육원을 설립하는 등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정부는 201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956) 107면, 421면
판결문(1919. 11. 6. 경성지방법원)
예심종결결정서(1919. 8. 30. 경성지방법원 예심과)
매일신보(1919. 11. 8.)
매일신보(1920. 2. 16.)
독립신문(1919. 10. 14.)
신한민보(1919. 10. 28.)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7권 270, 277면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8~82, 99~104면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9집 345, 347, 349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86) 제5권 220면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8권 228, 232, 237~238면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11집 82, 84면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13집 94~121, 141면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284면

하성구 (河成九)

- 생몰년: 1893. 5. 25.~1943. 4. 13.
- 본적: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3)



하성구는 천주교 신자로서 제주도 축항사무소의 인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1937년 10월 경부터 1939년 봄 무렵까지 제주읍 천주교회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에게 제주도 모슬포 소재 일본 해군 비행장의 구조와 그 확장 공사 사실, 모슬포 비행장에서 발진한 일본 해군기들의 중국 상하이[上海] 방면에 대한 폭격 사실과 제주도 동쪽 해상 우도에 위치한 해군 특설망루(特設望樓)의 구조와 임무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또한, 1940년 9월경부터 1941년 9월경까지는 제주읍 천주교회의 전도사장(傳道師長)으로서 위의 손 신부와 수차례에 걸쳐 '중일전쟁(中日戰爭)과 영독전쟁(英獨戰爭)의 전황에 관한 일본 신문들의 보도는 거의가 허위이다', '만일 영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마땅히 일본이 패전해야 한다', '일본은 전사자가 많다 보니 소집에 응할 만한 군인이 더 이상 없다'는 내용의 시국담을 하였다.

이 무렵 일제는 제주도를 중국 공격을 위한 발진 기지로 만들면서 도내 반일세력을 색출하고 제거하고자 하여, 적대국인 영국 국적의 아일랜드인 선교사들과 그들이 소속된 천주교회 조직을 탄압과 파괴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하성구도 위와 같은 언행으로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1941년 말에 손 신부 등과 함께 일제 경찰에 붙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였다.

그 후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방보안법(國防保安法) 및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과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 6월 형을 병합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한만숙 (韓滿淑)

- 생몰년: 1920. 12. 14.~1993. 3. 8.
- 본적: 제주 조천 조천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격: 애족장(1990)



1920년 조천에서 태어난 한만숙은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유학생들과 함께 비밀 결사인 흥아연구회(興亞研究會)와 계림동지회(鷄林同志會)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만숙은 1940년 3월 니혼대학 부속 오사카전문학교의 특과야간부에 재학하면서 유학생인 김봉각, 김병목, 고봉조, 강금중, 부림전 등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김봉각의 매형이 경영하는 금성제작소에서 흥아연구회를 조직하여 동지들 간에 맹약을 결성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모여 독립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1941년 2월 흥아연구회를 발전적으로 해산하고 비밀 결사대 계림동지회를 조직하자 이에 합류하였고, 재일유학생 동포들에게 항일 사상과 민족의식을 고취하며 항일 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1941년 2월 26일 일제 경찰에게 붙잡혀 1941년 7월 14일 오사카지방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고문으로 인하여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석방되었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대판지방재판소총 제60호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 4권 927~932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305~1310면

한백흥 (韓伯興)

- 생몰년: 1897. 3. 18.~1950. 10. 1.
- 본적: 제주 신좌 함덕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18)



1897년 3월 신좌면 함덕리에서 태어난 한백흥은 1919년 3월 1일 이래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 운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에 호응하여 제주 조천에서 일어난 만세 운동에 참여하였다.

제주의 3·1 운동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당시 서울 휘문고등보통 학교에 재학중이던 김장환은 서울에서 3·1 독립 선언 이후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장환에게서 서울의 시위 상황을 전해들은 김시범, 김시은 등은 제주도에서의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하고 동지를 규합하였다.

3월 21일 오후 3시경 한백흥을 비롯한 인근 마을의 주민과 서당 학생 등 약 오백여 명이 조천리 미밋동산(만세동산)으로 모였다. 이들은 독립 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연창하면서 시가지를 향해 시위 행진을 나섰다. 그러나 이들은 출동한 일본 무장대에 의해 강제 해산되거나 체포되었다.

한백흥도 이 조천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20권 230~231면

한석화 (韓錫化)

- 생몰년: (1897)~미상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2023)



한석화는 1919년 3월 제주도 신좌면 조천리에서 일어난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었다.

제주도의 3·1 만세 운동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생 김장환은 서울에서 만세 운동에 참가하였다가 고향으로 돌아와 시위 상황을 전하고 김시범, 김시은 등과 동지를 규합하였다.

3월 21일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의 독립 선언서 낭독이 끝나고 김장환이 앞으로 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자 군중이 함께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수십 명의 일본 무장대에 의해 시위 군중은 해산되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한석화는 이러한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그가 참여한 조천리 만세 운동은 24일까지 지속되었고, 함덕리와 신흥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석화는 이로 인하여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1933년 5월 3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수형인명부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8, 366, 431면

한원택 (韓遠澤)

- 생몰년: 1912. 12. 19.~1938. 10. 10.
- 본적: 제주 구좌 종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2003)



한원택은 1931년부터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³²⁾에서 활동하였고, 제주해녀항일 운동을 지원하였다.

그는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 제주로 돌아온 강창보의 주도로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가 재결성되자 1931년 5월 가입하였다.

한원택은 같은 해 11월 조선공산당 제주도 야체이카의 구좌면 책임자인 신재홍과 채재오 등과 함께 김기생의 집에서 농민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는 참석한 농민 수십여 명에게 ‘농민의 피를 짜는 악질조합 반대’, ‘농민 대중의 이익에 배치되는 면(面) 행정 반대’ 등의 표어를 발표하고 농민들의 권익 보호와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하였다.

한편 당시 제주 해녀들은 해녀어업조합의 어용화³³⁾로 수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에 제주도 야체이카는 해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을 지원하였다. 한원택은 1932년 1월 ‘제주도 해녀 사건’의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일로 한원택은 1933년 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중 120일 본형 산입)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3. 6. 5. 대구복심법원)
신분정지문원지(경찰청)
조선일보(1932. 1. 28., 3. 4., 1933. 3. 4.)

32) 야체이카: ‘야체이카(Ячейка)’는 러시아어로 ‘세포(cell)’를 뜻하며, 공산당의 기본 조직 단위를 의미한다. 제주도에서는 1920년대부터 노동자와 농민 중심으로 구성된 비밀 사회주의 조직으로 활동하였다.

33) 어용화: 특정 조직이나 단체가 외부 세력, 특히 권력자나 지배 세력의 뜻에 맞춰 움직이도록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현상.

한철영 (韓哲瑛) 이명: 한석영(韓皙瑛)

- 생 물 년: 1897. 2. 17.~1964. 10. 18.
- 본 작: 제주 신좌 함덕
- 운동계열: 3·1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한철영은 1919년 3월 21일에서 24일에 걸쳐 제주도 신좌면 일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제주의 3·1 운동은 신좌면 조천리에서 시작되었다. 1919년 3월 당시 서울 휘문고등보통 학교에 재학 중이던 김장환은 서울에서 3·1 독립 선언 이후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활동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김장환에게서 서울의 시위 상황을 전해들은 김시범, 김시은 등은 제주도에서의 만세 시위 운동을 계획하고 동지를 규합하였다.

3월 21일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의 독립 선언서 낭독이 끝나고 김장환이 앞에 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니 군중이 함께 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수십 명의 일본 무장대에 의해 시위 군중은 해산되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한철영은 이러한 만세 운동에 참여하여 활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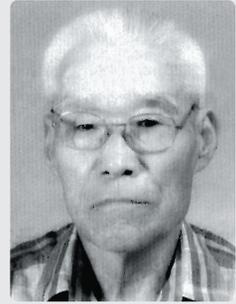
그가 참여한 조천리 만세 운동은 24일까지 지속되었고, 함덕리와 신흥리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철영은 이로 인하여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월(1933년 5월 30일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제민일보(濟民日報)(1962. 3. 1.)
수형인명부

허봉학 (許鳳鶴) 이명: 허옥(許鈺)

- 생몰년: 1917. 2. 11.~1995. 5. 21.
- 본적: 제주 제주 삼도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애족장(1995)



천주교 신자인 허봉학은 아일랜드인 신부 패트릭 도슨(일명 손 신부)과 함께 중일전쟁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깊게 관찰하는 한편 일제의 패망을 예견하고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면서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는 중일전쟁의 발발로 일제의 대륙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모슬포 일본 해군 비행장의 군사 시설을 관찰하는 등 1938년 이후 일본군의 군사상 비밀을 탐지하는 데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모슬포 비행장 지하 격납고에 비행기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우도에 설치된 해군 무전 시설 내용 등 군사 비밀을 캐내어 손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도들에게 알려주는 한편, 정전이 잦은 것은 일제의 전쟁물자 동원 때문임을 상기시키면서 항일 의식을 고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1940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며 일제가 민족 말살을 피하여 신사참배(神社參拜)를 더욱 강요하자,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제가 신격화하던 일왕(日王)을 풍자적으로 조롱하거나 야유하면서 일제의 통치에 항거하였다.

허봉학은 1941년 12월 손 신부의 집에서 동지들을 모아 미·일 간의 태평양전쟁이 일어남에 따라 ‘일본이 한국인에 대하여 지원병을 모집하게 될 것이고, 그 수가 매년 삼천여 명에 달하게 되면 그 가운데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 지도하여 지원병을 단결시켜 봉기하면 독립 달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붙잡힌 그는 194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그리고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사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윤선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2005)

허창두 (許昌斗)

- 생 물 년: 1909. 11. 2.~1976. 8. 20.
- 본 작: 제주 대정 상모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2019)

1928년 6월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 이경채가 항일 선언서를 작성하여 파출소 게시판에 붙이고 전라남도의 각 중등학교, 경찰서 등에 보냈다. 이로 인해 이경채는 6월 8일 체포되었고, 학교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6월 19일에 그를 퇴학 처리하였다.

학생 대표들이 학교 측에 이경채의 퇴학 사유 해명을 요구하자 학교에서는 이들에게 즉시 근신 처분을 내렸다. 이에 6월 26일 학생들은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 휴학에 돌입하였다. 그들은 동맹 휴학을 민족 해방운동으로 인식하고 일본의 교육 정책 철폐를 요구하며 결사 투쟁의 각오로 나섰다.

허창두는 5학년 학생들을 대표하여 동맹 휴학을 주도하였다. 학교에서는 이튿날 그를 포함한 주도 학생 27명을 퇴학 처분하였다.

그러나 허창두 등 학생들은 동맹 휴학 지도본부를 결성하고 참모부, 통신부, 외교부, 회계부를 설치하여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였고, 9월까지 동맹 휴학 지도본부를 중심으로 일제의 교육 정책 철폐 요구와 동맹 휴학을 이어갔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동아일보(1928. 6. 3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9권 522면.

현도선 (玄道善)

- 생몰년: 1911. 10. 10.~1948. 4. 24.
- 본적: 제주 구좌 하도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격: 건국포장(1993)



1931년 3월 제주공립농업학교 졸업 당시, '사상 불순'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현도선의 동급생 김원요가 퇴학을 당하고, 같은 이유로 동급생 신창진과 양두옥이 유급 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다. 김원요는 학교 당국에 격렬하게 항의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졸업식장에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제주경찰서에 수감되었다.

이에 현도선은 동료 졸업생들과 함께 일제의 교육 정책 철폐를 주장하는 격문을 뿌리고 교무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로 몰려가 퇴학과 유급 조치의 부당함을 집단으로 항의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다른 동료 학생들과 함께 붙잡혀 같은 해 8월 2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1932년 3월 1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되기까지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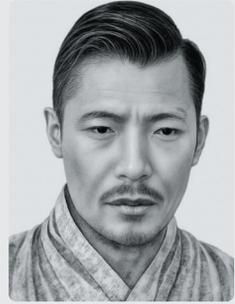
정부는 199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32. 3. 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면
- 동아일보(1931. 3. 11., 3. 14., 8. 30.)
- 형사사건부(19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현무생 (玄戊生)

- 생몰년: 1887. 3. 2.~1920. 9. 29.
- 본작: 제주 좌 월평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2021)



현무생은 1918년 음력 3월경 제주도 법정사(法井寺)의 주지 김연일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여 같은 해 10월 신도 수백 명과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7일 선봉대장 강창규, 박주석 등이 제주도 서귀포 증문 일대에서 낮과 깡이 그리고 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칠백여 명에 이르렀다. 현무생을 비롯한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과 전주를 절단하고 증문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구타하는 등의 집단 항쟁을 일으켰다.

그는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騷擾)', '방화'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30원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나이가 33세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판결문(1919. 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형사사건부
- 수형인명부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9, 365, 424면
- 제주법정사 항일운동(한금순, 2018)

현사선 (玄詞善) 이명: 현사선(玄巳善)

- 생몰년: 1911. 4. 16.~2001. 1. 22.
- 본적: 제주 조천 함덕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격: 대통령표창(1993)



현사선은 1940년 3월 제주도 조천면의 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상에서 동네 주민에게 일제의 내선일체(內鮮一體)론의 허구성을 날카롭게 꼬집어 비판하는 말을 하였다.

같은 해 4월 하순경에는 중일전쟁(中日戰爭)의 전황에 관하여 ‘일본은 장기건설, 장기건설 이라고 떠들면서 국민을 혹사시키고 더욱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방법이 없게 되자 조선인을 전쟁터로 끌어낸다’고 말하여 한인 지원병제(志願兵制)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9월경에는 ‘신문은 일본군이 중국의 임시수도인 충칭[重慶]을 30여 회나 폭격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진짜 폭격했다면 당연히 함락되었을 것인데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것을 보면 30여 회 폭격이라는 기사는 진위를 의심케 한다’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반일사상을 표명하였다.

이를 이유로 1941년 9월 중순에 일제 경찰에 붙잡힌 그는 1942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육군·해군형법(陸軍·海軍刑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형을 선고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42. 8. 13. 광주지방법원)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

현 호 옥 (玄好玉)

- 생 물 년: 1913. 5. 5.~1986. 9. 28.
- 본 작: 제주 정의 성산
- 운동계열: 일본 방면
- 훈 격: 애족장(2019)



1913년 5월 성산리에서 태어난 현호옥은 성산공립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낮에는 자전거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밤에는 중학교 야간부를 다녔다고 한다. 그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공장 직공으로 생활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상황을 보고 노동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1930년대 오사카에는 있는 고무와 가죽, 기타 화학공장의 직공은 대부분 한인이었다. 따라서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화학노동조합에는 한인 조합원이 많았다. 현호옥도 화학노동조합 일본화학 관서지부(關西支部) 오사카지구 동북구(東北區) 남해고무공장분회에 소속되어 있었다.

일본화학 관서지부는 1933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검거로 인해 조직이 궤멸되었다. 이에 1934년 2월 오사카부 동성구에 있는 고무공장 한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일본화학 관서지부를 재건하는 준비회가 결성되었다.

이 준비회에는 성야를 책임자로 하여, 조직부에 한인 좌야와 육복용, 문서 배부계에 성철성, 부인부에 현호옥 등이 책임을 맡아 조직을 재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비합법 메이데이를 감행할 것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던 중에 현호옥은 1934년 4월 11일 육복용, 성철성 등 19명과 함께 검거되었다.

현호옥은 1934년 7월 20일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계속 미결 상태로 있다가 1935년 10월 26일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수형인명부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박경식 편, 1976) 제3권 221, 834, 905면

홍 경 옥 (洪卿玉)

- 생 목 년: 1912. 8. 26.~1949. 11. 15.
- 본 작: 제주 한림 협재
- 운동계열: 국내 항일
- 훈 격: 애족장(1993)



홍경옥은 1933년 1월 제주도 구우면 협재리 자신의 집에서 장용진, 강공흡 등과 함께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하였고 지도자로서 학습을 주도하였다.

같은 해 9월에는 구우면 구우공립보통학교의 이전 문제에 관해 무산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하여 이전 반대 진정서 제출을 주도하였다.

또한, 1934년 7월 자택에서 강공흡, 장용진 등과 함께 무명의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총책과 농민부, 가두부를 담당하였으며 행동 지침을 정하고 동지 규합에 힘썼다. 농민부의 행동 지침은 주민회 또는 민풍진흥회에 참여하여 농민 청년을 규합한 후, 독서회를 조직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함양함으로써 전위부대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가두부는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위료하며 동지로 규합하는 것이었다.

홍경옥은 이러한 활동 중 일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그는 1937년 4월 12일 광주 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제주도사연구(제주도사연구회, 1991. 11. 1.) 160-169-170면
판결문(1937.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홍성옥 (洪成玉)

- 생 물 년: 1913. 6. 9.~1972. 4. 23.
- 본 작: 제주 구우 귀덕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대통령표창(1993)



홍성옥은 제주공립농업학교 2학년생이던 1931년 3월, '사상 불순'을 이유로 졸업 직전에 퇴학 처분을 받은 3학년생 김원요가 학교 당국에 격렬히 항의한 것을 이유로 졸업식장에서 일제 경찰에 피검되고 또한 신창진, 양두옥이 같은 이유로 유급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10일 오후 이두일, 오화국 등 동료 학생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이 교장에게 있으니 동지를 규합하여 항의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날 저녁 동료 학생들과 일본인 교장의 관사를 습격하여 교육 정책의 부당성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하였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격렬한 항거를 주도하였다.

이 일로 붙잡힌 홍성옥은 1931년 8월 3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이 확정되기까지 7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 공훈전자자료관
-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 판결문(1931. 10. 22.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1562~1565면
- 조선일보(1931. 3. 31.)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9권 694-695면

홍 원 표 (洪元杓)

- 생 목 년: 1909. 6. 2.~1939. 2. 7.
- 본 작: 제주 구우 귀덕
- 운동계열: 학생 운동
- 훈 격: 애국장(1990)



홍원표는 광주농업학교에 재학 중인 1929년 6월에 조길룡, 김남철 등 20여 명과 함께 무등산에 모여 조국 독립과 사회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항일학생결사 광주농업학교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독서회는 당시 광주 지역의 중심적 항일 결사였던 성진회(醒進會)가 1927년 3월에 형식상 해체된 후, 이를 확대 개편하여 결성한 독서회 중앙본부의 하부조직이었다. 독서회의 운영은 전 회원을 4개 조로 나누어 조별로 연구 활동을 하는 한편, 별도로 학년별 조직도 구성하였다.

그는 독서회를 통하여 항일 정신을 고양하던 중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 운동 이후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1930년 1월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그는 광주농업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1930년 10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 유지법(治安維持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1931년 6월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일본에 건너간 그는 1934년 11월 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동지를 규합하여 관서지방협의회(關西地方協議會) 재건준비위원회(再建準備委員會)를 구성하고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가 1935년 12월에 다시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1936년 7월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신분장지문조회보서
판결문(1930. 10. 18. 광주지방법원)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238면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22-72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9권 495-501면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264-1611~1624-1633~1654-1667~1709면
조선일보(1930. 1. 20.)
판결문(1931. 6. 13. 대구복심법원)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松浦總三 編) 제6권 9-134-135면

황진식 (黃鎭式)

- 생몰년: 1900. 8. 27.~1976. 10. 13.
- 본적: 제주 신좌 조천
- 운동계열: 3·1 운동
- 훈격: 대통령표창(1993)



황진식은 1919년 신좌면 조천리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만세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제주의 만세 운동은 서울 휘문고등보통학교 학생인 김장환이 서울에서의 만세 운동에 참여 후 고향인 제주로 내려와 시위 상황을 김시범 등에게 전하며 시작되었다. 김시범, 김시은 등은 만세 운동에 함께할 동지를 규합하였고, 황진식도 이에 동참하여 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21일 오후 3시경 미밋동산(만세동산)에서 김시범의 독립 선언서 낭독이 끝나고 김장환이 앞에 나서 '대한 독립 만세'를 선창하니 인근 마을 주민과 서당 학생 등 오백여 명의 군중이 함께 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제주 성내를 향하여 시위 행진을 이어가던 중 수십 명의 일본 무장대에 의해 시위 군중은 해산되었고 황진식을 비롯한 주동자들은 체포되었다.

그는 1919년 4월 26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 문헌

공훈전자자료관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3·1 운동실록(이용락) 562-564면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627-628면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

편 집 | 제주항일기념관
감 수 | 류시현(광주교육대학교)
박찬식(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교 정 · 교 열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발 행 일 | 2025년 11월
발 행 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인 쇄 처 | 내내로전자출판

발간등록번호 79-6500461-100002-01